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학위논문

초등학생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성북구 길음동 미아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A Study on Child-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 Composition
through Particip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Students in Mia Elementary School
in Gireum-dong, Seongbuk-gu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이 효 진

초등학생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성북구 길음동 미아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조 경 진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이 효 진

이 효 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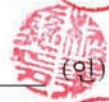
위 원 장

이유미



부 위 원 장

양병이



위 원

조 경 진







초등학생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 성북구 길음동 미아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이 효 진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및 초빙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12월

위 원 장	이유미	
부 위 원 장	양병이	
위 원	조경진	
초빙심사위원	이형숙	

국 문 초 록

도시화의 가속화와 지속적인 도시지역 인구증가 현상으로 인해, 2025년까지 전 세계 아동의 약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인간의 생애 발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동기는 끊임없는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주위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과 경험을 통해 발달해나가는 어린이들에게 있어 도시환경은 보다 중요한 성장배경이자 요소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기에 접하게 되는 도시의 모든 물리적·사회적 성장환경들에 대해 어린이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니세프와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들은 어린이들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프로젝트’와 ‘도시에서 성장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쏟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이슈 중 하나임에도 국내에서는 아동학을 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어린이 친화도시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보다 어린이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고 판단되는 ‘근린환경’을 어린이 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 친화도시의 개념과 이에 필수전제가 되는 어린이 참여 등에 대한 문헌고찰을 하고, 국내에서 어린이 친화 도시 조성의 움직임이 비교적 활발한 서울시 성북구의 길음동 미아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다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에 앞서 현재 근린환경의 어린이 친화성의 수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미아초등학교 학부모 42명과 5학년 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 문항 구성에 있어서는 유니세프 등 관련 문헌에서 제시하는 평가 데이터 툴(tool)들을 참고하였으며, 설문조사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와 어린이 집단 모두 지역 내 어린이의 사회적 참여환경이 잘 마련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성북구의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및 구 차원의 어린이 관련 사업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에 있어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 어린이 참여기구 등이 있다면 자녀의 참여를 적극 고려해보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워크숍은 미아초등학교 5학년 학생 24명(남여 각각 12명씩)과 진행하였으며, ‘우리 동네(근린)’에 대한 주제로 총 두 차례 실시하였다.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의 놀이공간과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워크숍의 활동 방법은 어린이들의 수준을 고려한 마인드맵 그리기, 상상화 그리기, 동네 지도에 맵핑하기, 소감 적어보기 등이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의 가장 많은 실·내외 놀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학교이며, 뒤를 이어 집과 놀이터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들은 새롭고 신선한 놀이기구요소가 동네에 구비되기를 가장 희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레저스포츠요소, 자연적 공간요소, 비일상적 놀이공간요소, 스포츠 공간요소 순으로 놀이 공간 및 요소들을 희망하고 있었다.

셋째, 어린이들이 동네에서 주로 다니는 길은 통학로 주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은 학교 주변의 안전과 위생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강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워크숍을 통해 동네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유사한 워크숍 활동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도시’라는 비전 아래,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보다 실질적인 정책과제와 세부사업들을 계획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앞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현재 성북구 각

지역에 대한 어린이 친화 수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주민 대상의 인식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설문 항목을 구성하여 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 참여 기반의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더 나아가 도시 전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출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 의회 활성화 등이 요구되며,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어린이들 모두가 자신들의 권리와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교육의 기회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들을 지닌다.

첫째,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린환경의 어린이 친화성 수준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의 문항이 다소 일반적인 점이다.

둘째, 워크숍 활동의 참여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기에, 다양한 연령층의 어린이들의 생각을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워크숍 활동이 두 차례의 일시적·단기적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근린환경에 대한 탐색이 지역의 현장답사 등이 생략된 실내 활동 위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린이들과 그들의 주된 생활공간이 되는 근린환경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참여를 통한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의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이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적 흐름에 따라, 미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이러한 어린이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 친화적 도시공간을 계획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하나의 사례이자 매뉴얼이 되길 바란다. 후속 연구에는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토대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주요어 : 어린이 친화도시, 근린,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어린이 참여, 참여계획, 워크숍.

· 학 번 : 2012 - 22078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및 방법	4
2. 연구의 구성 및 흐름	5
제3절 선행연구 고찰	7
 제2장 어린이 친화적 도시의 개념 및 특성 파악을 위한 문헌고찰	9
제1절 아동 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에 대한 이해	9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담론	9
2. 아동발달과 도시환경 간의 관계	11
3. 아동 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 CFC)의 개념	12
4. 아동 친화도시를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15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도시계획	23
1. 협력적 거버넌스의 발현 및 개념	23
2.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24
3. 어린이 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25
제3절 근린환경에 대한 고찰	29
1. 근린환경의 개념	29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근린환경	30
제4절 이론적 고찰을 통한 시사점	31
 제3장 어린이 친화성 진단을 위한 설문 설계 및 워크숍 계획	33
제1절 연구 대상지	33
1. 대상지 선정 배경	33

2. 대상지 일대 개요 및 일반현황	36
3. 대상지 일대 이슈 및 어린이 관련사업	39
제2절 근린환경의 어린이 친화 정도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설문조사	43
1. 설문조사의 목적	43
2. 설문 설계의 방향	43
제3절 어린이와 함께 하는 워크숍	44
1. 워크숍의 목적 참여 대상 선정	49
2. 워크숍 계획 및 진행 일정	50
제4장 설문조사 및 워크숍 결과	54
제1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54
1. 설문조사 절차 및 자료처리	54
2. 아동 설문 결과 분석	56
3. 학부모 설문 결과 분석	63
제2절 워크숍 결과분석	72
1. 1차 워크숍	72
2. 2차 워크숍	84
제3절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방안 모색	93
1.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및 추진 현황	93
2. 본 연구의 과정 및 결과를 통한 모색방안 제안	95
제5장 결론 및 제언	97
참고문헌	101
부록	107
Abstract	124

표 목 차

<표 1-1>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5
<표 1-2> 어린이 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관련 문헌고찰 목록	7
<표 2-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10
<표 2-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10
<표 2-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개념	14
<표 2-4> UNICEF 아동 친화도시의 수행기능	17
<표 2-5> 생활권 위계 구분	29
<표 3-1> 길음뉴타운 사업 개요	36
<표 3-2> 길음동 소리마을 만들기 사업 개요	41
<표 3-3> 성북구의 연차별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대상지	42
<표 3-4> 설문항목 도출을 위한 검토 문헌 목록	44
<표 3-5> UNICEF(2010) 척도의 구성	45
<표 3-6> 홍승애, 이재연(2011) 척도의 구성	46
<표 3-7> 홍승애(2013) 척도의 구성	47
<표 3-8> 본 연구에서의 설문항목 영역 구성	48
<표 3-9> 워크숍 활동 개요	50
<표 4-1> 설문조사 대상 일반 현황	54
<표 4-2> 어린이들이 인지하는 ‘우리 동네’ 공간요소 순위 분석	57
<표 4-3> 어린이들의 근린에 대한 공간인지 요소 구분	59
<표 4-4> 어린이들이 인지하는 ‘우리 동네’ 공간요소의 유형화	59
<표 4-5> ‘놀이와 여가’ 영역에 대한 어린이 응답내용 분석	60
<표 4-6> ‘학교환경’ 영역에 대한 어린이 응답내용 분석	61
<표 4-7> ‘사회적 참여환경’ 영역에 대한 어린이 응답내용 분석	62
<표 4-8> ‘놀이와 여가’ 영역에 대한 학부모 응답내용 분석	63
<표 4-9> ‘안전과 보호’ 영역에 대한 학부모 응답내용 분석	64
<표 4-10> ‘교육환경’ 영역에 대한 학부모 응답내용 분석	6
<표 4-11> ‘정책기반 및 사회적 참여환경’ 영역에 대한 학부모 응답내용분석	66
<표 4-12> 남학생의 주요 놀이 공간 및 놀이행위	76

〈표 4-13〉 여학생의 주요 놀이 공간 및 놀이행위	77
〈표 4-14〉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한 레저스포츠의 분류	80
〈표 4-15〉 상상화에 나타난 희망공간 및 희망시설 · 프로그램 요소와 예시그림	81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흐름	6
〈그림 2-1〉 Child Friendly Cities 프로젝트의 심벌	15
〈그림 2-2〉 CFC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16
〈그림 2-3〉 CFC Building blocks에 제시된 내용	16
〈그림 2-4〉 GUIC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20
〈그림 2-5〉 GUIC 프로젝트 활동 모습	21
〈그림 2-6〉 GUIC 프로젝트의 추진과정	22
〈그림 2-7〉 Hart. R의 청소년참여단계	27
〈그림 3-1〉 연구의 공간적 범위	33
〈그림 3-2〉 유니세프 어린이친화도시 선정 인증식	33
〈그림 3-3〉 길음동 미아초등학교 일대 도시조직	35
〈그림 3-4〉 길음뉴타운 사업대상지	36
〈그림 3-5〉 길음동 미아초등학교 일대 위성사진	38
〈그림 3-6〉 미아초등학교 통학로에 걸쳐있는 아마존 사업 관련 플랜카드	39
〈그림 3-7〉 통학로의 도로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40
〈그림 3-8〉 길음동 소리마을 마을공동체 사업 대상지	40
〈그림 3-9〉 소리마을 가로환경개선공사 및 사회복지시설 공사현장	41
〈그림 3-10〉 솔향기어린이공원 전경	42
〈그림 3-11〉 Child Friendly East Harlem Project, UNICEF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툴을 이용해 지역사회를 평가하고 있는 모습	44
〈그림 3-12〉 커뮤니티매핑의 기대효과(7E)	53
〈그림 4-1〉 아동이 인지하는 우리동네(근린)에 대한 설문 응답 내용의 일부 ...	56
〈그림 4-2〉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정도	67
〈그림 4-3〉 서울시의 아마존 사업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정도	68
〈그림 4-4〉 미아초등학교 일대의 아마존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정도	68
〈그림 4-5〉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시 어린이 의견 반영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의견	69

〈그림 4-6〉 자녀의 어린이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 정도	70
〈그림 4-7〉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자녀의 의견표출 기회 제공 의향 정도	70
〈그림 4-8〉 마인드맵 예시 소개하기	72
〈그림 4-9〉 마인드맵 그리기 방법 소개하기	72
〈그림 4-10〉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 모습	73
〈그림 4-11〉 ‘내가 노는 우리 동네 놀이 공간’ 마인드맵 활동 결과 일부	74
〈그림 4-12〉 마인드맵의 기본 구성	75
〈그림 4-13〉 상상화 그리기 활동 모습	79
〈그림 4-14〉 우리 동네 지도 익히기	84
〈그림 4-15〉 등갯길과 내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 표시하기	85
〈그림 4-16〉 어린이들의 등갯길 및 자주 지나다니는 길	86
〈그림 4-17〉 선호요소, 비선호요소 맵핑하기	87
〈그림 4-18〉 선호요소, 비선호요소 맵핑활동 결과의 일부	87
〈그림 4-19〉 등갯길 및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 대한 부정적(비선호)요소	88
〈그림 4-20〉 등갯길 및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 대한 긍정적(선호)요소	89
〈그림 4-21〉 학교근처 술집에 대한 생각	91
〈그림 4-22〉 차량에 대한 생각	91
〈그림 4-23〉 워크숍 참여 소감 쓰기 활동 모습	92
〈그림 4-24〉 워크숍 참여 소감의 일부 1	92
〈그림 4-25〉 워크숍 참여 소감의 일부 2	92
〈그림 4-26〉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과제 및 추진체계	93
〈그림 4-27〉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사업 및 민관 거버넌스 추진체계	9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1960년에는 39.1%에 불과했으나, 1970년에는 50.1%로서 비도시인구와 동일한 시점을 지나 현재(2012년 말 기준) 91.0%를 기록하고 있다.¹⁾ 전체 국민 중 91%, 즉 4000만 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미국(83%), 영국(80%), 프랑스(85%) 등의 유럽 및 아메리카 대륙의 도시지역 인구비율을 앞서는 수준으로, 대부분이 40%를 웃도는 동아시아의 타국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독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세계 국가들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어왔으며, 그 결과 세계인의 상당수가 도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화의 가속화와 도시지역 인구증가 현상이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됨과 동시에 2025년까지 전 세계 아동의 약 60%가 도시에 살게 될 전망이다.²⁾

그렇다면 도시는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는가?

도시는 아동에게 우수한 교육과 문화, 취미, 여가활동 등의 유익하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과 교통체계 등은 아동들이 보다 좋은 물리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듯 사회적·물리적으로 좋은 도시 환경은 잠재적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에 반해 부정적 영향도 상당하다. 고도의 도시화 현상과 인구 밀집에서 기인하는 주거공간의 협소화, 아동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놀이공간과 녹지 부족, 교통 혼잡, 여러 환경오염, 지역사회의 팽배한 이기주의 등은 현대 도시

1) ‘도시지역 인구비율’이란 전국인구에 대한 도시지역내 거주인구의 비율로 정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1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국토교통부, 2013), p.15)

2) UN, *An Urbanizing World*.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07), 홍승애, 이재연,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아동학회지』, 32(2), 2011, p.53에서 재인용

가 치르고 있는 엔트로피의 대가로서 고스란히 아동에게 전달된다.

아동의 발달은 개인내적요인, 가족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간의 끊임없는 상호 복합적 과정, 즉 개인의 내적 특성들이 아동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이루어진다.³⁾ 따라서 도시의 모든 사회적·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 더욱 중요한 발달 환경이자 요인이 될 것이다.

아동의 사고 발달양상은 매우 가변적이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으며,⁴⁾ 감각을 통해 현실을 탐색하고 식별·해석할 수 있는 무한한 발생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⁵⁾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감에 따라 자아개념이 정립되고 운동능력, 사회정서능력 등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시기의 어린이들이 접하는 도시의 모든 물리적·사회적 성장 환경들을 어린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를 개선하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의 전 생애 발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아동기의 발달과 도시 간의 관계를 고려하고, 더 나아가 아동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이 보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UNICEF와 UNESCO 등의 국제기구를 필두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범세계적 요구에 따라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이른바 ‘어린이 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 CFC)’ 조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도 성장 지향적이었던 기존의 전통적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노인,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3) Bronfenbrenner Urie and Pamela A. Morris,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i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6th ed)*, W. Damon(Series Ed.) and R. M. Lerner(Vol. Ed.), (New Jersey: J. Wiley, 2006), pp.793-828.

4) 김가영, 김보우, “창의력 개발을 위한 경험 중심적 어린이 공간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1(5), 2010, p.16.

5) 박지선, 키즈마케팅에 따른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2.

이러한 홍보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2007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⁶⁾ 정책포럼을 개최하면서 성장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동시에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제 1기·제 2기 꿈나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최근 유니세프로부터 국내 최초로 어린이 친화도시로 인증된 서울시 성북구에서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에게 보다 좋은 지역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전체적인 차원의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약하게나마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의 구체적인 실천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방면의 충분한 연구와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전개 중인 아동 친화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과 국제기구인 UNICEF와 UNESCO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는 ‘아동 친화도시(CFC)조성 프로젝트’와 ‘도시에서 성장하기(Growing Up in an Cities)프로젝트’ 등을 살펴보고 프로젝트 특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모색해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헌고찰을 거쳐, 성북구 길음동의 미아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현재의 근린환경이 얼마나 어린이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미아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어린이 참여를 통한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의 가능성과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6)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는 어린이·청소년의 시각에서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이터 만들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체험 공간 조성, 아동 및 부모의 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출처 : 서울시청 홈페이지

http://inews.seoul.go.kr/hsn/program/article/articleDetail.jsp?boardID=166289&category1=NC1&category2=NC1_1 (검색일 : 2013년 9월 10일).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에서 다루는 내용과 범위,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도시 환경과 아동 발달 간의 관계와 아동 권리 실현 고찰을 바탕으로 아동 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에 대한 개념 및 의의, 아동 친화도시에 대해 국제기구인 UNICEF와 UNESCO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이해하고, 이러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관련 보고서 및 논문 등의 문헌 조사, 국제기구의 웹사이트, 국내 지자체 웹사이트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의 움직임이 활발한 서울시 성북구의 길음동 미아초등학교를 일대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미아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자신들의 근린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어린이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평가하는 단계이다. 평가 항목들을 제공하고 있는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설문 내용들을 재구성하며 초등학교 대상의 설문지는 어린이의 수준을 고려하여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토대로 대상지 내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의 모습을 그려보고, 이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는 어린이 참여의 가능성과 방안을 실질적으로 모색해보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미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주최하고 어린이들과 소통함으로써 ‘우리 동네 환경’에 대한 그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파악한다.

보다 구체적인 설문조사와 워크숍 방법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제 3장에서 다루도록 하며, 어린이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 친화적인 근린환경, 더 나아가 어린이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표 1-1〉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연구 방법	조사내용 및 목적	
관련 보고서, 논문, 웹사이트(Website) 등을 통한 문헌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권리 및 아동 친화도시의 개념 고찰 · 국제기구(UNICEF, UNESCO)의 아동 친화적 도시 조성의 노력 검토 · 협력적 거버넌스(주민참여와 어린이 참여)에 대한 고찰 · 근린환경과 어린이의 일상생활 간의 관계 고찰 · UNICEF 및 국내 아동학 연구논문에서 제시하는 어린이 친화성 평가데이터 검토 	
현장답사	· 대상지 주변의 다양한 도시 구성 요소 및 이슈, 관련사업 분석	
설문조사	학부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의 어린이 친화성 인식 조사 ·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움직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에 자녀의 참여 의지 조사
	어린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 공간 인지요소 조사 · 어린이 생각하는 동네에 대한 어린이 친화성 인식 조사
초등학생 참여 워크숍	· 대상지 내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에 있어 어린이의 참여 가능성 모색	

2. 연구의 구성 및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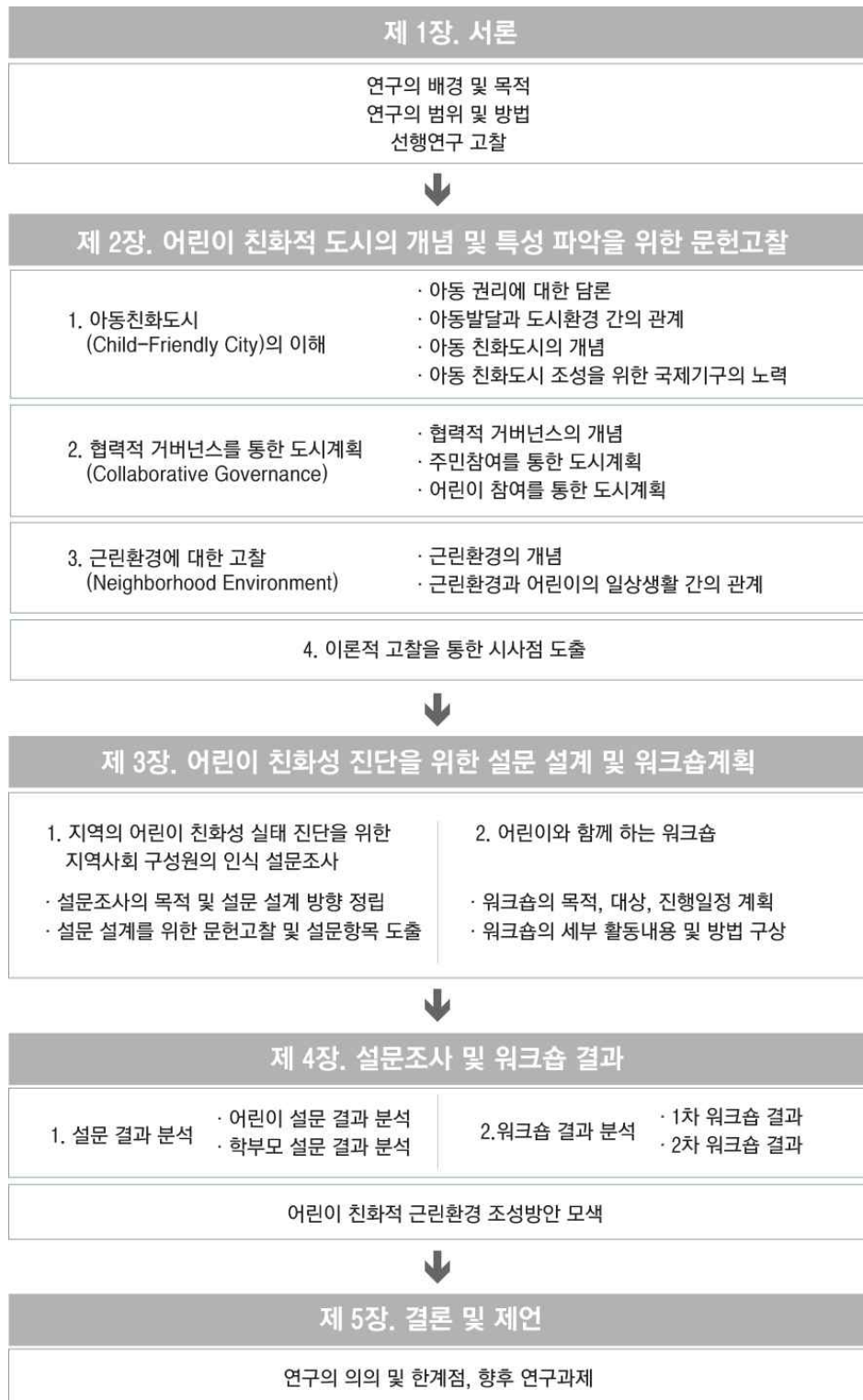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이루어진다. 제 1장은 연구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장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 방법 등을 제시하고 어린이 참여와 도시환경 조성에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도록 한다.

제 2장은 문헌 및 이론적 고찰을 하는 장으로,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이 되는 어린이 친화도시에 대한 다각적 고찰과 더불어 주민·어린이 참여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도시계획의 동향, 그리고 어린이와 근린환경의 관계 등을 살펴본다.

제 3장은 어린이 친화 수준 진단을 위한 주민 대상의 설문 설계 및 어린이 참여 워크숍을 구상·계획하는 장으로, 설문 설계를 위한 관련문헌 검토를 통해 본 연구내용에 적합한 설문항목과 내용들을 구성하고, 워크숍의 일정, 대상, 활동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제 4장은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장으로, 앞서 제 3장에서 구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어린이와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앞서 계획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후에는 설문조사와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성북구의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도록 한다.

마지막 제 5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해 다루면서 연구를 마무리한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흐름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친화적인 근린환경 및 도시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지역 사회의 구성원인 어린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으는 어린이의 참여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실현 가능성과 조성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어린이의 참여활동을 통한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 관련문헌들을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국내에 비해 외국에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에 관한 사례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외 문헌을 위주로 고찰하였다. 관련 문헌 목록은 <표 1-2>와 같다.

<표 1-2> 어린이 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관련 문헌고찰 목록

저자	연구제목	저널 명	연도
Francesca Romana Alparone & Antonella Rissotto	Children's citizenship and participation models: participation in planning urban spaces and children's council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001
Horelli Liisa	Creating child-friendly environments case studies on children's participation in three European countries	Childhood	1998
Horelli Liisa & Mirkka, Kaaja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of 'internet-assisted urban planning' with young peopl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002
Sutton, Sharon Egretta & Kemp P. Susan	Children as partners in neighborhood placemaking: lessons from intergenerational design charrett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002

Alparone & Rissotto(2001)는 십 년 이상 40개의 이탈리아 도시들에서 이루어져 온 어린이 의회에서의 참여를 통한 도시 공간에 대한 계획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참여 어린이의 연령은 청소년(Adolescents)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 활동이 도시 공간 계획에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내적·사회적 발달 및 성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

Horelli(1998)은 핀란드 Kitee지역의 의회에서 초등학생(7-12세)을 초대하여 2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하며 학교 정원과 근린을 개선한 프로젝트를 사례로 다루고

있다. 이 핀란드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스위스 Locarno와 프랑스 Darnetal 지역에서도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 120명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나 핀란드보다 기간은 짧게 두고 이루어졌다고 한다.

Horelli & Kaaja(2002)는 환경적 이슈에 대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망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핀란드 Pihlajisto 시당국은 학교 학생들을 green space 계획에 참여시켰고, 이 기간 동안 학교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다른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시인 Joensuu에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market plaza를 계획하는 도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Juuka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도심의 오래된 목조 센터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다루는 교육과정을 만들기도 하였다.

Sutton & Kemp(2002)는 학술연구자, 대학원생, 디자이너들이 워싱턴과 시애틀 대학에 모여 세 개의 도시지역 초등학교와 근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있어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 109명(9-11, 14-18세) 학생들을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은 프로젝트 팀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지속적 피드백을 통한 통합적 디자인 토론회(Charrette)를 거쳐 프로젝트를 완성해나갔다.

제2장 어린이 친화적 도시의 개념 및 특성 파악을 위한 문헌고찰

제1절 아동 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에 대한 이해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담론

아동 권리 분야의 연구는 모든 아동이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폭력,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아동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다.¹⁾ 이러한 다양한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을 바라보고, 이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 관한 논의는 20세기 이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이라 불리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지구촌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1991년 가입), 북한을 비롯한 세계 총 193개국이 비준하였다.²⁾ 본 협약은 지구촌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이라는 데에 의의를 지니며,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유일한 협약이다. 조문은 전문 및 5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권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과 4대 기본권의 내용 및 관련조항은 아래의 <표 2-1>, <표 2-2>와 같다.

1) 문혁준 외 5인, 『아동학개론』 (서울: 창지사, 2011), p.25.

2) 출처 : 위키백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유니세프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표 2-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조항	원칙	내용
제2조	무차별의 원칙 (Non-discrimination)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Best interests of the child)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6조	생명권, 생존과 발달의 보호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생애시기에서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자기 표명권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아동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 받아야 한다.

※출처 : <http://blog.naver.com/coramdeo87/130178402059> 를 토대로 재구성 (검색일 : 2013년 10월 26일).

〈표 2-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기본권	내용	관련 조항
생존권 (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제 6, 7, 8, 9, 19, 20, 21, 23, 24, 26, 27, 30, 32, 33, 34, 35, 38조
보호권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등	제 2, 7, 10, 11, 16, 19, 20, 21, 23, 25, 32, 33, 34, 35, 36, 37, 39, 40조
발달권 (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제 5, 6, 9, 10, 11, 12, 13, 14, 15, 17, 24, 28, 29, 31조
참여권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 12, 13, 15, 17, 18조

※출처 : <http://blog.naver.com/coramdeo87/130178402059>
<http://blog.daum.net/jwoasis/490> 를 토대로 재구성 (검색일 : 2013년 10월 26일).

2. 아동발달과 도시환경 간의 관계

현대 아동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물리적·사회적·심리적 환경들은 끊임 없이 그리고 급속한 속도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아동은 저마다 환경에 적응하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업을 달성하며 성장해 나간다.

Moore. G. R(1986)는 다양한 경험과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 있는 공간은 성인보다 성장기 아동에게 더욱 의미가 있으며, 이 시기에 경험한 물리적 공간의 환경은 사회적 환경 못지않게 아동의 인격형성에 지대한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aplan(1989)은 아동의 발달은 성인의 발달과는 다르게 매우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성장단계 따라 새로운 자극과 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 놀이, 학습 등을 위한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 이렇듯 여러 학자들이 아동발달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됨을 밝히면서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성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에 살게 될 아동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우리는 아동의 전반적인 생활을 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진단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아동기에 접하게 되는 공간과 환경에 대한 정서적·사회문화적 경험을 비롯한 물리적 공간들은 인간의 전 생애를 통틀어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아동이 접하게 되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문화와 역사적 맥락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는 아동에게 우수한 교육과 문화, 취미, 여가활동 등의 유익하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과 교통체계 등은 아동

3) 오혜경, “주택의 아동실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0(7), 1994, p.91-2.

들이 보다 좋은 물리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Malone, 2006). 이렇듯 사회적·물리적으로 좋은 도시 환경은 잠재적으로 아동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iggio, 2002). 하지만 이에 반해 부정적 영향도 상당하다. 고도의 도시화 현상과 인구 밀집에서 기인하는 주거공간의 협소화, 아동의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놀이공간과 녹지 부족, 교통 혼잡, 여러 환경오염, 지역사회의 팽배한 이기주의 등(UNICEF, 1996)⁴⁾은 현대 도시가 치르고 있는 엔트로피의 대가로서 고스란히 아동에게 전달된다.

3. 아동 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 CFC)의 개념

아동 친화적 도시(Child-Friendly City, CFC)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보고서 및 문헌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관련 보고서 및 문헌들 대부분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아동(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이르는 보다 포괄적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Louise Chawla(2002)는 UNESCO의 Growing Up in an Cities(GUIC) 프로젝트의 국제적 코디네이터로서 그녀의 저서 *Growing Up in an Urbanising World* 에서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도시화 속에서 아동의 관점으로부터 도시환경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고, 이에 대한 계획과 정책 결정에 아동의 참여를 통한 권리 실현을 도모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아동에게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도시가 아동 친화도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Rae Bridgman(2004)는 캐나다의 사례를 예로 들며 아동·청소년의 삶의 웰빙(well-being)과 안전성을 고양시키고, 그들을 사회 구성원인 도시민으로서 정책,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며 함께 만들어나가는 도시라고 밝히고 있다.

Malone(2009)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친화적 양육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

4) 홍승애, 이재연,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아동학회지』, 32(2), 2011, p.54.

는 기회와 공간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마을이라고 밝히고 있다.

황옥경, 김영지(2011)는 아동·청소년 본인은 물론 부모, 가족, 지역사회 등이 함께 일구어내는 도시로, 아동·청소년의 안전, 건강, 활동 및 여가, 배움 및 진로, 참여 등을 망라하는 도시라고 밝히고 있다.

홍승애, 이재연(2011)는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밝히며, 궁극적인 목적은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홍승애(2013)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제2차 세계인간정주회⁵⁾의 Agenda 21, 새천년개발목표⁶⁾ 등에서 천명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 보호하고, 더 나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천명한 이념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밝히고 있다.(P.1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개념은 학자별, 세계 각 지역사회의 특성별로 조금씩 상이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심 이념과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과 청소년들의 기본적 생존권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참여 할 권리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과 서비스가 충분히 마련된 도시’로 정의될 수 있다.⁷⁾

5) 제2차 세계인간정주회의(The Secon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Habitat II))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1976년 처음 개최된 이래로 1996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으며,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조건들을 차단하고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요구와 공헌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출처 : <http://www.iisd.ca/habitat/recent.html> (검색일 : 2013년 10월 26일).

6)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는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인의 약속을 담고 있다. (출처 : 두산백과)

7) 홍승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16-7.

〈표 2-3〉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개념

저자	제목	발행기관 및 저널 명	연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개념
UNICEF	Toward Child Friendly Cities.	UNICEF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1996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청소년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Louise Chawla	Growing Up in an Urbanising World.	Paris: UNESCO Publishing,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2002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화에 대응하여 아동의 관점으로부터 도시환경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이에 대한 공간 계획 및 정책 결정 과정에 아동을 참여시킴으로써 아동의 권리 실현을 도모하도록 한다. 궁극적으로 아동에게 보다 긍정적인 도시
Rae Bridgman	Child-friendly cities: canadian perspectives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2004	젊은이들(young people)의 참여를 환영함과 동시에, 그들의 웰빙(well-being)과 안전성을 고양시키고,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정책 및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Malone	Design for a child friendly city	Journal of Curriculum Leadership	2009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가정과 학교 및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친화적 양육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마을
황옥경 김영지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아동·청소년 본인은 물론 부모, 가족, 지역사회 등이 함께 일구어 내는 도시로, 안전, 건강, 활동 및 여가, 배움 및 진로, 참여를 망라하는 도시
홍승애 이재연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한국아동학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는 과정으로서,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
홍승애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아동의 권리 보호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천명한 이념을 이행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도시

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현재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각 지역사회의 친화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고려한 구체적 목표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⁸⁾ 이러한 일환으로 대표적 국제기구인 UNICEF와 UNESCO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사례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 친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 CFC, UNICEF)

(1) 개요



〈그림 2-1〉 Child-Friendly Cities
프로젝트의 심벌

※출처 :

http://www.devinfo.org/libraries/aspx/news.aspx?T=N&PN=diorg/news_content/news_001_151.html (검색일 : 2013년 10월 15일).

아동 친화도시 만들기(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 CFC) 프로젝트는 국제기구인 유니세프를 중심으로 하여 수행되는 프로젝트로서, 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CRC)을 준수하는 것에 기초로 두고 있다.⁹⁾

유니세프가 지향하는 아동 친화도시의 기본 이념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A city friendly to children is friendly to all)’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 하에 지역사회 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2000년 이탈리아 플로렌스에 CFC 사무국(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IRC)을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아동 친화도시 만들기 노력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8) 홍승애, 이재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4(4), 2013, p.84

9) 김경희, “유니세프의 어린이와 함께 만드는 도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를 위한 광주에서의 모색』, (광주: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회의), p.1

CFC 프로젝트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정부의 책임이 강조된다. 특히 지방자치정부는 지역 사회 환경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변화까지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단위로서 여겨진다. 이러한 지방자치정부의 역할 외에도 중앙정부,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와 지역사회 기반단체(Community-Based Organizations, CBO) 등의 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커뮤니티 기관, 학술단체, 사업체와 매체, 전문가집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린이와 청소년 그룹을 총 동원하는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협력과 교류, 네트워킹, 정보교환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활동들이 양산된다고 보고 있으며 IRC에서는 세계 각지의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¹⁰⁾



〈그림 2-2〉 CFC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출처 : <http://childfriendlycities.org/>

10) CFC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을 번역하여 옮겼음을 밝힌다.

<http://childfriendlycities.org/overview/the-cfc-initiative/> (검색일 : 2013년 12월 15일).

(2) 아동 친화도시가 수행하는 기능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UNICEF의 아동 친화 도시 프로젝트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¹¹⁾

〈표 2-4〉 UNICEF 아동 친화도시의 수행기능

-
- 아동이 도시에 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이 원하는 도시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이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 교육, 쉼터 등의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수혜, 깨끗한 물 등의 적절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 착취, 폭력, 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
 - 아동이 스스로 거리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보수 한다.
 - 아동이 또래를 만나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한다.
 - 다양한 동식물들을 접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제공한다.
 -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
 - 문화적·사회적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민족적 기원, 종교, 소득, 성별 혹은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도시 내의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이러한 아동 친화도시의 이상적인 수준은 도시 혹은 마을이며, 아동 친화도시 실천을 위해 아동들이 지자체의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아동이 원하는 도시를 계획하는 계획가들을 적극 돕는다. 각 나라별, 지역별로 접근방법이 상이하나,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욕구에 반응하고 그들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통의 목표를 지향한다.

11) 이에 대한 내용은 *Child Friendly Cities promoted by UNICEF National Committees and Country Offices - Fact sheet, September 2009*에 제시된 내용을 번역·요약하였다.

출처 : <http://www.unicef.de/blob/23350/110a3c40ae4874fd9cc452653821ff58/fact-sheet-child-friendly-cities-data.pdf> (검색일 : 2014년 1월 20일).

(3)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

CRC 사무국 IRC는 아동 친화도시를 정의하고 조성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단계를 제시하는 틀(framework)을 개발하였다. 이 틀은 아동 친화도시를 위한 토대(Building blocks)라 불리며, 아동의 사회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모든 아동이 동등한 사회적 기본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구조 및 활동 내용들을 담고 있다.

CFC Building blocks	1. 아동·청소년의 참여 조장
	2.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법적 틀 마련
	3.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전략 및 아젠다 개발
	4. 아동·청소년권리 관련 부서 및 조정 메커니즘 설립
	5. 법, 정책 등이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평가
	6.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수행에 대한 예산확보
	7. 정기적 도시 아동·청소년에 관한 실태 보고
	8. 아동·청소년의 권리 인식 제고
	9.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립적 대변 기구

〈그림 2-3〉 CFC Building blocks에 제시된 내용

우선 아동·청소년들을 도시 내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조장하며,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나타나있다. 이와 함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법률과 규정 등의 법적 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권리 실현을 돕는 영구적 부서와 메커니즘을 설립하여 상세하고 포괄적인 전략 및 아젠다를 개발해야 한다고 나타나있다.

법, 정책, 업무 수행 등이 아동·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분석과 함께 적절한 자원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해야 하며, 권리 실현의 실태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나타나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돕는 비정부기구 등의 독립적 대변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나타나있다.¹²⁾

12) 황옥경, 김영지,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pp.45-53.

2) 도시에서 성장하기 프로젝트(Growing up in Cities : GUIC, UNESCO)

(1) 개요

도시에서 성장하기 프로젝트(Growing up in Cities : GUIC)는 국제기구인 UNESCO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도시화 현상의 심화와 함께 도시에 살게 될 아동·청소년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대 도시는 어린 세대의 시대적 요구(needs)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GUIC는 다음의 세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 도시화 과정은 아동·청소년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무엇이 성장하기에 좋은 도시(근린) 환경을 만드는가?
- 과연 도시는 아동·청소년이 시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건설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가?

GUIC 프로젝트는 위의 질문뿐 아니라 다른 여러 질문사항들에 대해 이해하고 응답하며 도시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지자체의 담당관, 도시 전문가, 전 세계 아동·청소년 전문가들이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도출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두에게 보다 좋은 공간을 건설해나가는 학제 간 공동 작업을 수행한다.¹³⁾

13) GUIC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unesco.org/most/guic/guicaboutframes.htm>
(검색일 : 2013년 11월 20일)



〈그림 2-4〉 GUIC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 출처 : <http://www.unesco.org/most/guic/guicmain.htm>

(2) 추진배경 및 역사

GUIC 프로젝트는 1970년대 참여 계획 운동, 특히 1970년 UNESCO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저명한 도시 계획가 케빈 린치(Kevin Lynch)에 의해 시작되었다. 케빈 린치는 아동·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지역 환경에 대해 인식하는 방법을 습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위해 훈련된 연구원들과 함께 지역 환경의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1971년~1975년에는 아르헨티나, 호주, 멕시코, 폴란드의 네 국가를 대상으로, 아홉 개의 저소득층 지역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인터뷰, 그림그리기, 질문·관찰하기, 지도에 맵핑하기, 사진 찍기, 토론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루어냈으며, 이는 지역 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서를 만드는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몇 년간 꽤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확장·지속되지 못하였다. 이에 노르웨이 아동연구센터에서 환경심리학자로 일하던 Louise Chawla는 GUIC 프로젝트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으며¹⁴⁾, 1995년 노르웨이 아동연구센터의 초청으로 8개국으로부터 연구원, 활동가 그리고 도시 계획가 등이 모인 회의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14) <http://www.unesco.org/most/guic/guicaboutframes.htm> (검색일 : 2013년 11월 20일).

본 회의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에 관한 연구프로젝트를 협력 하에 시작하기로 동의함으로써 GUIC 프로젝트는 재개되었다. 이들은 린치가 기존에 이룩한 GUIC 프로젝트의 업적을 인정하고, 이를 참여 지향적 연구(participative research)를 위한 효과적 접근법으로 재탄생 시켰다. 이러한 GUIC 프로젝트는 1996년 유네스코의 MOST Programme¹⁵⁾에 의해 채택된 이후 현재 세계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¹⁶⁾



〈그림 2-5〉 GUIC 프로젝트 활동 모습

※출처 : <http://www.naturalearning.org/content/growing-cities> (검색일 : 2014년 1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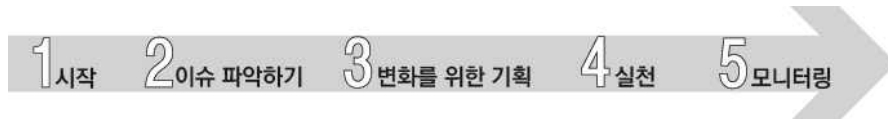
15) UNESCO의 MOST Programme(사회변화관리프로그램, UNESCO's Management of Social Transformations)은 양질의 다자간 정책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플랫폼(Platform)으로써 1993년에 설립되었다. 주요 목적은 사회과학에 관련된 연구 결과와 데이터들을 의사결정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함에 있으며, 연구와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실천적 방안에 대한 효율적인 교량을 구축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는 사회적 통합(social inclusion)과 기후변화(climate change)의 사회적 차원 두 가지를 우선순위 영역으로 두고 있다.

출처 : UNESCO 공식 홈페이지, <http://www.unesco.org/new/en/social-and-human-sciences/themes/most-programme/> (검색일 : 2013년 1월 20일).

16) 황옥경, 김영지, 앞에 든 보고서, pp.61-2.

(3) 추진과정

GUIC 프로젝트는 1단계에서 5단계에 이르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체계 하에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6〉 GUIC 프로젝트의 추진과정

첫 단계에서는 프로젝트의 시작 단계로, 프로젝트 조정팀(Project coordination team)이 결성되어야 하며 장소 선정을 비롯한 프로젝트 전반의 스케줄, 예산 집행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양질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두 번째 단계는 이슈를 파악하는 단계로,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들이 포함된다. 인터뷰, 관찰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얻어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앞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 활동 계획 등을 탐구하며 변화를 기획하는 단계이다.

네 번째 단계는 프로젝트 참여자 및 관련 단체들이 앞서 기획한 활동들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로, 이러한 실천의 방향은 물리적, 정치적, 법적 변화가 될 수도 있다.

마지막은 단계는 프로젝트의 전반을 모니터링 하는 단계로, 프로젝트가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재확인하고, 필요시에는 프로젝트의 목표나 활동 등이 재정립 될 수도 있다.¹⁷⁾

앞서 살펴본 UNICEF와 UNESCO의 프로젝트들은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정부 기구, 관련 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17) 황옥경, 김영지, 앞에 든 보고서, pp.65-9.

제2절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도시계획

1. 협력적 거버넌스의 발현 및 개념

Richard Sennett(2012)에 따르면, 협력 능력이란 인간의 본성과 그들이 살아온 사회의 경험 속에 이미 스며있기에, 협력의 기술을 다시금 습득함으로써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현대사회의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협력의 핵심은 단지 수동적으로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능동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달성해야 할 과제에 대해 참여자들 스스로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로부터 인간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지역적으로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¹⁸⁾

현대 지역사회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특정 개인이나 단일 조직 및 단일 섹터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충분한 협력 없이 중앙정부 주도만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지역발전 사업들이 주민들의 자발성 부족과 중앙정부의 지원중단으로 인해 종료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무기력감과 박탈감이 강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¹⁹⁾ 따라서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존의 거버먼트적 패러다임으로는 현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실질적 대안이 제시되기 어렵다.²⁰⁾

이러한 기존의 거버먼트적 패러다임의 한계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는 참여자와 협력

18) Richard Sennett, *Together: The Rituals, Pleasures and Politics of Cooperation*, 김병화 (역), 『투게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서울: 현암사, 2013), pp.371-432.

19) 이수연,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 2013, p.150.

20) Lasker, R. D. and E. S. Weiss, “Broadening participation in community problem solving: A multidisciplinary model to support collaborative practice and research,” 『Journal of Urban Health』, 80(1), 2003, p.14-47, 이수연, 앞에 든 논문, p.150에서 재인용.

조직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²¹⁾ 출현을 의미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최근들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협력을 통해서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²²⁾ 이는 중앙정부에 국한되어 있던 공공영역을 시민사회로 확장시키고 새로운 공공의 영역을 창출하는 것을 지향한다.

2.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주민참여는 어원적으로 ‘Citizen Participation’, ‘Public Particip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등을 번역한 것으로²³⁾ 1960년대 이후, ‘참여적 민주주의’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정립되었다(배웅규, 1994). 198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와 주민 개입(citizen involvement)과 같은 용어들이 주로 쓰이고 있다(이민우, 1990).²⁴⁾

조경 분야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지난 십여 년 간 전국 각지에서 참여디자인, 마을 만들기, 한평 공원 만들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²⁵⁾ 민선자치시대의 오늘날에는 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필요성

21) 거버넌스(Governance)란,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 이라고도 번역되며, 국가·정부의 통치기구 등의 조직체를 가리키는 ‘government’ 와 구별된다.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통치·지배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의 뉘앙스가 강하다. 이는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비영리·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출처 : 김규정, 『행정학원론』 (파주: 법문사, 1999) pp.11-2)

22) 김수경. 협력적 거버넌스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p.11-3.

23) 조위래. 주민참여형 소공원에서의 장소애착이 공원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p.12.

24) 김인호, 학교조경활동 참여에 따른 환경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20.

25) 허운선, 참여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초등학교 옥외공간 계획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106.

과 관심,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과 그들의 의견 수렴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대두되면서 사업성 위주의 개발방식이 지양되고, 질적 성장 위주의 정비를 지향하는 도시계획 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사 전달의 활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어린이 참여를 통한 도시계획

1) 어린이 참여의 개념 및 효과

어린이 참여란, 어린이들이 참여의 주체로서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 등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⁶⁾ 이는 곧 어린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졌으며, 미래에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적절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어린이의 참여권은 시민권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민권의 개념이란, 출생과 더불어 소속 공동체와 맺게 되는 즉, 국가와 개인 간의 계약관계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시민권의 현대적 의미는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과 자유, 평등, 거주권, 참정권 등이 보장됨을 의미한다.²⁷⁾ 이러한 어린이의 참여는 최근 공간 계획 및 설계, 디자인 분야 등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허윤선(2008)은 어린이 참여 디자인의 개념을 공간에 대해 아이들이 관심을 가

26) 박선영, 아동참여 관점에서 본 초등학교의 박물관 경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8, 조연경, 김정민, 우신구,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5(4), 2009, p. 207에서 재인용.

27) 최원기, 전명기, 이주연(2003),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p. 245

지고 공간의 계획 및 설계과정에 참여하여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공간을 디자인해보도록 유도하는 디자인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어린이들이 이러한 참여디자인을 통해 공간과의 소통능력을 비롯한 공동체 내의 문제 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고 말하였다.²⁸⁾

이러한 어린이 참여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직접 건설되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공동체 건설에 협력해야 할 파트너일 뿐 아니라 주체라는 점, 그리고 공동체 건설에 있어 미래의 책임자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어른과 다른 어린이의 관점은 사회의 또 다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사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어린이를 참여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린이들의 잠재능력과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참여에 대한 연구는,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로 구분되는 아동 권리 연구 중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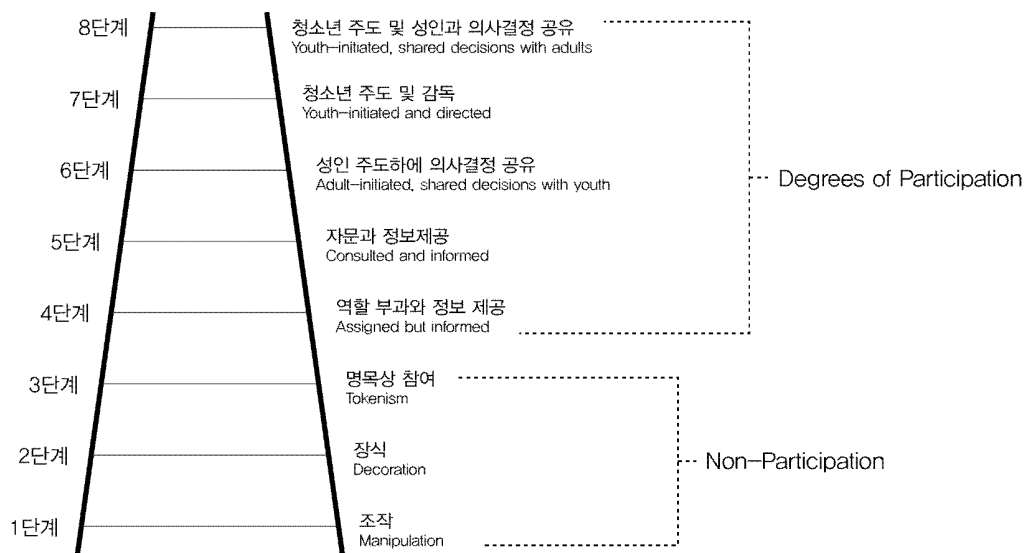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의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참여권 실태조사를 위해 1)자기결정권, 2)표현의 자유, 3)집회 및 결사의 자유, 4)정보 접근권, 5)사회참여 및 참정권의 다섯 영역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과 전반적 권리수준의 만족도는 5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참여를 통한 사회변화 가능성,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와 이에 대한 참여의 필요성 및 참여의지는 5개국 중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²⁹⁾ 이는 아동·청소년의 참여 권리 증진과 실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바이다.

28) 허운선(2008), 앞에 든 논문, p.106

29) 김영지 외 7인,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p.314-5.

2) 어린이 참여의 단계

Hart(1992)는 Arnstein의 주민참여단계³⁰⁾와 차이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의 단계를 8단계의 사다리에 은유적으로 비유하여 설명하였으며, <그림 2-5>가 단계별 참여의 발달 단계를 나타낸다.³¹⁾



〈그림 2-7〉 Hart. R의 청소년 참여단계 (Ladder of Youth Participation)

※출처 : Hart. R. (1992) 재구성

Hart는 이러한 8단계의 참여 단계를 제시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 단계가 반드시 주도적이며 성인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가장 높은 상위 단계의 참여를 이루어내는 것이 항상 이상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30) Arnstein은 주민참여의 단계를 1단계 : 조작(Manipulation), 2단계 : 치료(Therapy), 3단계 : 정보제공(Informing), 4단계 : 자문(Consultation), 5단계 : 회유(Placation), 6단계 : 협동(Partnership), 7단계 : 권한이양(Delegated power), 8단계 : 주민통제(citizen control)의 8단계로 제시하고 있으며, 1,2단계는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없는 비참여단계(Non-Participation)로, 3,4,5단계는 명목적 참여단계(Degree of Tokenism)로 구분하였으며, 6,7,8단계를 진정한 주민참여단계로 구분하였다.

(출처 : 김인호, 앞에 든 논문, p.23)

31) Hart A. Roger, *Children's Participation in Planning and Design.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Innocenti essays.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1992), p.8.

참여의 단계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어린이의 주도성이 향상되긴 하지만, 최고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본인의 능력을 최고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가장 바람직한 어린이 참여의 모습은 참여 어린이들의 연령층,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 단계를 적용하는 것이라 강조하였다.³²⁾

32) 김인호, 앞에 든 논문, p.29.

제3절 근린환경에 대한 고찰

1. 근린환경의 개념

근린(Neighborhood)이란, 물리적·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대면적인 1차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며 공통된 지역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³³⁾ 이러한 근린의 범위는 거주지역의 자연적·물리적 특성과 지역 사회적 네트워크, 가족 및 개인의 거주행태와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근린환경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그 상위의 개념인 생활권의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활권의 범위는 경제성과 사람들의 공간적 행태를 바탕으로 1차 생활권(소생활권, 근린생활권), 2차 생활권(중생활권), 3차 생활권(대생활권)으로 나뉘며, 보다 구체적인 구분은 <표 2-5>에 제시된 바와 같다.³⁴⁾

<표 2-5> 생활권 위계 구분

구분	1차생활권(근린생활권)			2차생활권	3차생활권
도시계획 접근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초등학교(중학교)통학권			지역순환 대중교통 이용 중학교·고등학교 통학권	완결된 체계의 도시 규모
단지계획 접근	기초생활권 (인구보)	근린분구	근린주구	근린지구(지역)	도시권
	이웃거주 친분관계	주민간 면식 가능 보행권	주민간 동질성 강조 보행이동 가능	반경 약 1km	-
	반경 약 100m	반경 약 250m	반경 약 500m		
생활권 크기	소 <—————> 대				

※출처 : 김철수(1994),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2001), 대한주택공사(1992), 서울특별시(1997), 양동양(2004), 오병록, 김기호(2007), p. 29에서 재인용

근린환경(Neighborhood Environment)이란 근린생활권 내의 다양한 근린시설을 중심으로 한 거주환경을 의미하며, 이러한 근린시설은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33) 이재란, 공동주택 거주자의 근린의식과 근린시설 이용도 및 요구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11.

34) 오병록, 김기호, “기성시가지내 뉴타운의 생활권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8(4), 2007, p.29.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거주자의 질을 향상시키며 거주자들 간의 사회적 교류를 유도하는 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³⁵⁾

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근린환경

근린환경에 관련한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주거유형, 단지규모, 연구의 목적 및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인 기존 연구들에서 취한 범위대로 주생활과 직접 연관된 활동범위인 단지와 소생활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⁶⁾

본 연구는 어린이(초등학생)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을 조성에 관한 연구로,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동네(근린)’에 대해 주로 다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근린환경의 개념은 <표 2-5>에 제시된 생활권 위계 구분상 1차생활권에 속한다. 1차생활권인 근린생활권은 초등학교 하나가 유지될 만한 크기로서 보행이동이 가능하여 도보권내의 지역에서 거주자들이 공동서비스, 사회활동, 주거에 필요한 제반시설들을 공용하는 지역적 범위를 가리킨다.

35) 권동현, 이영호,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환경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지회연합논문집』, 9(1), 2007, p.90.

36) 이상운, 박경옥, “택지개발지구 특성에 따른 거주자의 생활권 내 근린환경만족도 및 개선우선지수”,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3), 2010, p.78.

제4절 이론적 고찰을 통한 시사점

UNICEF와 UNESCO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CFCI)와 도시에서 성장하기 프로젝트(GUIC) 사례들을 통해 지역사회를 아동과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를 실천하는 과정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어 변화를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인의 관점과 의견만이 주로 반영되어 온 기존의 도시계획과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계획의 수립부터 종결까지 모든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³⁷⁾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는 좋은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 인식하고, 성인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그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애발달적 관점에서 어린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선상에서 발달을 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해나간다.³⁸⁾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는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의 영향도 크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근린환경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전인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린환경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린생활권 내의 다양한 근린시설을 중심으로 한 거주환경이라 할 수 있으며, 통학, 쇼핑, 오락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활동범위로,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과 사람들 간의 접촉이 이루어진다.³⁹⁾ 이는 어린이의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이동의 범위가 성인에 비해 한정적인 어린이의 경우 일상생활의 주 범위가 근린환경이 된다. 따라서 근린환경은 어린이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장소이자 그들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37) 홍승애, 2013, 앞에 든 논문, p.2.

38) 황혜정 외 4인, 『아동과 환경』(서울: 학지사, 2003), p.396.

39) 박진희, 이상호, “근린환경 내 어린이의 방과 후 이동패턴 및 신체활동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8(7), 2012, p.90.

된다.⁴⁰⁾ 이러한 소규모의 근린환경 내에서 어린이는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행위를 행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존재가 되어간다. 따라서 근린환경 내에서 어린이의 행동양상 등의 행위를 이해하고 발달을 지원하는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이다.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이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성인들의 대변에 의해 재구성되고 재표현 되어 왔다.⁴¹⁾

최근 대두되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들의 원활한 참여권 실현을 돕는 공식적인 활로를 마련하여 그들에게 보다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40) 박진희, 이상호 앞에 든 논문, p.116.

41) Jane Hunter. et al. *School Landscapes - A Participative Approach to Design* (Hampshire: Hampshire County Council, 1998), 김인호, 앞에 든 논문, p.24에서 재인용.

제3장 어린이 친화성 진단을 위한 설문 설계 및 워크숍 계획

제1절 연구 대상지

1. 대상지 선정 배경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 성북구 길음1동에 위치한 미아초등학교 일대로 선정하며, 선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 연구의 공간적 범위

1)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의 움직임

성북구는 유니세프와 2010년부터 협약을 맺고, 어린이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구에서는 2011년 10월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1월에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¹⁾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13년 12월 10일 전국 최초로 유니

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공식인증 받았다.

성북구는 그동안 아동·청소년을 보호대상이 아닌 시민으로서의 권리 주체로 이해하고, 발달·생존·보호·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²⁾

앞서 언급한 아동권리를 반영한 지자체 조례안 제정,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 무상급식,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과 방과 후 돌봄체계 구축, 자기주도학습센터 건립 및 공공도서관 확충, 아동관련 예산의 투명성,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효율적 운영, 아동안전 분야 등을 인정받아 한국 최초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가장 상위의 개념인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서울시 성북구가 실질적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그림 3-2〉 유니세프 어린이친화도시 선정 인증식
 김영배 성북구청장(좌),
 오종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우)
 ※출처 : 김영배 성북구청장 블로그
<http://blog.naver.com/clubyb/199159810>
 (검색일 : 2013년 12월 5일).

2) 미아초등학교 일대 아마존사업 및 다양한 도시 조직의 혼재

성북구 길음동 일대는 서울시의 대표적 뉴타운인 길음뉴타운(길음1동)과 저층 밀집주거지역(길음2동)이 공존하고 있다. 길음동 소재의 미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대규모 아파트 십여 단지가 밀집해 있는 길음뉴타운이, 서쪽으로는 주로 제2종, 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저층주거지가 위치해있다. 따라서 미아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혼재된 도시환경을 일상에서 접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조직 속에, 최근 미아초등학교 일대가 아마존사업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어린이들의 주요 생활공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 1) 박종일, “성북구, 전국 최초 어린이 친화도시 비전 선포,” 『아시아경제』 (2012년 4월 30일자).
- 2) 박종일, “김영배 성북구청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 노하우 전수,” 『아시아경제』 (2014년 1월 24일자).



〈그림 3-3〉 길음동 미아초등학교 일대 도시조직

2) 미아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구 및 통학권

학구(學區)³⁾와 도보 통학구역 분석은 본 연구의 구체적 공간적 범위 설정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통학구역이란 학구 개념으로서 취학이 가능한 구역을 뜻하며,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통상적으로 초등학생이 도보로 통학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장이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⁴⁾하여 결정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1,000미터 이내로 하고,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⁵⁾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의 핵심이 되는 미아초등학교 통학하는 학생들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미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대략 반경 800m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3) 학구(學區, school district) : 취학구역이나 교육행정상 구분되는 구역.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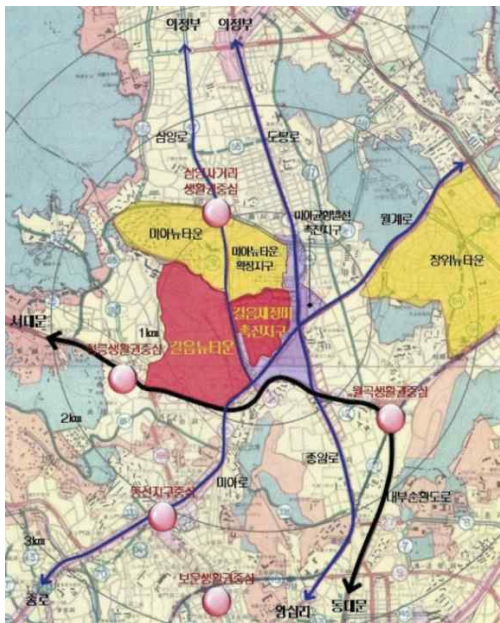
5) 조흥기, 교육환경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1, p. 22.

2. 대상지 일대 개요 및 일반현황

1)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도시구조 개편

성북구 길음1동 일대는 왕십리, 은평과 함께 2002년 10월 서울시로부터 뉴타운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뉴타운사업이 시작됐다.

뉴타운 사업이라 함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⁶⁾ 이는 강북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강남에 비해 열악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며, 강북에 고품격 주거지와 교육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취지를 가진다. 이와 함께 뉴타운 지역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경기 부양을 이루어내는 것 또한 정책 목표이다.⁷⁾



〈표 3-1〉 길음뉴타운 사업 개요

위치	성북구 길음동 971번지 일대
규모	299,793㎡(약 90,678평)
계획인구	16,629명 / 3,740세대
기준년도	2006년
목표년도	2015년
지구지정	2006.06.29.
계획승인	2009.01.02
사업구역	촉진구역2개소, 존치관리구역 3개소
사업방식	주택재개발, 지구단위 계획

〈그림 3-4〉 길음뉴타운 사업대상지

※출처 : 서울시, 『서울시 뉴타운사업 7년간의 기록』, 2010, p.242

6) 서울시, 『서울시 뉴타운사업 7년간의 기록』, 2010, p.18.

7) 김정민, 『도시개발, 길을 잃다』(서울: 시공사, 2011), p.132-3.

성북구 길음동 일대는 뉴타운사업 유형 상 주거중심형뉴타운에 속하는 지역이다. 주거중심형뉴타운 사업지구라 함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⁸⁾ <그림 3-5>는 길음동 미아초등학교 일대 위성사진으로,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나타낸다.

8) 서울시 도시계획포털, “뉴타운사업,” 참조

<http://urban.seoul.go.kr/4DUPIS/wordsearch/main.do> (검색일 : 2014년 1월 20일).



〈그림 3-5〉 길음동 미아초등학교 일대 위성사진

3. 대상지 일대 이슈 및 어린이 관련사업

1) 미아초등학교 일대 ‘아마존 사업’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의 세계적 흐름을 타고 최근 서울시는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 계획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zone) - (일명 아마존 사업)’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마존’ 사업은 구역 내 차량속도를 기존의 30km에서 20km로 제한하면서, 아이들의 놀이공간까지 확보된 생활안전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⁹⁾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단계 진화한 개념으로, 어린이보호 구역을 공간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방법, 놀이 등의 기능까지 고려한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아마존 사업의 시범사업지로서, 미아초등학교 일대가 선정되었으며, 학원과 공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향후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시켜 어린이 안전지도 등에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래 미아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참여를 통한 학교 담벼락 그림 그리기 계획도 있었으나, 이는 학교와 협의를 이루어내지 못 하고 무산되었음을 서울시청 담당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2013년 11월 27일 방문 시, 통학로 주변으로 도로정비 사업만이 한창 진행 중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6〉 미아초등학교 통학로에 걸려있는 아마존 사업 관련 플랜카드
(촬영 : 2013. 10. 23 이효진)

9)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2013년 7월 2일자 보도자료 참고



〈그림 3-7〉 통학로의 도로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촬영 : 2013. 11. 27 이효진)

2) 미아초등학교 주변 길음동 소리마을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대부분의 뉴타운 사업 완료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길음동 1170 일대는 현재 준치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지역은 새로 지어진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인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 저층주거지역으로, 상대적인 슬럼화가 진행 중에 있고 골목길 주차, 협소한 통행로, 지형적 단차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상가, 연립,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이 혼재되어있다.¹⁰⁾

이러한 길음 뉴타운 준치지역인 이 구역은 2011년 2월 서울시 휴먼타운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되어 현재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가로환경개선공사 및 사회복지시설(2014년 1월 준공 예정)을 짓는 등의 초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8〉 길음동 소리마을 마을공동체 사업 대상지

※출처 : 성북구청 홈페이지

10) 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ngbuk.go.kr/sb/sanghwat/maeul/special/special03.jsp> (검색일 : 2014년 1월 20일).



〈그림 3-9〉 소리마을 가로환경개선공사 및 사회복지시설 공사현장
(촬영 : 2013. 8. 27 / 2013. 10. 23 이효진)

〈표 3-2〉 길음동 소리마을 만들기 사업 개요

위치	성북구 길음동 1170 일대
면적	26,566.4㎡
도시계획사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사업개요	양호한 저층주거지를 주차, 방범, 커뮤니티 시설확충으로 보전
주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가로 조성 : 보차도 구분포장, 보안등 설치, 담장허물기 등 · 커뮤니티공간조성 : 사회복지시설 설치, 공공공지 조성 · 이면도로 개선 : 투시형 담장설치, 벽면녹화, 노후계단 정비 등 · 보안 및 통신선 정비 : 통합형 CCTV 설치, 불량통신선 정비 등

※출처 : 성북구청 홈페이지 참고

3) 솔향기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사업

솔향기어린이공원은 면적 4,031㎡으로 길음1동 1190에 위치해 있으며, 솔숲어린이공원(정릉1동 170-10)과 함께 성북구의 2014년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대상지로 지정되어있다. 소요예산은 110백만원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시설로 리노베이션 하여 어린이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수요자인 어린이와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구의 예산여건을 고려하여 2014년까지 불합격시설 5개소를 정비 할 예정이다.



〈그림 3-10〉 솔향기어린이공원 전경
(촬영 : 2013. 10. 24 이효진)

이러한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5월부터 한 달에 걸쳐 263㎡ 규모의 배밭골어린이공원(정릉3동 895-2) 재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예산 60백만원을 들여 조합놀이대, 운동시설 설치, 포장교체, 수목식재 등을 진행하였다.

〈표 3-3〉 성북구의 연차별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 대상지

추진연도	공원명	위치	면적(㎡)	소요예산(백만원)
2012(기완료)	배밭골어린이공원	정릉동 895-2	263	60
2013	한울어린이공원	정릉2동 169-6	2,675	180
	범바위어린이공원	안암동 140-3	1,514	140
	돌피어린이공원	석관동 산1-77	350	80
2014	솔숲어린이공원	정릉1동 170-10	2,922	110
	솔향기어린이공원	길음1동 1190	4,031	110

※출처 : 성북구청(2013),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성북 보고서』, p.187

제2절 근린환경의 어린이 친화 정도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목적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어린이 친화적인 도시는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어린이친화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지역사회에 대한 어린이의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를 실천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친화 수준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 국가들은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유럽연합(UNICEF National Committee : Natcoms)을 구성하여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한 사례를 공유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¹¹⁾ 특히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환경을 평가하는 것을 전략 수립의 첫 단계로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활용한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과 함께 중·단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¹²⁾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어린이 참여기반의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 방법 모색에 앞서, 현재 지역의 어린이 친화성 수준에 대한 어린이(초등학생)와 학부모들의 인식 정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11) UNICEF, *Certification system and other assessment mechanism for child friendly cities-A Study with a focus on europe*. (Florence :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11)

12) Chawla, 2002; UNICEF, 2010. 홍승애, 이재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013, 34(4), p.84 에서 재인용.

2. 설문 설계의 방향

1) 설문항목 도출을 위한 문헌연구

설문조사 항목 및 설문내용 도출을 위해 국내외 기존 관련 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 적합한 설문 항목을 재구성하였다. 설문항목 도출을 위해 검토한 문헌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표 3-4〉 설문항목 도출을 위한 검토 문헌 목록

연구 제목	기관	연구자	연도	연구 분야
The Child Friendly Community Assessment Tools : A Facilitator's Guide to the Local Assessment of Children's Rights	UNICEF Innocenti Centre : Florence & Childwatch International	-	2010	-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한국아동학회	홍승애 이재연	2011	아동학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승애	2013	아동복지학



〈그림 3-11〉

Child Friendly East Harlem Project, UNICEF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툴을 이용해 지역사회를 평가하고 있는 모습

※출처 :

<http://cernyc.org/2012/07/31/child-friendly-communities-east-harlem/> (검색일 : 2013년 12월 20일).

UNICEF Innocenti Centre : Florence와 Childwatch International(2010)에서는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각 지역사회 아동 권리 보장 실태와 생활환경 등에 대해 자가진단해 볼 수 있는 평가 툴(tool)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툴을 이용해 각 지역사회의 아동 권리 보장 실태와 생활환경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툴에서 제시하는 평가 영역은 놀이와 여가(Play and Leisure), 시민으로서의 참

여(Participation and Citizenship), 안전과 보호(Safety and Protection), 건강과 사회적서비스(Health and Social Serviced), 교육 자원(Educational Resource), 주거환경

(Housing)의 총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리커트식 4점 척도(Never True / Sometimes True / Mostly True / Does Not Apply)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UNICEF의 이러한 평가 툴을 토대로 국내 아동학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평가 척도 툴을 개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표 3-5〉 UNICEF(2010) 척도의 구성

연구자	영역	질문 내용
UNICEF Innocenti Center : Florence & Childwatch International (2010)	놀이와 여가	지역사회 내 어린이 놀이, 스포츠 공간의 유무
		어린이 스스로 놀며 휴식을 취할 시간적 여유의 정도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의 유무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의 유무
		타문화, 타 지역의 축제 및 이벤트 참여 가능성의 정도
		프로젝트, 프로그램, 그룹, 학교 외부활동 참여 가능성의 정도
	시민으로서의 참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지역사회를 위한 계획, 의사결정에 어린이의 참여 정도
		정부의 어린이가 생각하는 자신의 삶 또는 지자체에 대한 의견 조사, 수렴 정도
		매체(TV, 라디오)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 습득의 용이함
	안전과 보호	어린이가 인터넷 접근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에 연결되어있다는 생각을 느끼는 정도
		대중교통 이용 시 어린이가 느끼는 안전함의 정도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 안전함을 느끼는 정도
		위험시 어떻게 행동해야하며, 도움 청할 곳이 어디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
	건강 및 사회적 서비스	인터넷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정도
		지역사회 내에 건강상태를 진단을 위한 장소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도
		지역사회 내에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공공 화장실의 존재여부
	교육 자원	쓰레기, 오염수, 악취 등 환경오염 등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
		학교 내 남녀평등, 장애우 존중 정도, 어린이 각각의 지역, 인종, 국가, 문화 등에 대한 존중 정도
		학습 교구(책, 학용품 등) 지원의 용이함
		교사와의 친밀감 정도, 학교 측 결정에 있어 어린이의 의견 수렴 정도
		교내 건강, 환경보호, 어린이 권리 등에 대한 교육내용 존재유무
		교내에서 또래와 함께 게임, 스포츠, 휴식 등을 할 여유의 정도
		교내 청결정도(수질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시설(화장실 등)의 유무
		지역사회 혹은 교내 도서관 유무
	주거환경	교내 물리적 체벌 정도
		안전하고 풍부한 물 사용 정도, 주거 내 혹은 집 주변 쾌적한 화장실, 전기 이용 정도
		주거 내 공기 오염의 정도
		주거 내 어린이를 위한 충분한 공간의 유무
		주거 내 어린이가 느끼는 안전 정도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주거가 충분한 쉼터가 되는지의 정도

※출처 : UNICEF(2010), 앞에 든 자료 참고

홍승애, 이재연(2011)에서는 서울시 3개 자치구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총 9개교 18학급의 755명을 대상으로 도시와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을 연령, 성별 그리고 지역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평가 영역 척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 본 UNICEF(2010)에서 개발한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으며, 놀이와여가(7문항), 지역사회유대관계(10문항), 안전과보호(9문항), 학교생활(21문항), 개인생활(12문항)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리커트식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가끔 그렇다 / 대체로 그렇다 / 언제나 그렇다)로 답하게 되어있다.

〈표 3-6〉 홍승애(2011) 척도의 구성

연구자	영역	질문 내용
홍승애 (2013)	놀이와 여가	야외 놀이공간, 녹지 공간, 신체장애아의 놀이 장소 조성
		문화행사 참가, 여가활동 참여, 친구와의 교류
	지역사회유대관계	지역사회가 아동을 대하는 태도
		지역주민 간 유대감, 외국인 차별 지역사회 환경 개선 노력
		지역사회 정책 참여,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권리 이행 정도
	안전과 보호	교통체계, 안전한 통학로
		유해환경,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의 아동 보호 기관 설치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주민의 노력 등
	학교생활	학교의 물리적 환경
		학교 내 아동권리 교육
		남녀평등 정도
		환경보호 교육, 교과과정 만족도
		교사와의 신뢰 및 유대감
		또래 간 차별 및 폭력, 신체적 체벌정도, 다문화 아동 차별
		아동의 의견 존중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개인생활	청소년> 성교육, 직업교육, 직업훈련 프로그램 여부 등
		가정의 물리적 환경, 집 주변 유해환경
		이웃 간의 관심 및 온정적 태도, 타인의 권리 존중, 종교 활동의 자유

※출처 : 홍승애, 이재연(2001), 앞에 든 논문, p.57 참고

홍승애(2013)에서는 홍승애, 이재연(2011)의 척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전문가 대상으로 법과 제도 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실태를 평가하는 20문항을 추가하여 객관지표로 선정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모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관지표를 선정하여, 부모용 대상 설문에서는 건강 환경(5문항), 안전과보호 환경(8문항), 교육 환경(6문항), 놀이와 여가 환경(7문항), 사회참여(4문항), 정책기반(3문항)의 총 33문항을, 아동·청소년용 대상 설문에서는 건강 환경(3문항), 안전과 보호 환경(8문항), 교육 환경(6문항), 놀이와 여가 환경(7문항), 사회 환경(6문항)의 총 30개 문항을 도출하여 리커트식 4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고 있다.

〈표 3-7〉 홍승애(2013) 척도의 구성

연구자	영역	질문 내용
홍승애 (2013)	건강 환경	학교급식 모니터링 체계 운영, 학교주변 먹거리구역 지정
		지역사회 공공기관(보건소, 주민센터, 구청지정병원 등)에서 제공하는 성 교육, 위험행동 예방 교육 및 정서·행동문제 상담의 용이함
	안전과 보호환경	건물, 놀이시설, 공원 등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여부
		학교주변 스쿨존 알림판, 안전펜스, 교통안전 표지판 등 안전장치 여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운영,
		학교주변 위생정화구역 지정 및 운영, 청소년이용시설(pc방, 노래방 등)의 청소년 보호 법규 준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각종 환경오염, 자전거도로, 야간조명 설치
	교육환경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의 교육기관 존재여부
		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 및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현황
		학교시설 이용 용이성
		아동·청소년의 경험과 체험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된 지역사회 자원 나눔 활동,
	놀이와 여가환경	교육 자원(책, 학습CD 등) 대여 용이성, 도서관 현황
		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공간,
		놀이터, 공원 등의 시설물 관리현황 및 장애우를 위한 시설 설계
		집 주변 놀이 공간 외에 집 근처 여러 장소(골목길, 공터, 산, 언덕, 하천 등)의 놀이공간으로서의 이용,
		나무, 식물, 꽃 등 자연 속 놀이 가능여부
	사회참여	이웃 간 다양한 교류의 공간 존재 여부 등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가능한 기구 및 프로그램 존재여부
		지역주민 연대 자율방범대, 학교보안관 등 지역주민 협력 시스템 제도 운영여부
	정책기반	지역축제 및 행사활동, 자원봉사 등 아동·청소년 참여 기회 여부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조정을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제도 운영 여부
		아동·청소년의회, 아동·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센터 운영여부
		지자체 차원의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사업의 존재여부

※출처 : 홍승애(2013), 앞에 든 논문 pp.155-63 참고

3) 설문항목 도출

앞선 검토한 문헌들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의 실천에 앞서 현재 지역사회가 얼마나 어린이 친화적인지 진단하기 위해, 전문가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홍승애, 이재연(2011)과 홍승애(2013)는 국제사회의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UNICEF(2010) 척도의 영역분류를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영역분류로 수정하고 재편성하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렇게 개발된 평가 지표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 학부모,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 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NICEF(2010)와 홍승애(2013)가 제시하고 있는 평가 척도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였으며, 설문 대상을 어린이와 학부모로 한정하고, 도시의 공간적·물리적 환경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 참여환경 실태 등의 영역 위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구성된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표 3-8〉 본 연구에서의 설문항목 영역 구성

설문대상	설문 항목 영역	영역별 문항 수
어린이 (초등학생)	놀이와 여가	7
	학교환경	6
	사회적 참여환경	7
학부모	놀이와 여가	5
	안전과 보호	5
	학교환경	5
	정책기반 및 사회적 참여환경	7

제3절 어린이와 함께 하는 워크숍

1. 워크숍의 목적 참여 대상 선정

앞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실천을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주요생활 공간이 되는 근린환경에 대해 진단해보고 이를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들과 근린환경(우리 동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어린이 참여를 통한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은 어린이 친화적 도시 조성의 실천에 어린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기본전제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이유로 워크숍의 참가대상은 미아초등학교 5학년 학생 한정한다.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의 경우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중 구체적 조작기¹³⁾에 해당한다. 이 시기 어린이는 자아 중심의 인지단계에서 랜드마크 중심의 인지단계로 발달하는 과정에 놓이게 되면서 사람과 장소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오감을 통한 구체적 경험을 토대로 사고할 수 있다.¹⁴⁾ 또한 10-12살의 어린이들은 활동적·자발적으로 그들의 지역 환경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하고 보다 넓은 범위의 근린환경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던 울타리 밖으로 나와 사회·공간적 질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¹⁵⁾

13) ‘구체적 조작기’란 인간의 인지발달을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한 피아제(J.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에서 다루는 발달단계 중 하나로, 총 네 단계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발달단계이다. (출생직후~2세 : 감각운동기 - 2세 ~ 7세 : 전조작기 - 7세 ~ 11, 12세 : 구체적 조작기 - 11, 12세 이후 : 형식적 조작기) (출처 : 위키백과 ‘인지발달이론’)

14) 허윤선, 양병이, 임승빈(2012), 앞에 든 논문, p.246

15) De Vries, Sanne I. et al. “Determinants of activity-friendly neighborhoods for children: Results from the Space study,”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21(4s), 2007, pp.312-6, 박진희, 이상호(2012), 앞에 든 논문, p.117-8에서 재인용

2. 워크숍 계획 및 진행 일정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을 계획하기 위해 미아초등학교 교감선생님과의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서면으로 두 번의 워크숍 일정과 각각의 세부 활동내용 등에 대해 공지하고 워크숍 대상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참가자들을 16명에서 20명 정도 모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¹⁶⁾ 참가자 모집을 위해 워크숍의 취지 및 활동 내용, 시행 일시 등에 대해 5학년 각 반에 공지되었으며, 이에 참가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구성되었다. 그 결과 5개 반으로부터 총 24명(남학생 12명, 여학생 12명)의 어린이가 모집되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측에서 허가를 내 준 2013년 11월 27일과 29일 방과 후에 약 1시간 반 가량 두 번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표 3-9〉 워크숍 활동 개요

1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3년 11월 27일, 방과 후 · 대상 : 미아초등학교 5학년 학생 24명(남학생 12명, 여학생 12명) · 주제 : '우리 동네 놀이 공간' 에 대해 생각해보기 ·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동네의 놀이 환경에 대해 - 내가 노는 우리 동네 놀이공간에 대한 자유롭게 생각해봄과 마인드맵 그려보기 - 우리 동네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각자 희망하는 놀이 공간에 대해 상상화를 그려봄으로써 표현해보기
2차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3년 11월 29일, 방과 후 · 대상 : 1차 워크숍 참가자와 동일 · 주제 : '내가 자주 다니는 우리 동네 길' 에 대해 생각해보기 ·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로 우리 동네 지도를 보며 지도 보는 방법 익히기 - 내가 집에서 학교 오는 길과 내가 자주 다니는 길을 지도에 표시(맵핑)해보기 - 길을 다니며 보았던 다양한 요소들을 포스트잇을 이용해 긍정·부정적으로 나누어 지도에 표시(맵핑)해보기 (그룹별) -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개선안에 대하여 각자 그림과 글로 자유롭게 의견 펼쳐보기 - 워크숍 참가 소감에 대해 써보기

16) 두 번의 워크숍이 연속선상에 있음을 사전에 밝혀 1차 워크숍 참가자가 2차 워크숍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조건으로 참가자들을 모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워크숍 진행 형태는 조별활동으로써, 조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 조가 되는 어린이들은 서로 친분이 있는 같은 반 어린이 4명(남녀 성비 1:1)으로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1차 워크숍의 세부적 활동내용 및 방법

어린이들은 하루 중 놀이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러한 놀이의 경험은 어린이의 신체와 정신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놀이라는 행위의 정의는 학자별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놀이란 ‘목적성이 없는 즐거운 행위이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 발달의 중요한 바탕이 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¹⁷⁾

현대 도시의 어린이는 카페 형태의 유료 실내놀이기구, TV와 게임, 그리고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여전히 어린이들의 외부 활동에 관한 놀이는 근린생활권 내에 있는 놀이터, 어린이공원, 학교의 부대 시설인 운동장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의 조성의 실천에 있어 우선적으로 어린이 놀이 공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의 대상지인 미아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놀이공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실질적 놀이 공간의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어린이 이용자를 고려한 놀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생각 나누기 기회를 가지고자 1차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1차 워크숍의 활동방법은 마인드맵(Mind Map)으로 생각 표현하기와 상상화 그리기이다.

마인드맵(Mind map)은 1970년 영국 토니 부잔(Tony Buzan)의 ‘배우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 창조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 독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가운데 고안되었다.¹⁸⁾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을 가운데에 기입한 후, 이와 관련 있는 중요 개념들을 가지로 연결 하고 또 그 각각의 개념들과 관련된 또 다른 개념들과 가지로 연결

17) 김주연, 유혜미, 황용섭, “어린이 발달 특성에 의한 놀이 공간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1(2), 2010, p.78.

18) 김인희, 마인드 맵 활동과 아동의 학업성취, 학습태도, 학습습관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7-8.

해가며 가치를 그려나가는 활동이다. 다시 말해, 마인드맵이란 마음의 지도란 뜻으로서 중요한 사실이나 개념을 파악해서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간단한 기호나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고, 색과 다양한 디자인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의 파지 효과와 사고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연상법을 위한 학습을 말한다.¹⁹⁾

이러한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을 함으로써 어린이들은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사고하고 기억해내고, 연상 작용을 해봄으로써 창의적 생각들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상상화 그리기에 대해 허윤선(2008)은 초등학생의 경우 상상화를 그리는 활동에 있어 자기중심적 표현의 잔재가 약간 남아있고 사실적 표현이 다소 서툴지만, 창의성을 발휘하여 상상과 기대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방법²⁰⁾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의 목적이 어린이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어린이들과 근린환경(우리 동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봄으로써 어린이 참여를 통한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기에 어린이 참여자와 연구자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상상화는 소통의 매개가 되는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활동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19) 최낙훈, 마인드맵을 활용한 학습지도가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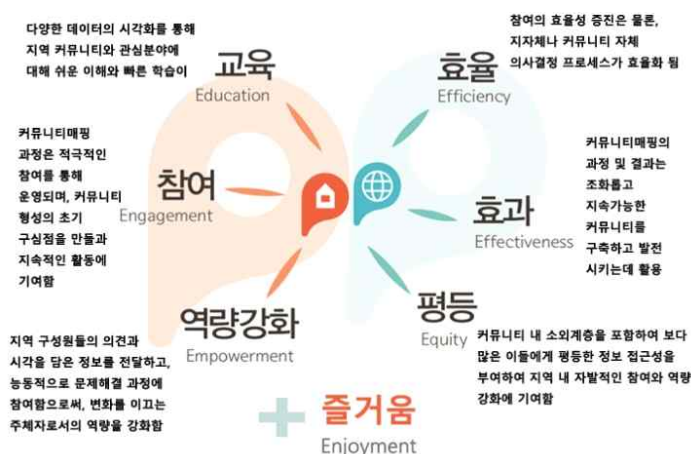
20) 허윤선(2008), 앞에 든 논문, p.34.

2) 2차 워크숍의 세부적 활동내용 및 방법

1차 워크숍에서 어린이의 놀이에 환경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면, 2차 워크숍에서는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다니는 길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유니세프(2007)의 세계 21개국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지역 사회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보다 자유를 만끽하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족 및 또래의 관계에 보다 긍정적이고, 행동문제와 비만을 또한 낮았다고 한다. 따라서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의 조성의 실천에 있어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연구의 대상 지인 미아초등학교의 통학로와 학생들이 주로 지나다니는 길에 대해 어린이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2차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2차 워크숍의 주된 활동방법은 커뮤니티매핑(Community Mapping)으로, 이는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함께 사회문제나 지역의 이슈와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하고 이를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고 이용하는 과정을 지닌다.²¹⁾ 이러한 활동을 통한 기대효과는 <그림 3-8>의 내용과 같으며 교육과 참여, 역량강화, 효율적 효과 그리고 즐거움을 지녔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린이 대상의 워크숍의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3-12〉 커뮤니티매핑의 기대효과(7E)

※ 출처 : 커뮤니티매핑센터 홈페이지

21) 출처 : 커뮤니티매핑센터 홈페이지(<http://www.cmckorea.org/>)

제4장 설문조사 및 워크숍 결과

제1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설문조사 절차 및 자료처리

제3장에서는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을 조성하기에 앞서, 지역의의 현재 어린이 친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조사해야 함을 밝혔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3년 9월 중순 전화상으로 미아초등학교 교감선생님께 본 논문의 주제 및 미아초등학교 학생·학부모 대상의 설문조사 계획과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사전 협조요청을 하였다. 그 결과 논문의 구체적인 주제를 검토 한 후,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문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응답을 받았다. 이후 설계된 설문을 가지고 10월 중순 1차적으로 교감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설문 항목과 내용 등에 대해 검토 받은 후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실시하였다.

〈표 4-1〉 설문조사 대상 일반 현황

(단위 : 명)

구분		3학년	4학년	5학년	계	
초등학생	남	30	32	33	95	170
	여	28	23	24	75	
학부모		13	13	16	42	

학생 대상의 설문은 미아초등학교 3, 4, 5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두 학급 씩 임의 선정하여 학생 총 170명(3학년 : 58명, 4학년 : 55명, 5학년 : 57명 / 남학생 : 96명, 여학생 :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3년 10월 24일 각 학급에 배부하고 10월 25일에 회수하였다.

학부모 대상의 설문은 2013년 10월 24일 3, 4, 5학년 학생 50명을 임의 선정해 각 가정으로 배부하고, 10월 25일에 1차 회수, 10월 30일에 2차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설문대상 학생들이 ‘우리 동네’를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공간 구성요소와 자주 가는 곳을 서술하게 하여 그 결과를 소팅(sorting)하고 응답빈도를 분석하여 ‘우리 동네(근린)’를 인지하는 공간적 범위를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근린에 대해 얼마나 어린이 친화적인지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4점 리커트식 척도로 이루어진 응답 내용을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렇다(1점), 대체로 그렇다(2점), 언제나 그렇다(3점)’으로 정하고, 유니세프가 개발한 점수 환원 방식을 사용하였다.¹⁾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점수(Total Calculated)가 낮을수록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어린이 친화적인 도시와 지역사회로 볼 수 있다.

1) 홍승애, 이재연(2011)에서는 설문 자료 분석을 위해 평균 점수의 국제간 비교를 위해 유니세프가 개발한 점수 환원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역시 이를 차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2. 아동 설문 결과 분석

1) 아동이 인지하는 우리 동네(근린)

어린이들에게 몇 가지 예를 제시한 후, ‘우리 동네’ 하면 떠오르는 곳과 자주 가는 곳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술해보도록 요청했다. 또한 동네에서 자주 다양한 답변들이 주관식으로 기술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응답내용 대한 언급 빈도 횟수를 카운팅 하여 빈도분석을 하였다. 응답 내용 및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3)학년 (●)반 (성별 : 남/여)	(4)학년 (●)반 (성별 : 남/여)
<p>“우리 동네(근린)에 대해 생각해봅시다.”</p> <p>1. ‘우리 동네’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곳들은 어디인가요? 자유롭게 써보세요. (예를 들어 : 아파트, 우리학교, 주변학교, 운동장, 놀이터, 공원, 문방구, 학원, 병원, 가게, 교회, 횡단보도 등)</p> <p>언뜻 경찰서부터 근도장, 그네 놀이터, 모래놀이터, 분수, 코끼리, 도넛 가게, 편의점</p> <p>2. 학교 외에 여러분이 평소 동네에서 자주 가는 곳들은 어디인가요?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예를 들어 : 햇살문구, 도로시킴, OO학원, OO아파트 놀이터, OO마트 등)</p> <p>우리집, 큐브레전(수학학원) 등.</p>	<p>“우리 동네(근린)에 대해 생각해봅시다.”</p> <p>1. ‘우리 동네’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곳들은 어디인가요? 자유롭게 써보세요. (예를 들어 : 아파트, 우리학교, 주변학교, 운동장, 놀이터, 공원, 문방구, 학원, 병원, 가게, 교회, 횡단보도 등)</p> <p>점프스타 학교, 우리집, 플레이 패드 놀이터, 문방구(시대문), 스포츠센터, 개운중, 성신여고</p> <p>2. 학교 외에 여러분이 평소 동네에서 자주 가는 곳들은 어디인가요?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예를 들어 : 햇살문구, 도로시킴, OO학원, OO아파트 놀이터, OO마트 등)</p> <p>개운산스포츠클러스터, 플레이 패드, 햇살문구, 삼보름마트, 도로시킴</p>
<p>(5)학년 (●)반 (성별 : 남/여)</p> <p>“우리 동네(근린)에 대해 생각해봅시다.”</p> <p>1. ‘우리 동네’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곳들은 어디인가요? 자유롭게 써보세요. (예를 들어 : 아파트, 우리학교, 주변학교, 운동장, 놀이터, 공원, 문방구, 학원, 병원, 가게, 교회, 횡단보도 등)</p> <p>햇살문구, 학교, B3Q, 도로시킴, 우리아파트, 놀이터, 교회, 두성하이테크, 지이소와과, 롯데캐슬, 폭포, 동계산, 운동장, 축구공터, 북아관, CCTV, 헌신, 비탈계곡관</p> <p>2. 학교 외에 여러분이 평소 동네에서 자주 가는 곳들은 어디인가요?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예를 들어 : 햇살문구, 도로시킴, OO학원, OO아파트 놀이터, OO마트 등)</p> <p>햇살문구, 도로시킴, 파리버가게, 유성하이테크, 지이소와과, 매지메이안 오리베라 놀이터, GS25, 베전필름, 푸른팜, 송천교회, 커민나무</p>	<p>(5)학년 (●)반 (성별 : 남/여)</p> <p>“우리 동네(근린)에 대해 생각해봅시다.”</p> <p>1. ‘우리 동네’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곳들은 어디인가요? 자유롭게 써보세요. (예를 들어 : 아파트, 우리학교, 주변학교, 운동장, 놀이터, 공원, 문방구, 학원, 병원, 가게, 교회, 횡단보도 등)</p> <p>우리학교, 내가 다니는학원, 동영공원, 우리집, 분수원 수학학원 영어학원</p> <p>2. 학교 외에 여러분이 평소 동네에서 자주 가는 곳들은 어디인가요?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예를 들어 : 햇살문구, 도로시킴, OO학원, OO아파트 놀이터, OO마트 등)</p> <p>수학학원, 영어학원, 백연관, 한빛학원, 줄리안원</p>

〈그림 4-1〉 아동이 인지하는 우리 동네(근린)에 대한 설문 응답 내용의 일부

〈표 4-2〉 어린이들이 인지하는 ‘우리 동네’ 공간요소 순위 분석

순위	언급횟수*	응답내용	유사 응답내용
1	82	학교, 우리학교	미아초등학교
2	80	아파트	동부센트레빌, 래미안, 대림, 두산, 삼양아파트 등
3	72	놀이터	모래놀이터, 로켓놀이터, 뱃놀이터, 호박놀이터, 플레이팩토, 트리베라 놀이터 등
4	52	학원	줄리영어, 큐브레인, 우쿨렐레학원, 열린음악피아, 청담어학원 등 각종 학원
5	51	문구점	햇살문구, 시대문구, 색연필문구, 푸른팬시 등
6	46	마트 (가게, 슈퍼)	우성하이퍼, 롯데슈퍼, 이마트, GS 마켓, 홈플러스, 베스킨라빈스, 도넛츠 가게, 파리바게트, 삼보홈마트, 동네마트 등
7	39	운동장	축구골대
8	23	우리집	-
9	22	교회	송천교회, 성북교회
10	22	공원	중앙공원
11	20	횡단보도	-
12	16	병원	지인소아과, 아이세상치과
13	7	주변학교	삼각산고등학교, 개성중, 성신여고 등
14	6	상가	대림상가, 두산상가, 삼양동상가 등
15	5*	주택, 분식집, 성당, 식당(음식점), 점핑스타	고깃집
16	4*	치킨집, 커피숍	BBQ, 커피나무, 도로시키친 등
17	3*	친구집, 주차장, 시장, 건물, 도로, 계단, 나무, 가로수	길음시장, 돌계단 등
18	2*	편의점, 백화점, 친구, (학교)도서관, 찻길, 자동차, 산, 은행, 분수	GS25시, 현대백화점, 북한산 등
19	1*	친척집, 경비실, 운동기구하는 곳, 집 앞 운동장, 매점, 신호등, 미아삼거리, (학교)보안관, CCTV, 내부순환로, 길음역, 오르막길, 벤치, 지하철, 매연, 고속도로, 영화관, 스포츠센터, 땅, 주유소, 술집, 연못, 놀이기구, 문고, 삼성화재, 개운산스포츠센터, 백호체육관	-

(**언급횟수는 응답내용과 유사응답내용의 언급 횟수를 합한 값임.)

*응답횟수 1, 2, 3, 4, 5는 각각의 응답 내용에 해당하는 횟수임. 예) 친척집 : 응답횟수 1회/ 편의점 : 응답횟수 2회)

설문에 응한 거의 모든 어린이들은 우리 동네의 구성요소로 자신이 다니는 학교(우리학교, 미아초등학교)를 1순위로 가장 많이 기술하였다(82회 언급, 약 12.7%). 초등학교시기에 있는 어린이는 생활의 중심이 일차집단인 가정에서 이차 집단의 성격을 가진 ‘학교’라는 교육기관으로 옮겨가고, 학교교육을 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 기술을 습득하는 발달을 이루게 된다.

학교라는 사회적 교육공간은 어린이가 또래 집단과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하고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여 행동하도록 하며,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중요한 조직적·체계적인 사회화 과정의 장(場)²⁾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는 어린이가 인식하는 우리 동네의 공간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순위로 나타난 것은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이며(80회 언급, 12.4%), 82회로 가장 많이 언급된 학교와 언급 횟수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미아초등학교가 위치해있는 길음1동 일대는 서울시의 시범뉴타운지구로서 길음 뉴타운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뉴타운 조성 방식의 재개발을 통해 고층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경관은 주로 아파트며, 이러한 아파트 경관은 어린이들이 인지하는 우리 동네 요소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요소설문 결과 자신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동네를 떠올렸을 때 아파트를 떠올리는 어린이가 많았다.

3순위로 나타난 것은 ‘놀이터’이며(72회 언급),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놀이터의 명칭 및 어느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허윤선, 양병이, 임승빈(2012)에서는 어린이는 자주 이용하고 선호하는 공간 요소를 중요하게 인지하고 기억 속에 저장한다고³⁾ 입증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들은 우리 동네에 대해 생각나는 곳들에 대해 적어보라는 요구에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이거나 동네를 오며가며 눈에 포착되는 순간적인 장소와 장면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그림 4-1>의 주관식 설문내용의 빈도분석 결과는 <표 4-2>과 같으며, 설문에 나타난 어린이들의 우리 동네 인지요소의 원자료(raw data)를 보다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구분하기 위해 관련 기존 논문(허윤선, 양병이, 임승빈; 2012)을 참고하였다.⁴⁾

2) 황혜정 외 4인, 앞에 든 책, p.289

3) 허윤선, 양병이, 임승빈(2012), 앞에 든 논문, p.248

4) 허윤선, 양병이, 임승빈(2012)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에 명시된 용도지역, 주거지역, 기반시설에 관한 항목을 비롯해 문은미(2000), 최목화, 최병

허윤선, 양병이, 임승빈(2012)에서 구분하고 있는 항목별 어린이의 근린에 대한 공간인지 요소 구분 내용은 <표 4-3>과 같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주관식 응답 내용을 분류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 어린이들이 인지하는 ‘우리 동네’ 공간요소의 유형화

(*() 안의 숫자는 언급 횟수)

항목	공간인지 요소	총 언급빈도
주거요소	아파트(80)*, 우리집(23), 주택(5), 친구집(3), 친척집(1),	112
교육요소	[우리]학교(80), 학원(52), 주변학교(7), 학교 도서관(2)	141
놀이 및 휴게요소	놀이터(72), 운동장(39), 공원(22), 점핑스타(5), 개운산스포츠(1), 백호체육관(1), 스포츠센터(1), 운동기구하는 곳(1), 집 앞 운동장(1), 놀이기구(1), 산(1), 벤치(1)	146
공공요소	병원(16), 은행(2), 교회(22), 성당(5)	45
상가요소	마트[가게, 슈퍼](46), 상가(6), 분식집(5), 식당(5), 치킨집(4), 커피숍(4), 시장(3), 건물(3), 편의점(2), 백화점(2), 문고(1), 삼성화재(1), 영화관(1), 주유소(1), 매점(1)	85
교통요소	횡단보도(20), 주차장(3), 도로(3), 찾길(2), 자동차(2), 신호등(1), 고속도로(1), 내 부순환로(1), 미아삼거리(1), 길음역(1), 지하철(1)	36
문화재요소	-	-
기타	나무(3), 가로수(3), 분수(2), 친구(2), 땅(1), 연못(1) 경비실(1), 학교보안관(1), CCTV(1), 계단(1), 오르막길(1), 매연(1), 술집(1)	19

숙(2003)의 기존 연구에 명시된 항목을 고찰하여 어린이들의 근린에 대한 공간인지 요소 구분을 위한 유형화 목록을 구성하였다.

<표 4-3> 어린이들의 근린에 대한 공간인지 요소 구분

항목	공간인지 요소
주거요소	집의 유형(주택, 빌라, 아파트 등), 우리집, 친구집
교육요소	우리 학교, 주변 학교(인근 초, 중, 고 대학교), 학교 외 교육요소(학원, 방과후교실, 공부방, 구민회관)
놀이 및 휴게요소	공원, 산, 성곽, 하천 놀이터, 운동장, 체육관
공공요소	관공서(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교육청 등), 금융시설(은행), 의료시설(병원, 약국 등), 종교 시설(교회, 절, 성당),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상가요소	문방구, 가게 및 시장(슈퍼, 마트 등), 음식점, 분식점, 공장 및 회사, 기타 상점(옷가게, 화장품가게 등)
교통요소	가로(도로, 골목길 등), 교통시설(지하도, 굴다리, 주차장, 지하철역, 정류장 등), 횡단보도 및 신호등
문화재요소	문화재(흥인지문, 이화장 등)
기타	위험, 더러운 곳(쓰레기장, 유흥업소 등), 계단

※ 출처 : 허윤선, 양병이, 임승빈(2012), 앞에 든 논문, p.247

2) 미아초등학교 일대 근린환경 평가

객관식 설문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렇다(1점), 대체로 그렇다(2점), 언제나 그렇다(3점)으로 정하고, 유니세프가 개발한 점수 환원 방식을 사용하였다.⁵⁾ 총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총 점수(Total Calculated)가 낮을수록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보다 어린이 친화적인 도시와 지역사회로 볼 수 있다.(총 점수 환산의 예: ‘놀이와 여가’ 영역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우리 동네에는 친구들과 놀이, 게임, 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에 대한 점수 산출 식 : $(17 \times 0) + (46 \times 1) + (54 \times 2) + (53 \times 3) = 313$ 점)

(1) ‘놀이와 여가’ 영역에 대한 응답내용 분석

〈표 4-5〉 ‘놀이와 여가’ 영역에 대한 어린이 응답내용 분석

놀이와 여가 영역	응답 항목				응답자 (단위 : 명)	총 점수 (단위 : 점)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 우리 동네에는 친구들과 놀이, 게임, 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17 (10.0%)	46 (27.1%)	54 (31.8%)	53 (31.2%)	170	313
2. 나는 우리 동네 놀이터, 공원 등에서 노는 것이 재미있다.	18 (10.6%)	40 (23.5%)	40 (23.5%)	72 (42.4%)	170	336
3. 우리 동네에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배려한 놀이터나 공원이 있다.	113 (66.5%)	33 (19.4%)	19 (11.2%)	5 (2.9%)	170	86
4. 우리 동네에는 자연(산, 나무, 꽃 등)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12 (7.1%)	34 (20.0%)	50 (29.4%)	74 (43.5%)	170	356
5. 나는 집 주변의 놀이터나 공원 말고 집 근처의 여러 곳(골목길, 공터, 산, 언덕, 하천 등)을 놀이장소로 이용한다.	70 (41.4%)	62 (36.7%)	17 (10.1%)	20 (11.8%)	169	156
6. 집과 가까운 곳에 이웃들과 만나 함께 어울리며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있다.	39 (22.9%)	48 (28.2%)	42 (24.7%)	41 (24.1%)	170	255
7. 나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아동센터,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취미활동을 한다.	103 (60.6%)	30 (17.6%)	23 (13.5%)	14 (8.2%)	170	118

(*총 점수 중, 진하게 처리된 숫자는 평균 점수 이하의 항목을 나타냄)

- 5) 홍승애, 이재연(2011)에서는 설문 자료 분석을 위해 평균 점수의 국제간 비교를 위해 유니세프가 개발한 점수 환원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역시 이를 차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놀이와 여가’ 영역에 대한 질문 항목들의 평균 총 점수는 231.4점이며, ‘장애아 또래 친구를 배려한 놀이터나 공원이 있다(86점)’, ‘지역 내 아동센터나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취미활동을 한다(118점)’, ‘놀이터·공원 외 골목길, 공터, 산, 언덕, 하천 등의 장소를 놀이장소로 이용한다(156점)’의 항목이 순서대로 평균 점수에 가장 못 미치는 총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환경’ 영역에 대한 응답내용 분석

〈표 4-6〉 ‘학교환경’ 영역에 대한 어린이 응답내용 분석

학교환경 영역	응답 항목				응답자 (단위 : 명)	총 점수 (단위 : 점)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 우리 학교에는 친구들과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13 (7.7%)	18 (10.7%)	38 (22.5%)	100 (59.2%)	169	394
2. 나는 우리학교의 놀이시설물(미끄럼틀, 철봉, 모래밭)을 이용해서 노는 것이 재미있다.	44 (26.0%)	49 (29.0%)	33 (19.5%)	43 (25.4%)	169	244
3. 우리 학교에서는 자연(나무, 물, 꽃 등)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10 (6.0%)	31 (18.6%)	53 (31.7%)	73 (43.7%)	167	356
4. 나는 학교에 올 때 지나다니는 길이 깨끗하다고 생각한다.	38 (22.6%)	57 (33.9%)	48 (28.6%)	25 (14.9%)	168	228
5. 나는 학교에 올 때 지나다니는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30 (17.9%)	48 (28.6%)	44 (26.2%)	46 (27.4%)	168	274
6. 나와 친구들은 방과 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편이다.	18 (10.8%)	22 (13.2%)	65 (38.9%)	62 (37.1%)	167	338

(*총 점수 중, 진하게 처리된 숫자는 평균 점수 이하의 항목을 나타냄)

‘학교환경’ 영역에 대한 질문 항목들의 평균 총 점수는 305.7점이며, ‘학교에 오고 가는 길이 깨끗하다고 생각한다(228점)’, ‘미끄럼틀, 철봉, 모래밭 등의 학교 놀이시설물을 이용해서 노는 것이 재미있다(244점)’, ‘학교에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274점)’ 순으로 평균 점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참여환경’ 영역에 대한 응답내용 분석

〈표 4-7〉 ‘사회적 참여환경’ 영역에 대한 어린이 응답내용 분석

사회적 참여환경 영역	응답 항목				응답자 (단위 : 명)	총 점수 (단위 : 점)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 나는 우리 동네의 변화를 위해 어른들이 하는 일에 같이 참여할 기회가 있다.	73 (43.2%)	65 (38.5%)	21 (12.4%)	10 (5.9%)	169	137
2. 나는 우리 동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주장할 기회가 있다.	100 (59.2%)	37 (21.9%)	22 (13.0%)	10 (5.9%)	169	111
3. 나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축제나 문화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24 (14.2%)	38 (22.5%)	39 (23.1%)	68 (40.2%)	169	320
4. 나는 매체(인터넷, TV, 라디오 등)를 통해 ‘아동권리’ 라는 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86 (50.9%)	38 (22.5%)	24 (14.2%)	21 (12.4%)	169	149
5. 나는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다.	102 (60.4%)	36 (21.3%)	22 (13.0%)	9 (5.3%)	169	107
6. 나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잘 전달받을 수 있다.	42 (25.0%)	54 (32.1%)	45 (26.8%)	27 (16.1%)	168	225
7. 우리 동네에는 우리 어린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잘 들어주는 전문 기관들이 있다.	89 (52.7%)	46 (27.2%)	22 (13.0%)	12 (7.1%)	169	126

(*총 점수 중, 진하게 처리된 숫자는 평균 점수 이하의 항목을 나타냄)

‘사회적 참여환경’ 영역에 대한 질문 항목들의 평균 총 점수는 167.9점이며, 앞선 ‘놀이 및 여가환경’ 과 ‘학교환경’ 의 평균 총 점수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축제·문화 행사 참여 기회가 있다(320점)’ 과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 전달을 잘 받을 수 있다(225점)’ 의 두 항목 외에 모든 항목이 평균 이하의 총 점수를 받았다.

3. 학부모 설문 결과 분석

1) 미아초등학교 일대 근린환경 평가

객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 분석은 앞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객관식 설문조사 분석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0점), 가끔 그렇다(1점), 대체로 그렇다(2점), 언제나 그렇다(3점)으로 정하고, 유니세프가 개발한 점수 환원 방식을 사용하였다.

(1) ‘놀이와 여가’ 영역 항목에 대한 응답내용 분석

〈표 4-8〉 ‘놀이와 여가’ 영역에 대한 학부모 응답내용 분석

놀이와 여가 영역	응답 항목				응답자 (단위 : 명)	총 점수 (단위 : 점)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 집과 가까운 거리의 놀이공간(놀이터, 공원)에는 어린이의 신체 및 연령에 맞는 다양한 시설물이 있다.	10 (23.3%)	9 (20.9%)	23 (53.3%)	1 (2.3%)	43	58
2. 집 근처 놀이터나 공원 외에 여러 장소(골목길, 공터, 산 등)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8 (18.6%)	14 (32.6%)	19 (44.2%)	2 (4.7%)	43	58
3. 자연을 접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15 (34.9%)	13 (30.2%)	13 (30.2%)	2 (4.7%)	43	45
4. 집 근처 공원 및 광장 등에서 자녀와 함께 이웃과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다.	5 (11.6%)	20 (46.5%)	15 (34.9%)	3 (7.0%)	43	59
5. 아동·청소년시설(아동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14 (32.6%)	15 (34.9%)	11 (25.6%)	3 (7.0%)	43	46

(*총 점수 중, 진하게 처리된 숫자는 평균 점수 이하의 항목을 나타냄)

‘놀이와 여가’ 영역에 대한 질문 항목들의 평균 총 점수는 53.2점이며, ‘아이들이 자연을 접하며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45점)’,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아동센터·주민센터 등의 아동·청소년시설이 있다(46점)’의 두 항목이 평균 점수 이하의 총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안전과 보호’ 영역에 대한 응답내용 분석

〈표 4-9〉 ‘안전과 보호’ 영역에 대한 학부모 응답내용 분석

안전과 보호 영역	응답 항목				응답자 (단위 : 명)	총 점수 (단위 : 점)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 건물과 놀이시설, 공원 등에는 어린이를 배려한 편의시설(화장실, 의자, 발판 등)이 잘 설치되어 있다.	20 (46.5%)	9 (20.9%)	9 (20.9%)	5 (11.6%)	43	42
2. 어린이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다.	20 (46.5%)	8 (18.6%)	11 (25.6%)	4 (9.3%)	43	42
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는 알림판, 펜스 등 교통안전 시설 등이 잘 설치되어 있다.	9 (20.9%)	12 (27.9%)	18 (41.9%)	4 (9.3%)	43	60
4. 밤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이 잘 정비되어 있다.	13 (30.2%)	14 (32.6%)	14 (32.6%)	2 (4.7%)	43	48
5.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케어해주는 공공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15 (24.6%)	20 (32.8%)	6 (9.8%)	20 (32.8%)	43	92

(*총 점수 중, 진하게 처리된 숫자는 평균 점수 이하의 항목을 나타냄)

‘안전과 보호’ 영역에 대한 질문 항목들의 평균 총 점수는 56.8점이며, ‘건물과 놀이시설, 공원 등에 어린이들을 배려한 편의시설들이 잘 설치되어 있다(42점)’ 항목과 ‘어린이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다(42점)’의 두 항목이 같은 점수로 가장 낮은 평균 이하의 총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간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이 잘 정비되어 있다(48점)’ 항목 역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3) ‘교육환경’ 영역에 대한 응답내용 분석

〈표 4-10〉 ‘교육환경’ 영역에 대한 학부모 응답내용 분석

학교환경 영역	응답 항목				응답자 (단위 : 명)	총 점수 (단위 : 점)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 지역 또는 학교 내에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 충분하며, 이용하기 편리하다.	7 (17.1%)	6 (14.6%)	20 (48.8%)	8 (19.5%)	41	70
2. 학교시설(운동장, 놀이공간, 휴게공간 등)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9 (21.4%)	18 (42.9%)	10 (23.8%)	5 (11.9%)	42	53
3. 학교 내에서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자연물(나무, 꽃, 식물 등)을 접할 수 있다.	4 (9.5%)	13 (31.0%)	20 (47.6%)	5 (11.9%)	42	68
4. 지역 내에 어린이의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 많다. (공공텃밭, 일시적으로 열리는 장터 등)	9 (21.4%)	19 (45.2%)	11 (26.2%)	3 (7.1%)	42	50
5.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학원가의 시설 및 환경은 쾌적하다.	10 (24.4%)	10 (24.4%)	17 (41.5%)	4 (9.8%)	41	56

(*총 점수 중, 진하게 처리된 숫자는 평균 점수 이하의 항목을 나타냄)

‘교육환경’ 영역에 대한 질문 항목들의 평균 총 점수는 59.4점이며, ‘공공텃밭, 일시적 장터 등 어린이의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 많다(50점)’, ‘운동장, 놀이·휴게공간 등의 학교 내 시설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53점)’,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학원가의 시설 및 환경은 쾌적하다(56점)’의 항목이 평균 점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기반 및 사회적 참여환경’ 영역에 대한 응답내용 분석

〈표 4-11〉 ‘정책기반 및 사회적 참여환경’ 영역에 대한 학부모 응답내용 분석

정책기반 및 사회적 참여환경 영역	응답 항목				응답자 (단위 : 명)	총 점수 (단위 : 점)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 구청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정책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7 (40.5%)	16 (38.1%)	7 (16.7%)	2 (4.8%)	42	36
2. 지역 내에 어린이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16 (38.1%)	17 (40.5%)	7 (16.7%)	2 (4.8%)	42	37
3. 우리 아이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와 정책 내용을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19 (45.2%)	18 (42.9%)	3 (7.1%)	2 (4.8%)	42	30
4. 어린이 참여위원회 등 어린이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가능한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32 (78.0%)	3 (7.3%)	4 (9.8%)	2 (4.9%)	41	17
5.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나 행사활동 등에 어린이가 참여 할 기회가 다양하다.	13 (31.0%)	20 (47.6%)	7 (16.7%)	2 (4.8%)	42	40
6.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어린이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준다.	13 (31.0%)	15 (35.7%)	10 (23.8%)	4 (9.5%)	42	47
7. 어린이들이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마련되어 있다.	28 (66.7%)	8 (19.0%)	4 (9.5%)	2 (4.8%)	42	22

(*총 점수 중, 진하게 처리된 숫자는 평균 점수 이하의 항목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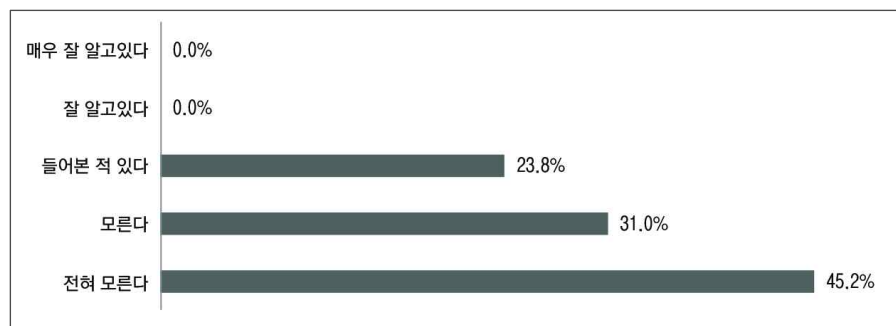
‘정책기반 및 사회적 참여환경’ 영역에 대한 질문 항목들의 평균 총 점수는 31.2점으로, 위의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교육환경 영역의 평균 총 점수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항목으로는 ‘어린이 참여위원회 등의 정책결정 참여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17점)’, ‘지역 내에 어린이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마련되어 있다(22점)’,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와 정책 내용들을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30점)’ 순으로 평균 총 점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총 점수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2)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및 어린이 관련 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

성북구의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및 미아초등학교 일대의 어린이 관련 사업에 대한 질문은 크게 성북구의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인식 정도, 서울시의 아마존 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 그리고 미아초등학교의 아마존 사업 시범지구 지정에 대한 인식 정도에 세 가지로 이루어졌으며, 각각 리퀴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질문사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인식 정도

질문)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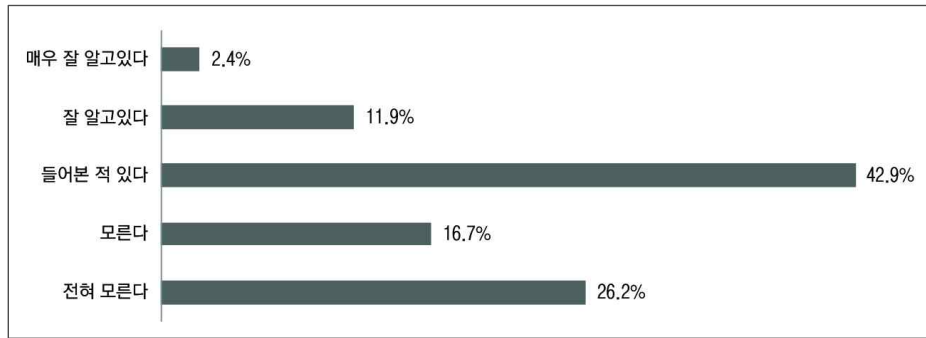


〈그림 4-2〉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정도

2012년 1월, 성북구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여러 사업들의 성과를 통해 유니세프로부터 어린이친화도시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사람과 전혀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76.2%로 절반을 훌쩍 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조례안이 제정된 지 일 년이 넘은 현 시점까지 조례안에 대한 존재여부와 내용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홍보 및 보도되지 않고 있음으로 판단된다.

(2) 서울시의 '아마존 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

질문)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 (ZONE) - 아마존’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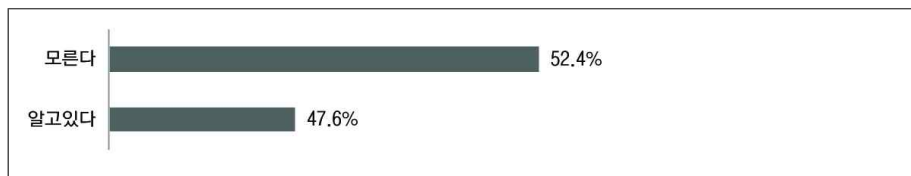


〈그림 4-3〉 서울시의 아마존 사업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정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에서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는 ‘아마존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혹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학부모는 전체의 57.2%로, 절반이 넘는 학부모가 아마존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42.8%의 학부모는 사업 자체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을 하였다.

(3) 미아초등학교 일대의 아마존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인식 정도

질문) 미아초등학교 일대가 ‘아마존 사업시범지구’로 지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림 4-4〉 미아초등학교 일대의 아마존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정도

앞서 절반에 가까운 학부모가 서울시 아마존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것 이상으로, 52.4%의 학부모가 시범사업지구로서 미아초등학교 일대가 선정된

것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서울시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사업의 담당부서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2일에 이에 관한 보도자료를 구청에 보도하였지만, 설문이 이루어진 시점이 2013년 10월 중순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신속하고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자녀의 참여 의지 정도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자녀의 참여 의지 정도에 대한 질문은 총 세 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리퀴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질문사항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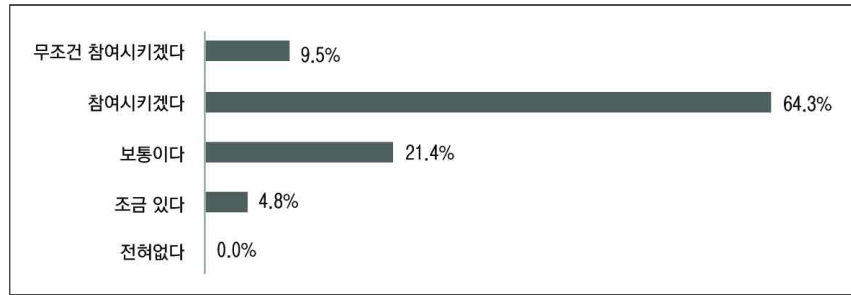
질문1)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4-5〉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시 어린이 의견 반영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 의견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 거의 모든 응답자인 97.6%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반면, 조금 중요하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학부모가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어린이의 의견 청취와 반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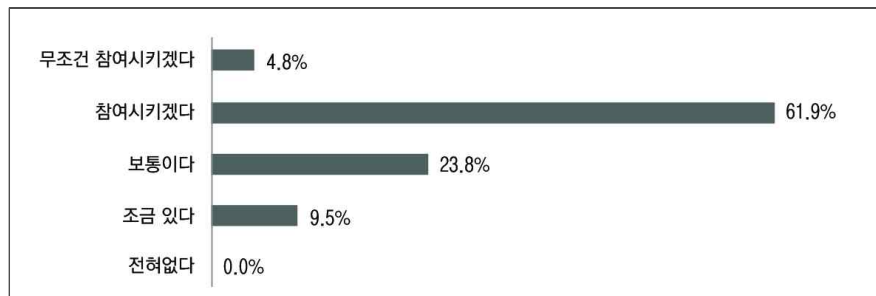
질문2)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어린이 대상의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건축교실, 디자인교육, 협력·소통능력 관련교육 등)이 운영된다면, 자녀를 참여시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림 4-6〉 자녀의 어린이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향 정도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지역사회에서 어린이 대상의 건축교실, 디자인 교육, 타인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관련교육 등의 어린이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자녀를 (무조건) 참여시킬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73.8%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 참여 의향이 조금 있다는 의견과 보통이라는 의견은 26.2%, 참여시킬 의향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0%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미루어 보아 많은 학부모가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심도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문)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참여기구나 회의 등에 자녀를 참여시켜 의견 표출의 기회를 마련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림 4-7〉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자녀의 의견표출 기회 제공 의향 정도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어린이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는 참여기구나 회의가 있다면 자녀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무조건) 참여시키겠다는 학부모가 66.7%로 나타났다. 조금 있거나 보통이라고 답한 학부모는 33.3%, 참여시킬 의향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0%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부분 학부모가 자녀의 참여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제2절 워크숍 결과분석

1. 1차 워크숍

1차 워크숍은 2013년 11월 27일 방과 후 약 한 시간 반 가량 실시되었으며, 워크숍의 주제는 ‘우리 동네의 놀이 공간’으로, 우선 아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평소에 주로 놀이를 하는 우리 동네 놀이공간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해보도록 유도하면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마인드맵(Mind Map)을 그려보도록 요청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주요 놀이 공간과 놀이 행위,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이나 느낌 등에 대한 인지마인드맵을 그려보고, 이후에는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하는 새로운 놀이공간에 대해 상상화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1) ‘내가 노는 우리 동네 놀이 공간’에 대해 마인드맵 그리기

마인드맵 그려보기 활동에 앞서, 참가 어린이들에게 마인드맵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기 방법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며 흥미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마인드맵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는 질문에 어린이들은 정규 수업 시간에 마인드맵에 대해 배운 바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대부분이 마인드맵 그리기의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림 4-8〉 마인드맵 예시 소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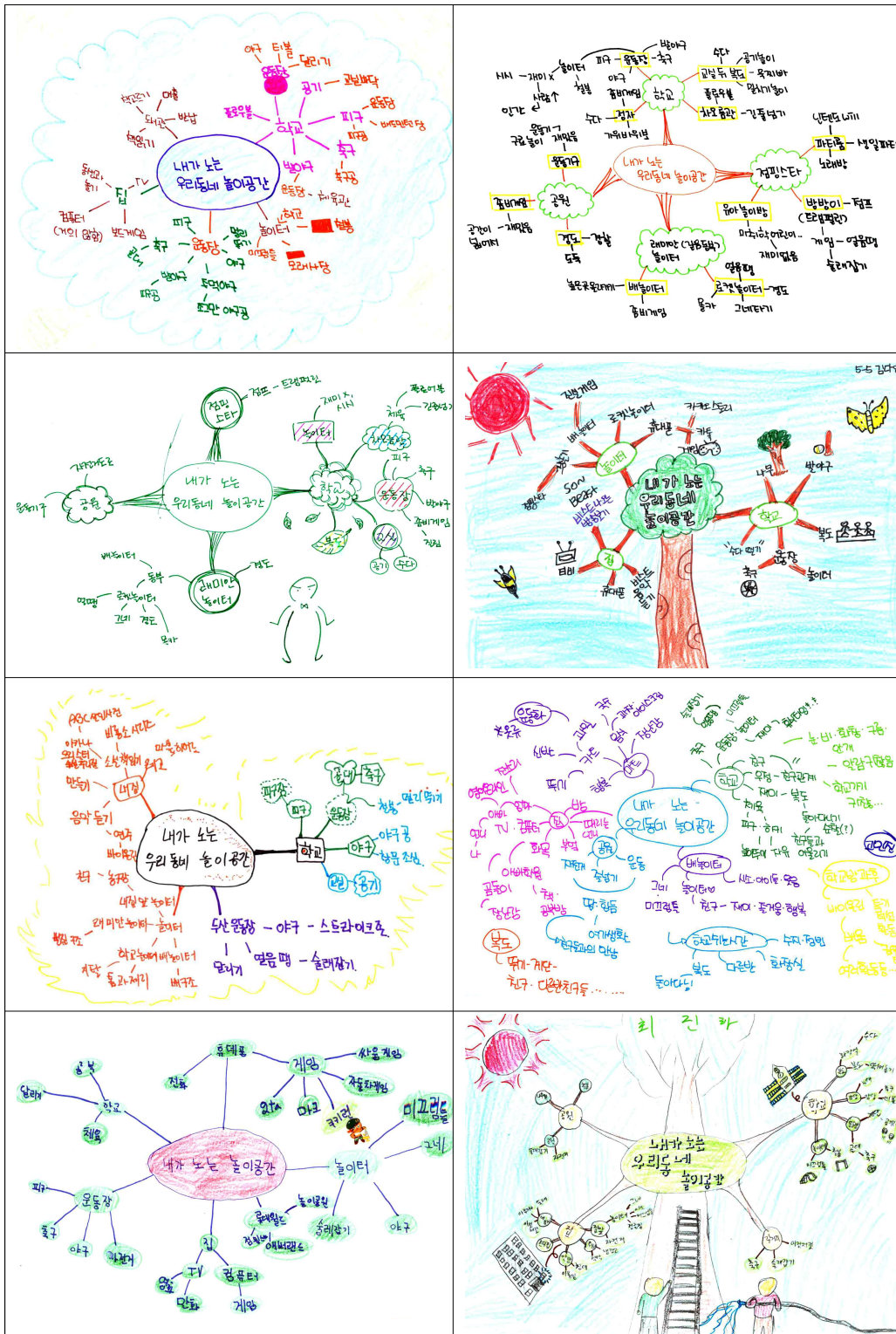
〈그림 4-9〉 마인드맵 그리기 방법 소개하기

조별로 A4용지와 색연필, 사인펜, 연필 등의 다양한 필기구를 나누어주고 마인드맵의 중심개념으로 ‘내가 노는 우리 동네 놀이 공간’을 기입하게 한 후, 자유롭게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자유롭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형성한 후 조별로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응답하고, 생각을 표현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어린이들과는 일대일로 소통하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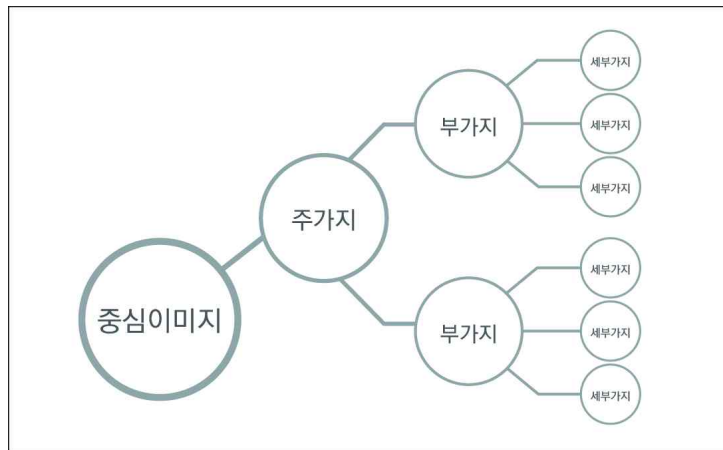


〈그림 4-10〉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 모습

아래의 <그림 4-11>은 24명 워크숍 참가자 어린이들이 자신이 노는 동네의 놀이 공간을 표현한 마인드맵 결과물의 일부이며, 마인드맵에는 어린이들이 주로 노는 공간과 그 공간에서 보거나 드는 생각들, 놀이 행태 등이 표현되었다. 구체적인 결과 분석은 남학생과 여학생 별로 표현된 단어들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그림 4-11〉 내가 노는 우리 동네 놀이 공간' 마인드맵 활동 결과 일부



〈그림 4-12〉 마인드맵의 기본 구성

〈그림 4-12〉는 마인드맵 기본 구성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으로, 중심이미지에서 주가지로, 주가지에서 부가지로, 부가지에서 세부가지로 뻗어나가는 방사형의 형태를 띤다. 이를 토대로 워크숍의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 결과물인 〈그림 4-11〉을 분석한 결과, ‘내가 노는 우리 동네 놀이 공간’이라는 중심이미지에서 뻗어나가는 주가지에는 주로 공간이 표시되어 있고, 부가지에는 보다 구체적인 공간이나 놀이 행위가, 세부가지에는 각 공간에서의 느낌이나 생각들이 표현되었다. 일례로, ‘내가 노는 우리 동네 놀이 공간’이라는 중심이미지를 시작으로, 주가지에는 ‘학교’라는 공간, 부가지에는 보다 세부적인 ‘학교 내 놀이터’, 세부가지에는 학교 내 놀이터에 대해 ‘재미없다’, ‘시시하다’는 생각 등이 뻗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학생 12명의 마인드맵의 주가지에는 총 18가지의 공간이 표현되었다.⁶⁾ 주가지에 언급 공간은 학교(11명), 놀이터(7명), 집(7명), 점핑스타(4명), 공원(2명), 래미안아파트(2명), 두산아파트운동장(2명), 친구집(2명), 휴대폰(2명), 길거리(1명), PC방(1명), 운동장(1명), 두산아파트(1명), 성북구민체육관(1명), 분식집(1명), 치킨집(1명), 성신여대(1), 농구장(1명)이다. 이러한 주가지, 부가지, 그리고 세부가지에 언급된 내용들을 <표 4-12>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 4-12> 남학생의 주요 놀이 공간 및 놀이행위

구분		구체적 공간	놀이행위	떠오르는 것, 느낌
학교	우리학교 (미아초)	교실, 운동장, 놀이터, 복도, 계단, 화장실, 강당(체육관)	야구, 축구, 피구, 달리기, 멀리뛰기, 티볼, 자전거타기, 주먹야구, 발야구, 공기놀이, 동전볼링, 슬라이딩 통과제리놀이, 철봉, 미끄럼틀, 뛰어놀이, 친구와 수다, 체육관 무대에서 놀기	-
	근처 학교	우이초등학교, 성신여대근처	농구장이용, 근처영화관가기	-
집	우리집	내방	소설책읽기, 레고놀이, 음악듣기, 악기연주, 컴퓨터게임, TV시청	-
	친구집	00네 집	TV보기, 컴퓨터게임	-
놀이터		집 앞 혹은 동네의 각 아파트에 위치한 놀이터 (뱃놀이터, 고래놀이터, 지붕놀이터, 호박놀이터, 우주놀이터)	미끄럼틀, 그네타기, 시소, 정글짐, 야구, 술래잡기, 기어올라가기	나무, 벌레, 단풍, 아이들, 웃음소리, 시끄러움
학교 외 운동장		두산아파트 운동장, 1차 아파트 운동장	야구, 얼음땡, 달리기, 술래잡기	-
공원		초록마당	철봉, 술래잡기, 자전거, 배드민턴	-
공공시설		성북구민체육관		-
길거리		-	축구, 술래잡기, 뛰어다니기	
기타유희시설		점핑스타, PC방, 치킨집, 분식집	트램펄린타기, 파티, 각종 컴퓨터 게임	-
비 물리적 공간		휴대폰	자동차게임, 싸움게임 등의 각종 게임	-

6) ‘롯데월드’를 언급한 학생도 있었으나, 이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넘어서는 타 지역에 위치하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학생 12명의 마인드맵의 주가지에는 총 12가지의 공간이 표현되었다. 주가지에 언급 공간은 학교(12명), 집(10명), 놀이터(9명), 공원(3명), 래미안놀이터(2명), 점핑스타(2명), 친구집(2명), 아파트(2명), 도서관(2명), 휴대폰(2명), 운동장(1명), 마트(1명)이다. 이러한 주가지, 부가지, 그리고 세부가지에 언급된 내용들을 <표 4-13>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 4-13> 여학생의 주요 놀이 공간 및 놀이행위

구분		구체적 공간	놀이행위	떠오르는 것, 느낌
학교	우리학교 (미아초)	복도, 강당(체육관), 파고라(정자), 운동장, 놀이터, 교실, 배드민턴장, 다론반, 계단, 화장실	공기놀이, 목찌빠, 밀치기놀이, 수다, 긴줄넘기, 플로어볼, 아침운동, 가위바위보, 수다, 좀비게임, 공놀이(발야구, 축구, 피구, 야구, 주먹야구, 티볼), 달리기, 좀비게임, 멀리뛰기, 술래잡기, 철봉, 모래사장, 미끄럼틀, 공기놀이, 수다	나무, 친구, 우정, 재미, 놀이터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재미가 없으며 시시함
집	우리집	내방, 안방, 거실, 동생방	휴대폰, 음악듣기, TV보기, 컴퓨터, 장난감놀이, 보드게임, 노래부르기, 숨바꼭질, 그림그리기	편안함, 화목함, 재미있음
	친구집	OO네 집	TV보기, 그림그리기	-
놀이터		집 앞 혹은 동네의 각 아파트에 위치한 놀이터 (배놀이터, 로켓놀이터, 그네놀이터, 울챙이놀이터, 빨간놀이터, 통나무놀이터, 고래놀이터, 코뿔소놀이터)	좀비게임, 높은곳 올라갈, 얼음땡, 그네, 수다떨기, 진실게임, 시소, 미끄럼틀, 뽕뽕이	가로등, 재미있음, 친구들, 꽃, 아이들, 웃음, 재미, 즐거움, 행복
공원		중앙공원	철좀비게임, 운동기구, 경찰과도둑놀이, 자전거, 줄넘기, 친구만나기,	공간이 넓어서 재미있음, 꽃, 운동기구 재미있음, 자전거도로가 있어 좋음
길거리		-	-	아스팔트, 딱딱함
공공시설		도서관	책 고르면서 구경하기, 책읽기	-
기타유료시설		점핑스타, 마트	트램펄린타기, 파티, 게임, 얼음땡, 술래잡기, 닌텐도 Wii, 노래	-
비 물리적 공간		휴대폰	메시지, 채팅, 영상보기, 메신저, 각종 게임	-
기타		부모님 일터(학원)	장난감놀이, 공부방에서 놀기	-

남학생과 여학생 총 24명의 놀이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언급한 놀이 공간은 학교(23명), 집(17명), 놀이터(16명)로 나타났다. 학교에서는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행위가 나타났으며, 집에서는 주로 취미생활, 휴식 등을 취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어린이들은 여가행위 역시 놀이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이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어린이가 각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의 이름과 존재하는 시설물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주요 놀이 공간에 대한 큰 차이는 없었지만, 놀이 행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 활동 및 컴퓨터 게임 등의 보다 활동적인 놀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정적인 놀이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공간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들에 대한 표현 정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하는 새로운 놀이 공간(상상화 그리기)

우리 동네의 놀이 공간과 놀이 행위에 대해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활동 이후에는,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하는 새로운 놀이 공간에 대한 상상화 그리기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자의 원활한 그림 해석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글로 쓰도록 요구하였다.



〈그림 4-13〉 상상화 그리기 활동 모습

어린이들이 그린 상상화에는 신체를 움직여 놀 수 있는 액티브한 공간 및 시설 요소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어린이들 각자가 자유롭게 그린 그림의 요소들을 유형화하고 분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요소들은 크게 레저스포츠(Leisure Sports)요소, 스포츠공간요소, 자연적 공간요소, 비일상적 놀이공간요소, 축제요소, 놀이기구요소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들의 레저스포츠 요소로 나누기 위해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레저스포츠의 정의, 종류, 분류체계 등에 대한 개념이 요구되었다.

레저스포츠라는 용어는 Leisure와 Sports의 합성어로, ‘여가시간을 활용하며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 할 수 있다.⁷⁾ 1990년대 중반 이후, 핵가족화,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 등으로 인해 개인중심의 여가문화에서 가족중심의 레저문화로 발전되어 갔으며, 단순히 시간 때우기나 실내에서의 취미활동, TV시청보다는 야외에서 즐길 수 있

7) 레저스포츠는 레포츠(Leports)라는 줄임말로 간혹 사용되기도 한다.

는 자연중심의 레저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⁸⁾

오늘날에는 레저생활이 세분화, 다양화, 고급화 되고 레저산업이 급속한 발달을 이루면서⁹⁾ 어린아이들이 활동하고 체험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의 종류 역시 다양해졌다.

이러한 레저스포츠는 종목별 분류기준이나 법령, 혹은 제도권 내에서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로 자연환경에 따라 분류하는 게 일반적이며, 자연환경 별 종목의 분류는 <표 4-14>와 같다.¹⁰⁾

<표 4-14>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한 레저스포츠의 분류

	육상형(32종)	수상형(16종목)	항공형(10종목)
종 목	스포츠클라이밍, 암벽등반 (빙벽포함), 서바이벌게임, 클레이사격, 자동차경주, 번지점프, 점라인, 오토바이경주, 사이클링, 자전거, 등산, 인라인스케이트, 오리엔트에어링, 사냥, 카드, 번지점프, 트레킹, 캠핑, ATV, 스트리트보드, 석궁, 휠맨, 모터보드, 스케이트보드, 마운틴보드, 파크골프, 스포츠카이트, 스노스쿠터 등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수상오토바이, 바나나보트, 윈드서핑, 스킨스쿠버, 낚시, 래프팅, 카누/카약, 워터슬레이드, 서핑, 절벽다이빙, 뗏목탐험, 수중스쿠터, 파워보트, 바다래프팅 등	패러글라이딩, 모험항공,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초경량항공기, 모터패러글라이딩, 열기구, 글라이딩, 자작항공기, 카이트서핑, 소아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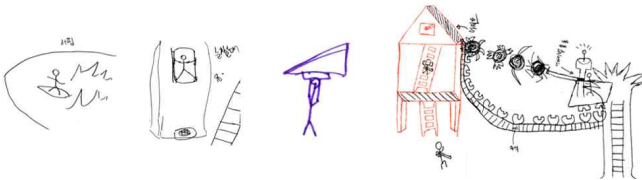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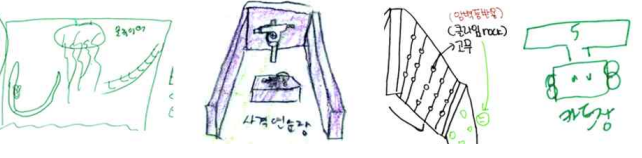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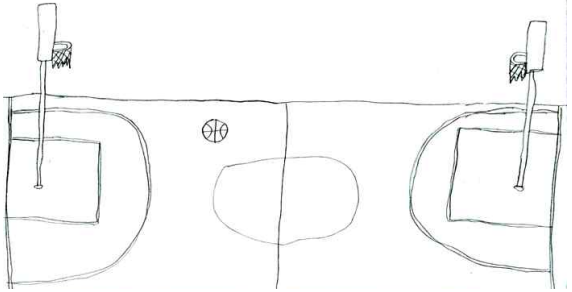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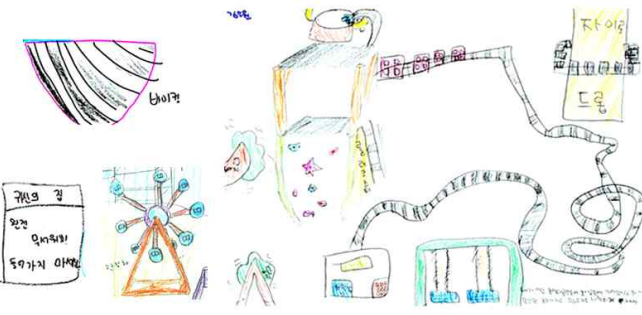
※ 출처 : 윤태훈(2012), 앞에 든 논문, p.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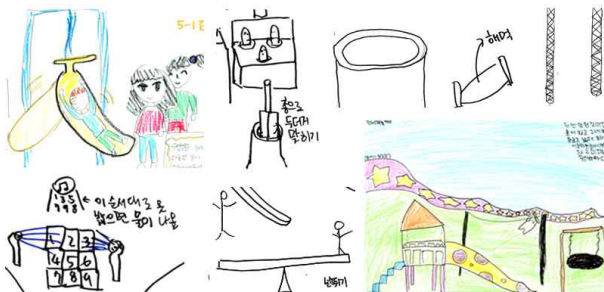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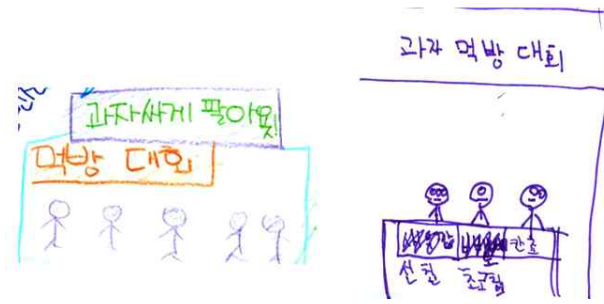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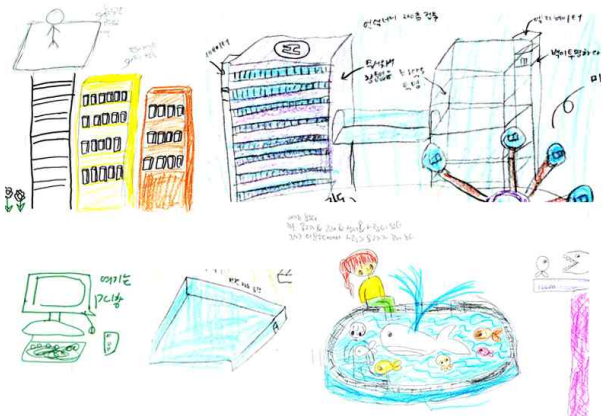
8) 성문경(2006),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체육과학연구원, 10면., 윤태훈(2012),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실태와 이용자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스포츠와 법』, 15(1), p.104에서 재인용

9) 윤태훈(2012), 앞에 든 논문, p.104.

10) 윤태훈(2012), 앞에 든 논문, p.105.

〈표 4-15〉 상상화에 나타난 희망공간 및 희망시설 · 프로그램 요소와 예시그림

구분	시설 및 프로그램	그림 예시
레저 스포츠	눈썰매(1), 서핑(1), 패러글라이딩(1), 열기구(1), 번지점프(1), 짚라인(1), 서바이벌장(2), 사격연습장(2), 수영장(2), 물놀이터(1), 카트장(1), 암벽등반(1) - 총 출현 횟수 : 15	 <p>서핑, 눈썰매, 패러글라이딩, 서바이벌장</p>
		 <p>열기구, 번지점프, 짚라인, 수영장</p>
		 <p>물놀이터, 사격연습장, 암벽등반, 카트장</p>
스포츠 공간	농구골대가 있는 넓은 농구장(1) - 총 출현 횟수 : 1	 <p>농구골대가 있는 넓은 농구장</p>
비일상적 놀이공간 (놀이공 원시설)	귀신의 집(2), 롤러코스터(2), 바이킹(1), 관람차(1), 자이로드롭(1) - 총 출현 횟수 : 7	 <p>바이킹, 귀신의집, 관람차, 롤러코스터, 자이로드롭</p>

놀이기구	<p>움직이는 놀이기구(1), 엄청 긴 미끄럼틀(1), 실패하기 쉬운 미끄럼틀(1), 날뛰기(1), 총으로 두더지 맞히기(1), 물이 나오는 놀이기구(1), 둥글고 넓은 그네(2), 트럼폴린(1), 밧줄타기(1), 움직이는 놀이기구(2), 구름사다리(1), 그네(3), 해먹(1)</p> <p>- 총 출현 횟수 : 17</p>	 <p>움직이는 놀이기구, 트럼폴린, 밧줄타기</p>
자연적 요소	<p>미로공간(3), 아주 큰 숲(2), 인조풀밭이 아닌 진짜 풀밭(1), 꽃밭(2), 나무(2), 툽밥바닥(1)</p> <p>- 총 출현 횟수 : 11</p>	 <p>미로공간, 숲, 나무, 꽃밭, 잔디밭</p>
축제	<p>과자 먹방 대회(3)</p> <p>- 총 출현 횟수 : 3</p>	 <p>과자 먹방 대회</p>
기타	<p>완전 자유공간(1), 투명한 건물(1), PC방(2), 편하게 볼 수 있는 책(1), 전망대(1), 물고기가 있는 분수대(1)</p> <p>- 총 출현 횟수 : 7</p>	 <p>전망대, 책, 투명한 건물, PC방, 완전 자유로운 공간, 분수대</p>

어린이들의 상상화에 그려진 우리 동네의 희망하는 놀이 공간 및 프로그램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들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놀이기구를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출현 횟수 17회) 워크숍 중에 어린이들은 놀이터에 있는 기존 놀이시설들이 재미는 있으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며 미취학아동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놀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놀이기구 다음으로 어린이들은 레저스포츠 요소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총 출현 횟수 15회) 이는 가장 많은 출현 횟수를 보인 새로운 놀이기구에 대한 희망사항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추정되며, 어린이들은 기존의 틀에 박힌 놀이 공간과는 활발한 신체활동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놀이 공간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자연적 공간 요소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타났다.(총 출현 횟수 11회) 이러한 자연적 공간 요소로 아주 큰 숲, 인조풀밭이 아닌 진짜 풀밭, 꽃밭, 툇밥으로 된 바닥, 미로 등을 희망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그린 그림에 놀이가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글을 덧붙여 표현한 어린이도 있었다.

다음으로는 바이킹, 롤러코스터 등의 놀이공원의 놀이기구요소들(총 출현 횟수 7회)과 완전 자유공간, 투명한 건물, 전망대 등의 기타 요소(총 출현 횟수 7회)에 대한 희망사항이 같은 출현 횟수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과자먹방대회¹¹⁾(총 출현 횟수 3회)로 나타난 축제 요소가 가장 적은 출현 횟수를 나타냈다.

11) ‘먹방’이란, ‘먹는 방송’의 줄임말로, 최근 들어 TV방송,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신조어이다. 본 논문의 용어사용에 있어, 현장감 및 사실감 보존을 위해 워크숍 참여 어린이들이 기술한 용어를 최대한 수정하지 않고 옮겼음을 밝힌다.

2. 2차 워크숍

2차 워크숍은 2013년 11월 29일 방과 후 약 한 시간 반 가량 실시되었으며, 워크숍의 주제는 ‘내가 자주 지나다니는 우리 동네 길’ 이었다. 활동을 위해 조별로 미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1km가 나타나 있는 지도(A0크기, 1189×841mm) 1장, 색연필, 사인펜, 스티커, 포스트잇(2가지색)을 배부하였다.

1) 활동 진행 프로세스 및 결과

(1) 우리 동네 지도 익히기

활동에 앞서 조별로 배부된 우리 동네 지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위해 우리학교를 찾아 정문, 후문의 위치 찾기, 우리 집 찾기, 아이들 대부분이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는 각 아파트 단지의 위치와 각 놀이터 위치 찾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림 4-14〉 우리 동네 지도 익히기

(2) 등굣길과 내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 표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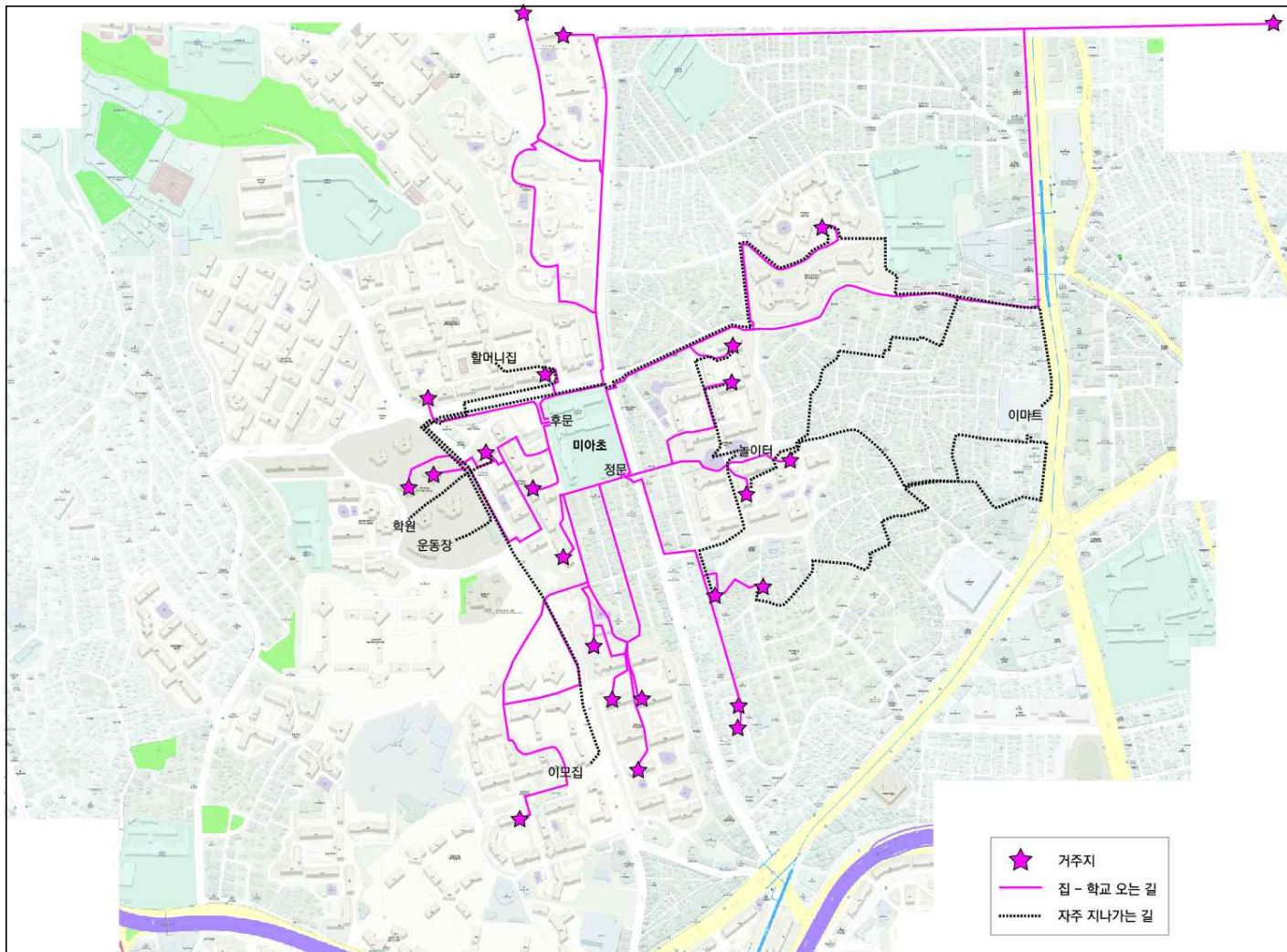
지도에 대해 익힌 후, 각자의 집을 찾아 스티커를 붙이고 집에서 학교 오는 등굣길과 자주 다니는 길을 찾아 사인펜을 이용하여 지도에 표시 해보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4-15〉 등굣길과 내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 표시하기

〈그림 4-15〉는 각자 등굣길 및 자주 지나다니는 길을 표시해보는 활동을 하는 모습이며, 〈그림 4-16〉은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 24명의 거주지와 등굣길, 평소 자주 다니는 길을 나타낸다. 전체 인원 중 4명을 제외한 20명의 어린이는 모두 미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약 700m 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자주 다니는 길의 형태는 집과 학교, 마트, 운동장, 놀이터들과 연결되는 골목길이었음을 이루었다.

12) 4명의 어린이는 성북구가 아닌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림 4-16〉에서 가장 상위에 표시된 별모양 네 개가 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중 2명은 지도에 본인의 집이 나타나있지 않은 관계로, 지도에 나타나 있는 곳에 한하여 등굣길을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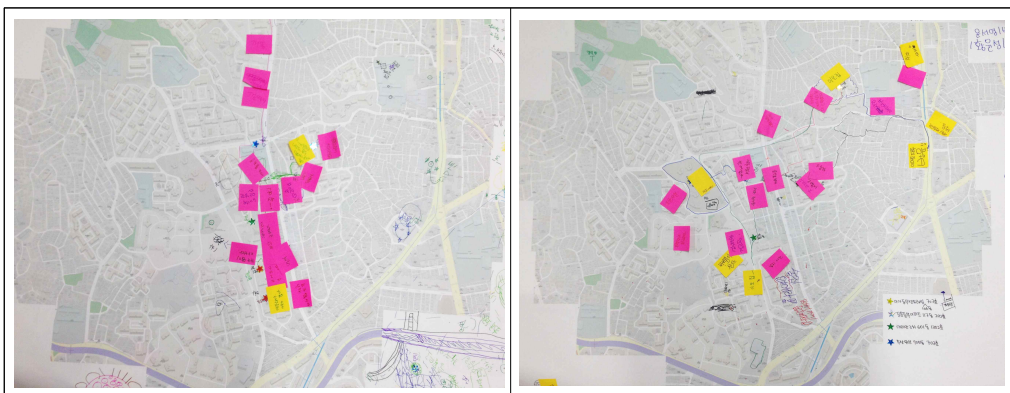
〈그림 4-16〉
어린이들의 등굣길 및
자주 지나다니는 길

(3) 내가 지나다니는 길에 대한 긍정적(선호)요소와 부정적(비선호)요소 맵핑하기

등굣길과 자주 지나다니는 길을 표시한 후, 표시한 길을 다니면서 보거나 느끼는 긍정적(선호)요소와 부정적(비선호)요소들을 생각해보고, 이를 각각 노란색, 자주색 포스트잇에 기입하여 지도 위에 맵핑(Mapping)하도록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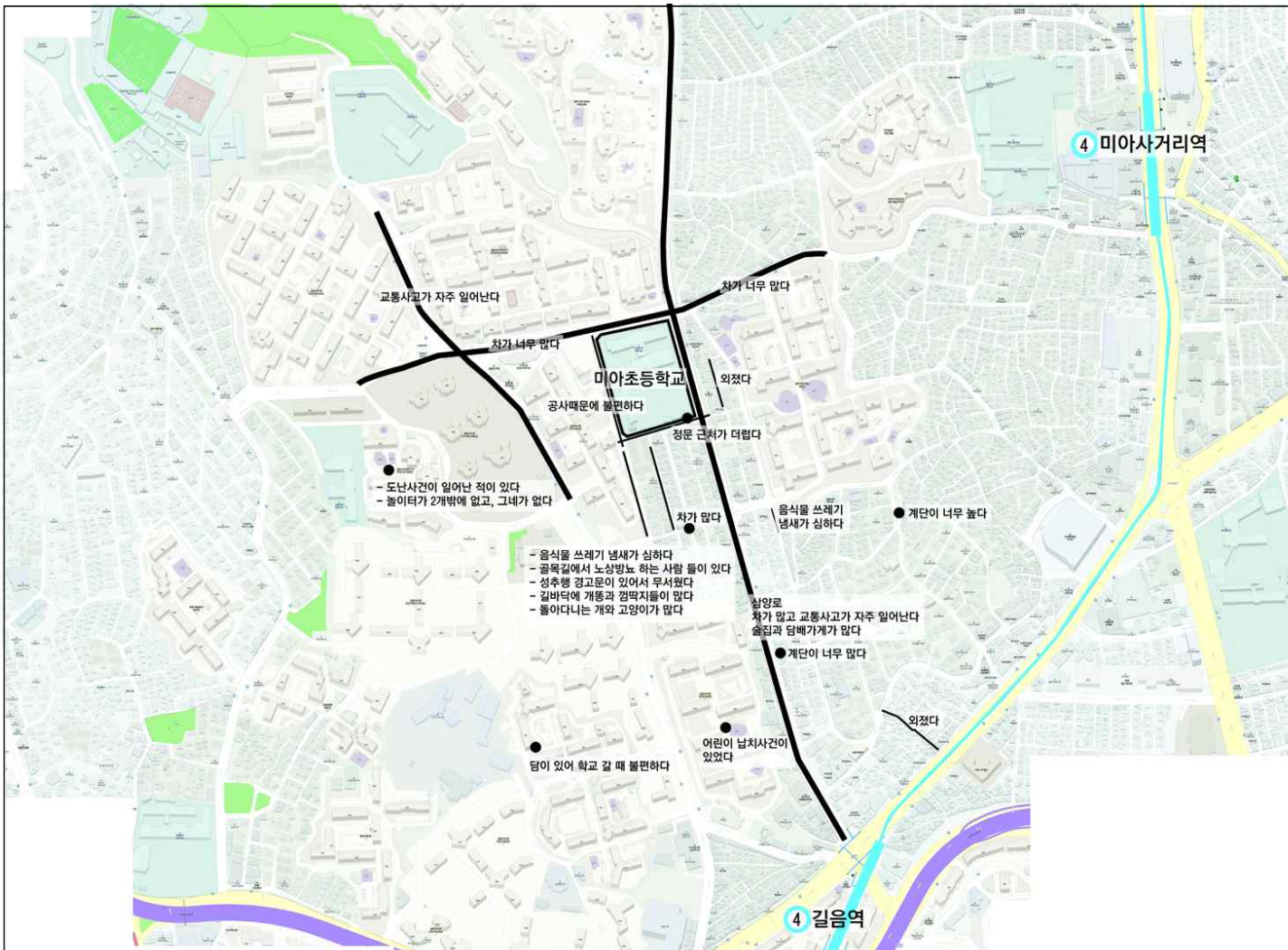


〈그림 4-17〉 선호요소, 비선호요소 맵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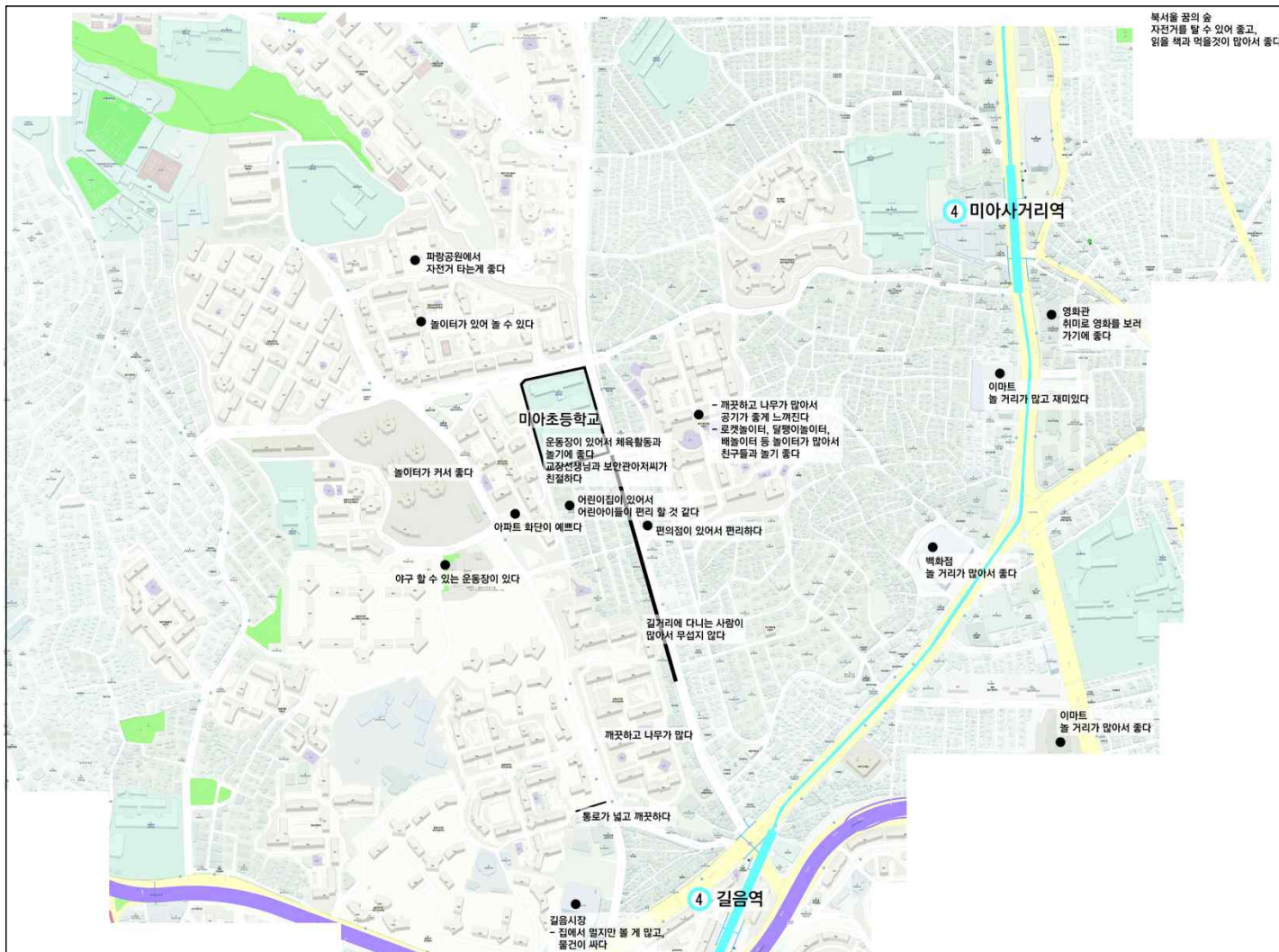


〈그림 4-18〉 선호요소, 비선호요소 맵핑활동 결과의 일부

〈그림 4-18〉은 맵핑활동 결과의 일부, 그리고 〈그림 4-19〉와 〈그림 4-20〉은 맵핑 활동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각각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거나 느낀 부정적(비선호)요소와 긍정적(선호)요소를 나타낸다.



〈그림 4-19〉
등곳길 및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 대한
부정적(비선호)요소



〈그림 4-20〉
등굣길 및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 대한
긍정적(선호)요소

<그림 4-19>는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부정적(비선호)요소들을 나타낸 것이다.

초등학생의 주요 생활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집에서 학교에 오는 길에 대해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등굣길에서 어린이들이 느끼는 부정적 요소들은 크게 ‘위생’과 ‘안전’으로 구분되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생’에 관하여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고 냄새가 많이 난다, 노상방뇨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 비둘기가 많아 너무 더럽다’ 등의 표현들이 나타났다. ‘안전’에 관하여서는 ‘유기견이나 고양이가 많이 돌아다닌다, 비둘기가 많아 너무 무섭다, 성추행경고문을 본 적이 있어서 무섭다, 도난 및 어린이 납치사건이 있었다, 횡단보도 건너기가 무섭다’ 등의 내용을 표현하였다.

<그림 4-20>은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긍정적(선호)요소들을 나타낸 것이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동네의 이곳저곳을 걸어 다니면서 보고, 신체적으로 경험하며 느낀 것들을 토대로 표현함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어린이들 대다수가 꼽은 긍정적 요소는, 자신들이 신체를 움직이는 놀이 행위를 함에 있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놀이요소나 공간의 충족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시설물들이 도입된 놀이터, 야구 등을 할 수 있는 넓은 운동장,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 등을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화생활과 볼거리, 놀이, 먹거리가 충족되는 영화관, 백화점, 마트, 시장, 편의점 등을 긍정적(선호)요소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환경적·안전적 측면에서는 나무, 화단, 깨끗하고 사람이 많아 무섭지 않은 길 등을 긍정적(선호)요소로 인지하고 있었다.

(4) 부정적(비선호)요소에 대해 떠오르는 것들을 종이에 자유롭게 표현해보기

맵핑 활동 이후에는 참여 학생 각자에게 종이를 배부한 후 부정적(비선호)요소들에 관해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그려보거나 글로 적어보도록 유도하였다.

활동 결과, 어린이들은 길거리의 부정적 요소들에 대해 어른들이 인지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많은 어린이들이 주요 생활공간인 학교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술집뿐만 아니라 사람 없는 외진 곳,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 등의 위험요소들을 언급하였으며, 이들 부정적(비선호)요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그림과 글로 표현했다.

실제로 학교와 맞닿아 있는 삼양로를 따라 스무 개가 넘는 소규모 술집 등의 유해업소가 위치해있으며, 이런 경관은 동네를 오며가는 어린이들의 눈에 포착되어 부정적으로 인지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워크숍 참여 소감 써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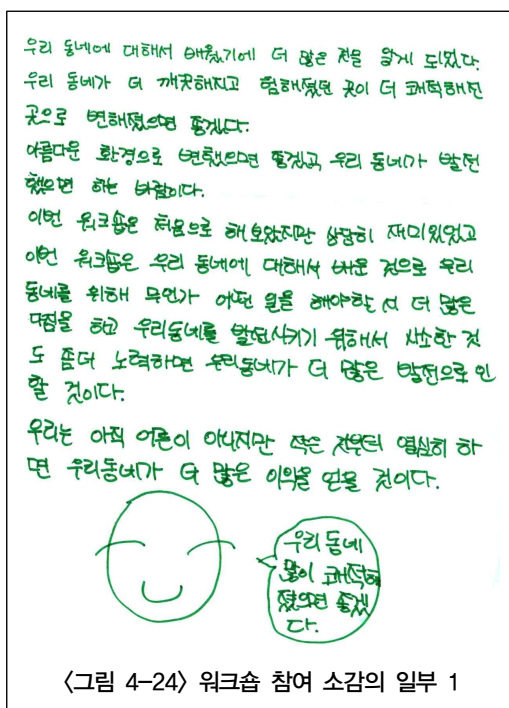


〈그림 4-23〉 워크숍 참여 소감 쓰기 활동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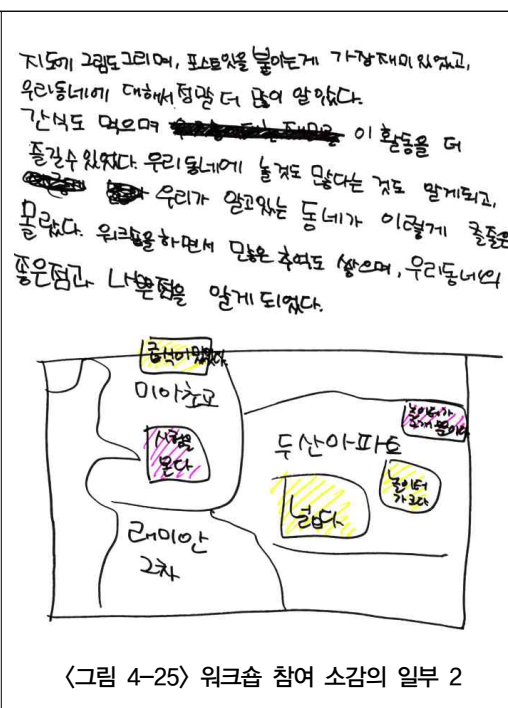
모든 활동이 끝난 후에는 이틀간 워크숍에 참여하여 활동 하면서 느낀 점과 소감 등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하는 시간을 가지며 워크숍을 마무리 하였다.

대다수의 어린이들이 워크숍 활동에 매우 흥미를 갖고 참여하였으며, 우리 동네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아이들과 워크숍을 진행 하면서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어린이의 참여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기회가 있다면 이러한 워크숍 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24〉와 〈그림 4-25〉는 어린이들이 실제로 적은 워크숍 소감문의 일부 발췌한 것이다.



〈그림 4-24〉 워크숍 참여 소감의 일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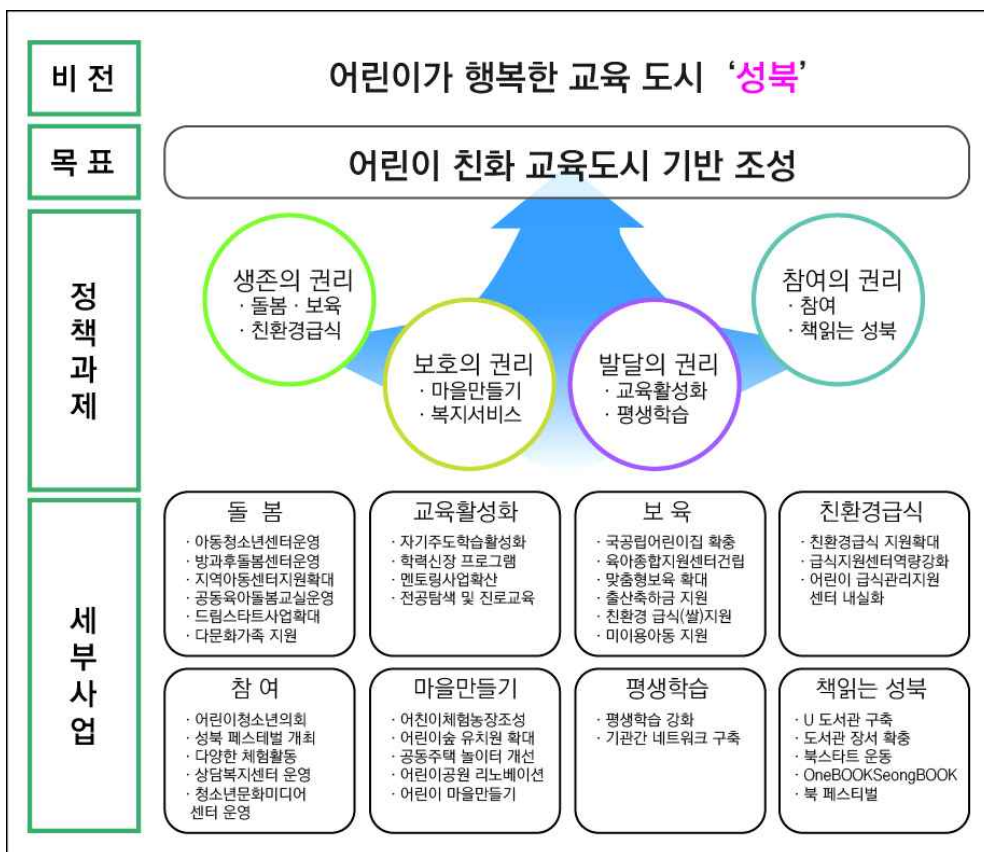


〈그림 4-25〉 워크숍 참여 소감의 일부 2

제3절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방안 모색

1.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및 추진 현황

전국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어린이 친화도시로 선정된 성북구는, 어린이로서 누려야 하는 권리를 보장하며 어린이가 보다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향후 각 부처별로 다양한 어린이 관련 정책과제와 사업들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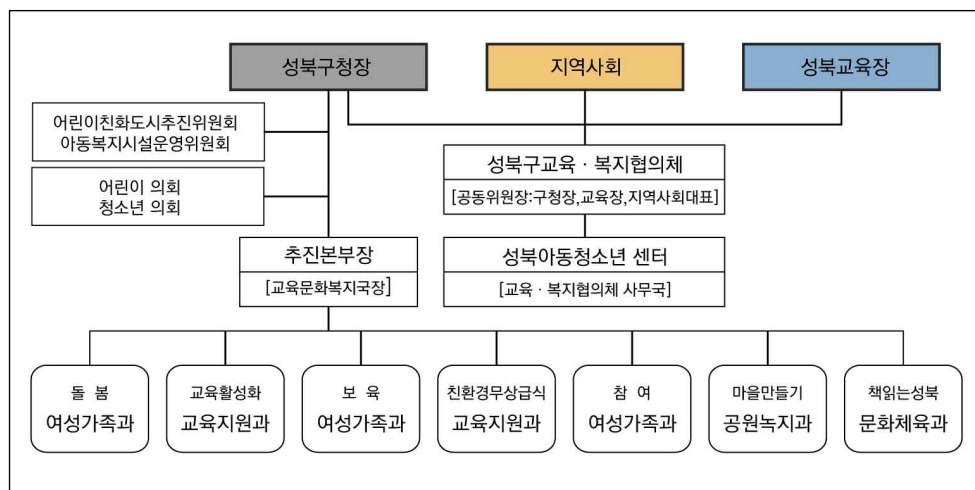


〈그림 4-26〉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과제 및 추진체계

※ 출처 : 성북구청 (2013),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성북 보고서』, p.24

〈그림 4-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성북구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과제 및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틀과 세부 사업들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어린이 참여’와 ‘도시(근린)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고려했을 때, 성북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업 중 어린이의 주체적인 참여 ‘참여’와 ‘마을만들기’ 카테고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추진 사업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의 참여가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형식과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4-27〉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사업 및 민관 거버넌스 추진체계

※ 출처 : 성북구청 (2013),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성북 보고서』, p.24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업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가 모두 하나가 되어 어린이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중·단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함께 작동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린이의 생각들을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수용하는 조직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성북구에는 어린이 의회와 청소년 의회 2개를 구성하고 이를 연 4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지만,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러한 활동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학부모와 어린이의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기구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 본 연구의 과정 및 결과를 통한 모색방안 제안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설문조사와 워크숍의 방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와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등을 밝히면서 보다 현실성 있는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사례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인 서울시 길음동 미아초등학교 일대의 어린이 친화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UNICEF에서 제공하는 자가 평가데이터 툴(tool)과, 이를 참고하여 아동학 분야에서 구성한 유사 평가 항목들을 검토·보완하여 연구자만의 설문 항목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가 어린이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어린이 근린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를 지니기에, UNICEF와 아동학 연구논문의 평가항목들 중, 본 연구에 관련이 없는 질문항목은 제외하고 주로 사회적 참여와 공간에 관련된 질문을 어린이와 학부모 대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지역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의 실행 전에는 각 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 전문가들과 도시의 환경을 다루는 도시·조경전문가들의 협업이 요구되는 바이다. 하지만, 현재 성북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 추진체계에는 전문가집단의 참여가 드러나 있지 않기에 이를 보완하여 멘토링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의 모집을 이루어야 한다.

설문조사와는 조금 다르게 어린이 워크숍은 다소 실험적인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결과를 미리 예상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미성숙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할 시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조정팀이 결성되어 워크숍 대상, 장소선정, 스케줄 작성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단독으로 워크숍에 관한 모든 것을 기획하고 구상하였기에 다소 누락된 과정이 존재하거나 비전문적인 방법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숍 참여 어린이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근린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이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프로그램을 제

공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여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어린이들에게 지역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환경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 도시의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자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 친화도시, 혹은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역량을 키워 대의적인 합의를 이루도록 하는 교육적, 법적, 규정적 변화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이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에서는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어린이 친화도시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보다 어린이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린환경’을 어린이 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어린이의 권리, 어린이 친화도시의 개념과 세계의 동향을 비롯하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필수 요구되는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의 어린이 참여 등에 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문헌 고찰의 단계를 거친 후, 국내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어린이 친화도시로 인정되어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의 움직임이 비교적 활발한 서울시 성북구의 길음동 미아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다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설문조사와 어린이와 함께 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지역 내 어린이 친화도시의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의 현재 근린환경의 어린이 친화성 수준을 진단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척도들을 참고하여 설문 문항을 설계한 후, 연구의 대상인 미아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와 어린이 모두 지역 내 어린이의 사회적 참여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놀이와 여가, 안전과 보호, 학교·교육 환경 등에 비해 사회적 참여환경의 평균 점수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둘째, 성북구의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및 구 차원의 어린이 관련 사업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상당수로 나타났다. 이는 구 차원에서

셋째,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에 있어 자녀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 어린이 참여기구 등이 있다면 자녀의 참여를 적극 고려

해보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워크숍은 미아초등학교 5학년 학생 24명(남여 각각 12명씩)과 진행하였으며, ‘우리동네(근린)’에 대한 주제로 총 두 차례 실시하였다. 이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네의 놀이공간과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개선할 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워크숍의 활동방법은 어린이의 눈높이와 수준을 고려한 마인드맵 그리기, 상상화 그리기, 동네 지도에 맵핑하기, 소감 적어보기 등이다.

워크숍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들의 가장 많은 실·내외 놀이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학교이며, 뒤를 이어 집과 놀이터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린이들은 새롭고 신선한 놀이기구요소가 동네에 구비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레저스포츠요소, 자연적 공간요소, 비일상적 놀이공간요소, 스포츠 공간요소 순으로 놀이 공간 및 요소들을 희망하고 있었다.

셋째, 어린이들이 동네에서 주로 다니는 길은 통학로였다. 어린이들은 학교 주변의 안전과 위생 상태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강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워크숍을 통해 동네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유사한 워크숍 활동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정책과제와 세부사업들을 계획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보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 실시한 바와 같이, 현재 성북구 각 지역에 대한 어린이 친화 수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주민 대상의 인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정교한 설문 항목을 구성하여 인식 조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더 나아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보다 자유롭고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출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린이의회가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의 어린이들 모두가 어린이의 권리,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환경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기회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어린이들과 그들의 주된 생활공간이 되는 근린환경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어린이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의 가능성을 모색해보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적 흐름에 따라, 미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이러한 어린이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 친화적 도시공간을 계획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하나의 사례이자 매뉴얼이 되길 바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들을 지닌다.

첫째,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친화성 수준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의 문항이 다소 일반적인 점이다.

둘째, 워크숍 참여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 한정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어린이들의 생각을 담지 못했다는 점이다.

셋째, 어린이들의 참여의 과정이 다소 단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 사회의 환경에 대한 탐색이 실내 활동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어린이 친화성 정도를 진단하기 위한 설문지를 구성하여 특정 지역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어린이들과 실험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어린이 친화적 도시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자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워크숍의 결과는 향후 성북구에서 실시될 어린이공

원 리노베이션 사업의 기초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 보여준 워크숍의 과정과 활동 내용들은 향후 어린이들과의 워크숍을 계획하고 구상하고자 하는 지자체나 연구자에게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는 구체적 사업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단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단행본

- 김경민(2011). 『도시개발, 길을 잃다』 서울: 시공사.
- 김규정(1999). 『행정학원론』 파주: 법문사.
- 문혁준 외 5인(2011). 『아동학개론』, 서울: 창지사.
- 황혜정 외 4인(2003). 『아동과 환경』, 서울: 학지사.

학위논문

- 김수경(2013). 협력적 거버넌스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호(2002). 학교조경활동 참여에 따른 환경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희(1998). 마인드 맵 활동과 아동의 학업성취, 학습태도, 학습습관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2005). 아동참여 관점에서 본 초등학생의 박물관 경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응규(1994). 주민참여방법을 적요한 주거환경개선계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민우(1990). 서울시 재개발사업에 있어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란(2001). 공동주택 거주자의 근린의식과 근린시설 이용도 및 요구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위래(2012). 주민참여형 소공원에서의 장소애착이 공원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흥기(2011). 교육환경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낙훈(2011). 『마인드맵을 활용한 학습지도가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윤선(2008). 참여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초등학교 옥외공간 계획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2013). 어린이 공간환경설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승애(2013).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학술논문

- 김가영, 김보우(2010). “창의력 개발을 위한 경험 중심적 어린이 공간 연구,” 『기초조형연구』, 11(5): 15-24.
- 권동현, 이영호(2007). “아파트 거주자의 근린환경 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 9(1): 89-96.
- 김주연, 유혜미, 황용섭(2010). “어린이 발달 특성에 의한 놀이 공간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1(2): 75-85.
- 문은미(2000). “유년기 회상기록분석을 통한 아동의 놀이장소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6(5): 27-32.
- 박진희, 이상호(2012). “근린환경 내 어린이의 방과 후 이동패턴 및 신체활동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8(7): 115-123.
- 오병록, 김기호(2007). “기성시가지내 뉴타운의 생활권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8(4): 37-54.
- 오혜경(1994). “주택의 아동실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0(7): 91-100.
- 윤태훈(2012).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실태와 이용자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스포츠와 법』, 15(1): 101-121.
- 이상운, 박경옥(2010). “택지개발지구 특성에 따른 거주자의 생활권 내 근린환경만족도 및 개선우선지수,”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3): 77-86.

- 이수연(2013).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 149-168.
- 정경숙, 이연숙(2009). “주거커뮤니티내 아동친화적 근린환경 디자인지침 개발,” 『대한건축학회지』, 25(12): 93-101.
- 조연경, 김정민, 우신구(2009).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5(4): 205-216.
- 허윤선, 양병이, 임승빈(2012). “어린이의 우리동네 공간인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계획학회지』, 47(1): 243-255.
- 홍승애, 이재연(2011). “아동 친화적인 도시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아동학회지』, 32(2): 53-70.
- _____(2013). “아동·청소년친화도시 평가지표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34(4): 83-104.

정기간행물 및 연구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 『도시개발 시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 국토교통부(2013). 『2013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 김영지 외 7인(2008). 『국제기준 대비 한국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원기, 전명기, 이주연(2003).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서울시(2010) 『서울시 뉴타운사업 7년간의 기록』.
- 성북구청(2013). 『어린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성북 보고서』.
- 황옥경, 김영지(2011). 『청소년 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 김영배 성북구청장 블로그 (<http://blog.naver.com/clubyb>)
- 김경희, “유니세프의 어린이와 함께 만드는 도시”, 『2013 세계인권도시포

럼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회의.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를 위한 광주에서의 모색』 2013. 5. 17일자.

- 박종일, “성북구, 전국 최초 어린이 친화도시 비전 선포,” 『아시아경제』 (2012년 4월 30일자).
- 박종일, “김영배 성북구청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 노하우 전수,” 『아시아경제』 (2014년 1월 24일자).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보도자료, 2013. 7. 2(화) 석간용.
- 서울시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성북구 가정복지과 출처.
- 서울시청 홈페이지.
- 성북구청 홈페이지.
-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 유니세프 CFC와 유네스코 GUIC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64주년 기념 인권교육 토론회 자료.

< 국외문헌 >

단행본

- Chawla, Louise.(2002). *Growing Up in an Urbanising World*, Paris: UNESCO Publishing, London : Earthscan Publications Ltd.
- Driskell, David.(2002). *Creating Better Cities with Children and Youth - A Manual for Participation*, Paris : UNESCO Publishing, London : Earthscan Publications Ltd.
- Frank, Caplan and Caplan Theresa. *The Power of Play*, 김경희 (역)(1989). 『놀이와 아동』, 서울: 교육과학사.
- Hunter, Jane. et al.(1998). *School Landscapes - A Participative Approach to Design*, Massachusetts: Hampshire County Council.
- Malone, K. “United Nations: A Key Player in a Global Movement for Child Friendly Cities,” in *Creating Child-Friendly Cities: Reinstating Kids in The City*. Brendan Gleeson and Neil Sipe(eds.)(2006). London: Routledge.

- Moore, G. R.(1986). *Childhood's Domain*. London: Croom Helm.
- Sennett, Richard. *Together: The Rituals, Pleasures and Politics of Cooperation*, 김병화 (역)(2013). 『투게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서울: 현암사.
- UN(2007). *An Urbanizing World*.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 UNICEF(1996). *Toward Child Friendly Cities*. New York: United Nations Publication.
- Urie, Bronfenbrenner and Morris A. Pamela.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s,” i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6th ed. W. Damon(Series Ed.) and R. M. Lerner(Vol. Ed.)(2006). New Jersey: J. Wiley.

학술논문

- Bridgman, Rae.(2004). “Child-friendly cities: canadian perspectives,”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14(2): pp.178-200.
- Francesca, Romana Alparone and Rissotto Antonella.(2001). “Children’s citizenship and participation models: participation in planning urban spaces and children’s council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1(6): 421-434.
- Horelli Liisa.(1998). “Creating child-friendly environments case studies on children’s participation in three European countries,” *Childhood*, 5(2): 225-239.
- Horelli, Liisa and Mirkka, Kaaja.(2002). “Opportunities and constraints of ‘internet-assisted urban planning’ with young peopl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2(1-2): 191-200.
- Lasker, R.D. and E.S. Weiss.(2003). “Broadening participation in community problem solving: a multidisciplinary model to support collaborative practice and research,” *Journal of Urban Health*, 80(1): 14-47.

- Malone, K.(2009). “Designs for a child friendly city,” *Journal of Curriculum Leadership*, 7(2): 45-50.
- Riggio, E.(2002). “Child friendly cities,” *Environment & Urbanization*, 14(2): 45-58.
- Sutton, Sharon Egretta and Kemp P. Susan.(2002). “Children as partners in neighborhood placemaking: lessons from intergenerational design charrett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2(1): 171-189.

정기간행물 및 연구보고서

- Hart, A. Rogers.(1992). *Children's Participation in Planning and Design. From Tokenism to Citizenship*.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기타

- CHILD FRIENDLY CITIES promoted by UNICEF National Committees and Country Offices - Fact sheet, September 2009 자료
(<http://www.unicef.de/blob/23350/110a3c40ae4874fd9cc452653821ff58/fact-sheet-child-friendly-cities--data.pdf>)

[부록 1] 어린이 대상 설문지

미아초등학교학생들의 동네(근린)환경에 대한 인식조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는 동네(근린)에 대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환경들이 여러분과 얼마나 사이좋게 잘 어우러지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답하는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본 후,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해주세요.

감사 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 효 진

()학년 ()반 (성별 : 남·여)

“우리 동네(근린)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1. ‘우리 동네’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곳들은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써보세요.

(예시 : 아파트, 주택, 우리학교, 주변학교, 운동장, 놀이터, 공원, 문방구, 학원, 병원, 가게, 교회, 횡단보도 등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세요.)

2. 여러분이 평소에 동네에서 자주 가는 곳들은 어디인가요?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예시 : 햇살문구, 도로시키친, 음사랑피아노학원, OO아파트 놀이터, OOPC방 등)

-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

“우리 동네(근린)에 대해 평가해봅시다.”

1. 여러분 동네의 놀이·여가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그라미에 써진 숫자 하나에 V 표시를 해 주세요. (예시 : 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 놀이와 여가 환경	1-1. 우리 동네에는 친구들과 놀이, 게임, 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우리 동네 놀이터, 공원 등에서 노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1-4. 우리 동네에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배려한 놀이터나 공원이 있다.	①	②	③	④
	1-5. 우리 동네에는 자연(산, 나무, 꽃 등)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집 주변의 놀이터나 공원 말고 집 근처의 여러 곳(골목길, 공터, 산, 언덕, 하천 등)을 놀이 장소로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1-7. 집과 가까운 곳에 이웃들과 만나 함께 어울리며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있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아동센터,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취미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

2.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와 사회참여 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그라미에 써진 숫자 하나에 V 표시를 해 주세요. (예시 : ①)

평가 영역	평가 항목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2. 학교 환경	2-1. 우리 학교에는 친구들과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우리학교의 놀이시설물(미끄럼틀, 철봉, 모 래밭)을 이용해서 노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3. 우리 학교에서는 자연(나무, 물, 꽃 등)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학교에 올 때 지나다니는 길이 깨끗하다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학교에 올 때 지나다니는 길이 안전하다 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6. 나와 친구들은 방과 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 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 사회적 참여 환경	3-1. 나는 우리 동네의 변화를 위해 어른들이 하는 일 에 같이 참여할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3-2. 나는 우리 동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주장할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3-3. 나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축제나 문화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3-4. 나는 매체(인터넷, TV, 라디오 등)를 통해 '아동 권리' 라는 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5. 나는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6. 나는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각 종 정보들을 잘 전달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3-7. 우리 동네에는 우리 어린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잘 들어주는 전문 기관들이 있다.	①	②	③	④

-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 합니다^^ -

[부록 2] 학부모 대상 설문지

미아초등학교 일대 지역의 어린이 친화성에 대한 인식조사
(학부모 대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전공 석사과정에 있는 이효진 입니다.

본 설문은 미아초등학교 일대 근린환경이 현재 얼마나 어린이 친화적인지 진단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의 결과는 '지역의 어린이 친화적 도시화(化)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논문'의 귀중한 자료로 사용 될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 무기명 처리되며,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의 소요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며, 빠짐없이 답해주시면 성북구가 점차 어린이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 전공

이 효 진 드림

Tel. 010-9064-4629

E-mail. sara8809@snu.ac.kr

[응답자 일반 사항]

1.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2. 자녀는 몇 학년에 재학 중입니까? () 학년

3. 자녀의 하루 생활패턴은 주로 어떠한지 간략히 기술해주십시오.

평일 :

주말 :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뒷장에 계속 됩니다 -

[지역의 어린이 친화성 평가]

1. 어린이 놀이·여가 환경 및 안전과 보호영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V 표시를 해 주세요. (예시 : ①)

(모든 평가 항목의 시작은 '우리 지역은' 또는 '우리 지역 내에는' 으로 시작합니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1. 놀이와 여가 환경	1-1. 집과 가까운 거리의 놀이공간(놀이터, 공원)에는 어린이의 신체 및 연령에 맞는 다양한 시설물이 있다.	①	②	③	④
	1-2. 집 근처 놀이터나 공원 외에 여러 장소(골목길, 공터, 산 등)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1-3. 자연을 접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①	②	③	④
	1-4. 집 근처 공원 및 광장 등에서 자녀와 함께 이웃과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5. 아동·청소년시설(아동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안전과 보호	2-1. 건물과 놀이시설, 공원 등에는 어린이를 배려한 편의시설(화장실, 의자, 발판 등)이 잘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2-2. 어린이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2-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는 알림판, 펜스 등 교통안전 시설 등이 잘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2-4. 밤에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도록 야간 조명이 잘 정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2-5.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케어해주는 공공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 뒷장에 계속 됩니다 -

2. 어린이 교육 환경 및 정책 및 사회적 참여환경 영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V 표시를 해 주세요. (예시 : ☒)

평가 영역	평가 항목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언제나 그렇다
3. 교육 환경	3-1. 지역 또는 학교 내에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 충분하며,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3-2. 학교시설(운동장, 놀이공간, 휴게공간 등)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①	②	③	④
	3-3. 학교 내에서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자연물 (나무, 꽃, 식물 등)을 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4. 지역 내에 어린이의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 많다. (공공텃밭, 일시적으로 열리는 장터 등)	①	②	③	④
	3-5.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학원가의 시설 및 환경은 쾌적하다.	①	②	③	④
4. 정책 기반 및 사회적 참여 환경	4-1. 구청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정책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4-2. 지역 내에 어린이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①	②	③	④
	4-3. 우리 아이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정보와 정책 내용을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4. 어린이 참여위원회 등 어린이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가능한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4-5.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나 행사활동 등에 어린이가 참여 할 기회가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4-6.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린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어린이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4-7. 어린이들이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 뒷장에 계속 됩니다 -

[성북구의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관련 질문]

해당 사항에 V 표시를 해 주세요. (예시 : ①)

1. 성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들어본 적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	-------	------------	-----------	--------------

2.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ZONE) - 아마존'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른다	③ 들어본 적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⑤ 매우 잘 알고 있다
----------	-------	------------	-----------	--------------

3. 미아초등학교 일대가 '아마존 사업' 시범지구로 지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모른다	② 알고 있다.
-------	----------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서 어린이 참여에 관한 질문]

4.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조금 중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	-----------	--------	--------	------------

5. 어린이 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어린이 대상의 참여형 교육프로그램(건축교실, 디자인 교육, 협력·소통능력 관련교육 등)이 운영된다면, 자녀를 참여시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참여 시키겠다	⑤ 무조건 참여시키겠다.
---------	---------	--------	-----------	---------------

6.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참여기구나 회의 등에 자녀를 참여시켜 의견 표출의 기회를 마련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조금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참여 시키겠다	⑤ 무조건 참여시키겠다.
---------	---------	--------	-----------	---------------

7.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관련 기타 의견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점 등)

--

-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의견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린이 친화적 근린환경 조성에 관한 워크숍 계획(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 전공

이 효 진

010. 9064. 4629

sara8809@snu.ac.kr

1. 워크숍의 배경

: UNICEF와 UNESCO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세계 곳곳의 지역사회를 아동과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켜나가기 위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며,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성북구도 그간의 다양한 노력으로 얼마 전(2013년 12월 20일) 전국 최초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기존에 제정한 어린이 친화도시 조례안(2012년에 제정)을 바탕으로 향후 아동 대상의 다양한 사업들이 구(區)차원에서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워크숍의 목적

: 본 워크숍은 어린이의 참여를 통해 미아초등학교 일대를 어린이 친화적인 근린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해 실시됩니다. 성인에 비해 활동영역이 좁은 어린이들에게 근린환경은 그들 생활의 전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어린이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근린 내 어린이들의 활동양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생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구사항(needs)과 희망사항 등을 반영한 근린환경조성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에게 중요한 우리 동네¹⁾의 구성요소인 1)놀이공간, 2)학교 옥외공간(학교놀이시설, 운동장 등의 외부공간), 3)보행공간에 대해 워크숍을 거쳐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를 추출하여 긍정적 요소는 강화하고, 부정적 요소는 개선하는 방안을 어린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근린환경’이라는 용어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 비교적 어려운 전문용어이므로 이를 대신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동네’로 표현.

3. 워크숍 일정

: 2013년 11월 마지막 주 평일(방과 후) **2회** (이틀간 진행하며, 각 회별 1시간~1시간 반 소요)

4. 워크숍 대상

: 길음동에 거주하는 미아초등학교 5학년²⁾학생

- 희망인원 : 16~20명
- 남녀성비 : 1대 1
- 4~5명의 어린이들을 한 조로 하여 4개의 소그룹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 참여 어린이들이 모두 같은 반이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한 조가 되는 어린이들은 서로 의견을 교류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같은 반 어린이들로 구성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5학년 1반 남·여학생 16~20명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
5학년 1반 남·여학생 4~5명 + 5학년 3반 남·여학생 4~5명 + 5학년 5반 남·여학생 4~5명 + 5학년 6반 남·여학생 4~5명 / 총 16~20명)
- 두 번의 워크숍은 연속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2차 워크숍은 1차 워크숍에 참여했던 동일한 어린이들과 진행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방과 후 이틀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가급적 방과 후에 학원 등의 과외활동에서 자유로운 어린이를 희망합니다.

5. 준비물 (연구자가 준비)

미아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반경 1km정도가 나타나 학생들의 집이 표현되는 지도(A0사이즈 : 1189 X 841)
컴퓨터 (학교용품 사용 허가 요청)
연구자, 연구 보조자 및 학생용 명찰
스티커, 연필, 색연필, 사인펜 등의 필기구
그림그리기, 생각 표현하기 등의 활동을 위한 A4용지
카메라, 간식거리
연구 보조자 1~2인

2) 10~12살 어린이는 활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지역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하며, 그로 인한 넓은 범위의 근린환경에서의 활동을 통해 가정, 가족 그 밖의 세계, 사회, 공간적 질서를 완전히 이해하므로 본 워크숍의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의 어린이로 한정함.

6. 구체적 워크숍 계획서

1) 1차 워크숍 계획

워크숍 주제	우리가 바뀌어가는 우리 동네 환경	대 상	미아초등학교 5학년 학생 16~20명
차 시	1/2	일 시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1:40 ~
연구자	이 효 진	장 소	미아초등학교 교실
활동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에서 평소에 하는 놀이 활동과 놀이공간에 대해 생각해보고 의견을 표출 할 수 있다. · 우리 동네의 놀이공간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도출하고, 희망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다. · 우리 학교의 놀이공간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도출하고, 희망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다. 		

단계	워크숍 내용	워크숍 활동		활동 형태	시간 (분)
		연구자	참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라포³⁾형성 · 워크숍의 목적설 명 · 흥미유발 · 활동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소개 및 명찰 배부 - 우리 동네의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 어린이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시키기 - 활동목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찰에 이름 쓰고 부착하기 - 우리 동네 환경을 바꾸는 데 있어 본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지하기 - 활동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경 청한다. 	전체 활동	15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과정 설명 및 본 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의 활동 과정 설명하기 - 그룹별 조장 선출 유도하기 - 우리 동네 놀이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요소들을 자유로이 써보도록 하기(그룹별) - 학교 내에서 주로 무엇을 하며 노는지, 학교 놀이터에서 무엇을 하며 놀고 싶은지에 대해 자유로이 써보도록 하기(그룹별) -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놀이터 사례 보여주기 - 각자 희망하는 놀이공간의 모습에 대해 그려보도록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의 활동 과정 이해하기 - 그룹별 조장 선출하기 - 우리 동네 놀이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요소들을 자유로이 써보도록 하기(그룹별로) - 학교 내에서 주로 무엇을 하며 노는지, 또 학교 놀이터에서 무엇을 하며 놀고 싶은지에 대해 자유로이 써보기(그룹별로) - 각자 희망하는 놀이공간의 모습 그려보기 	그룹 활동 (마인드 맵 그리기, 브레인 스토밍, 토론) 개별 활동 (그림 그리기)	50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마무리 · 2차 워크숍 예고 · 인사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유도하기 - 2차 워크숍 내용(우리 동네의 보행환경에 대하여)언급하기 - 평소 걸어 다니는 길에서 느끼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오도록 당부하기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마무리하기 - 평소 걸어 다니는 길에서 느끼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올 것을 다짐하기 - 인사 후 퇴장 	전체 활동	15

(교수학습지도안의 양식을 따라 작성함)

3) 라포(Rapport) : 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전제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

2) 2차 워크숍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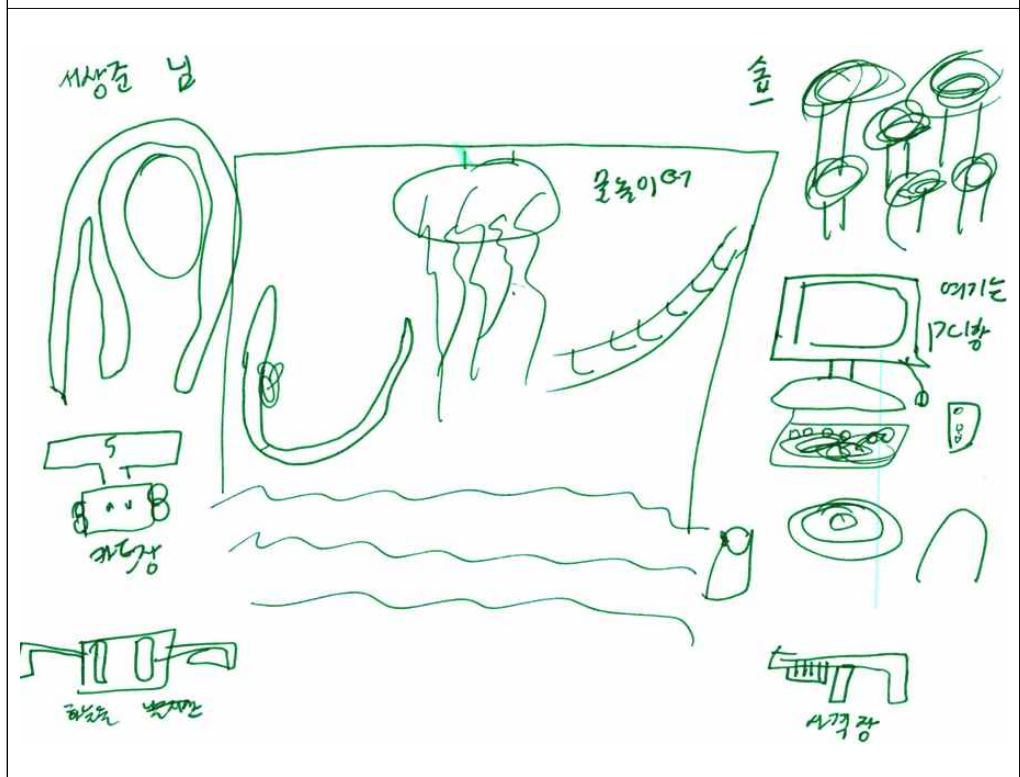
워크숍 주제	우리가 바뀔나가는 우리 동네 환경	대 상	미아초등학교 5학년 학생 16~20명
차 시	2/2	일 시	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14:00 ~
연구자	이 효 진	장 소	미아초등학교 교실
활동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 걸어 다니는 길에 대해 생각해보고,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 학교 주변 길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들에 대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 자주 걸어 다니는 길에 대해 희망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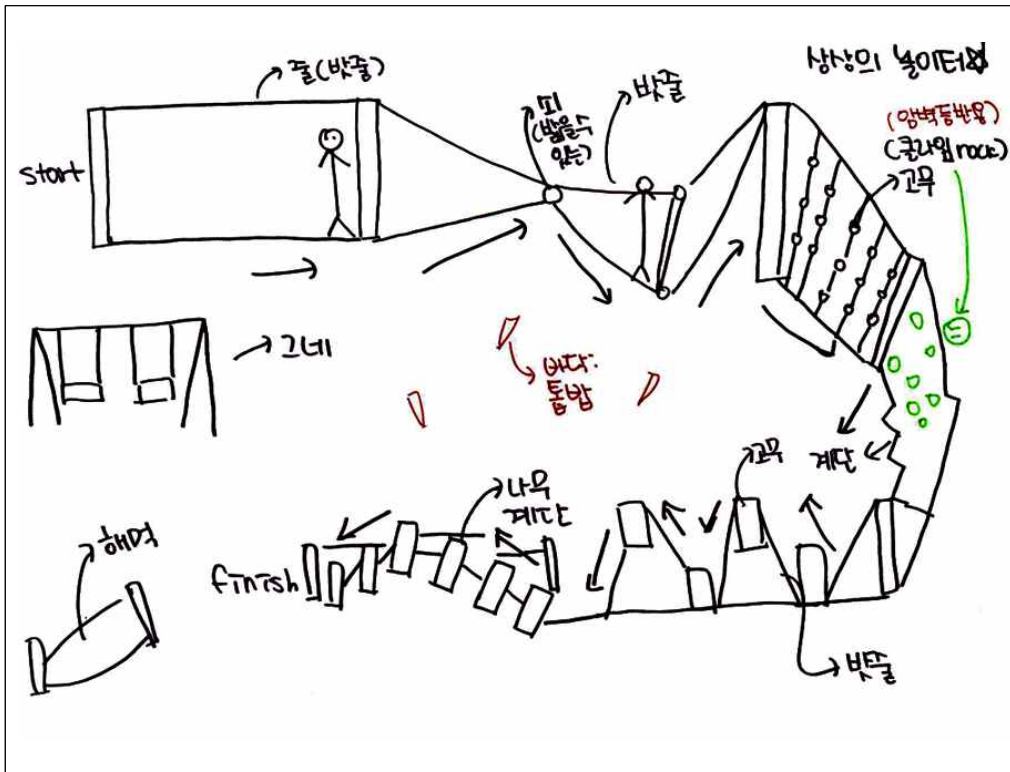
단계	워크숍 내용	워크숍 활동		활동 형태	시간 (분)
		연구자	참여 학생		
도입	· 인사 · 활동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담소 - 명찰 배부 - 활동목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및 담소 - 명찰 부착 - 활동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경청한다. 	전체 활동	10
전개	· 활동 과정 설명 및 본 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지나다니는 길'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나 생각들을 손을 들고 자유로이 말해보도록 하기 - 학교를 오고가며 지나다니는 길에 대해 떠오르는 부정적·긍정적 이미지와 요소들에 대해 써보도록 하기(그룹별) - 지도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 학교 주변 길 중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을 지도에 표시하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 써보도록 하기 - 학교에 오고가는 길에 대해 희망하는 모습 그려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 지나다니는 길'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나 생각들을 손을 들고 자유로이 말하기 - 학교를 오고가며 지나다니는 길에 대해 떠오르는 부정적·긍정적 이미지와 요소들에 대해 써보기(그룹별) - 지도 보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 학교 주변 길 중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을 지도에 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 써보기(그룹별) - 학교에 오고가는 길에 대해 희망하는 모습 그려보기 	개별 발표 그룹 활동 (브레인 스토밍, 토론, 지도에 표시하기) 개별 활동 (그림 그리기)	50
정리	· 활동 마무리 · 워크숍 평가 및 참가 소감 나누기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을 마무리하고,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 워크숍 평가 관련 설문지 나누어주기 - 워크숍 참가 소감 자유로이 발표시키기 -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마무리하기 - 워크숍 참가 소감 발표하기 - 워크숍 평가 관련 설문지 작성하기 - 워크숍 참가 소감 자유로이 발표하기 - 인사 후 퇴장 	개별 활동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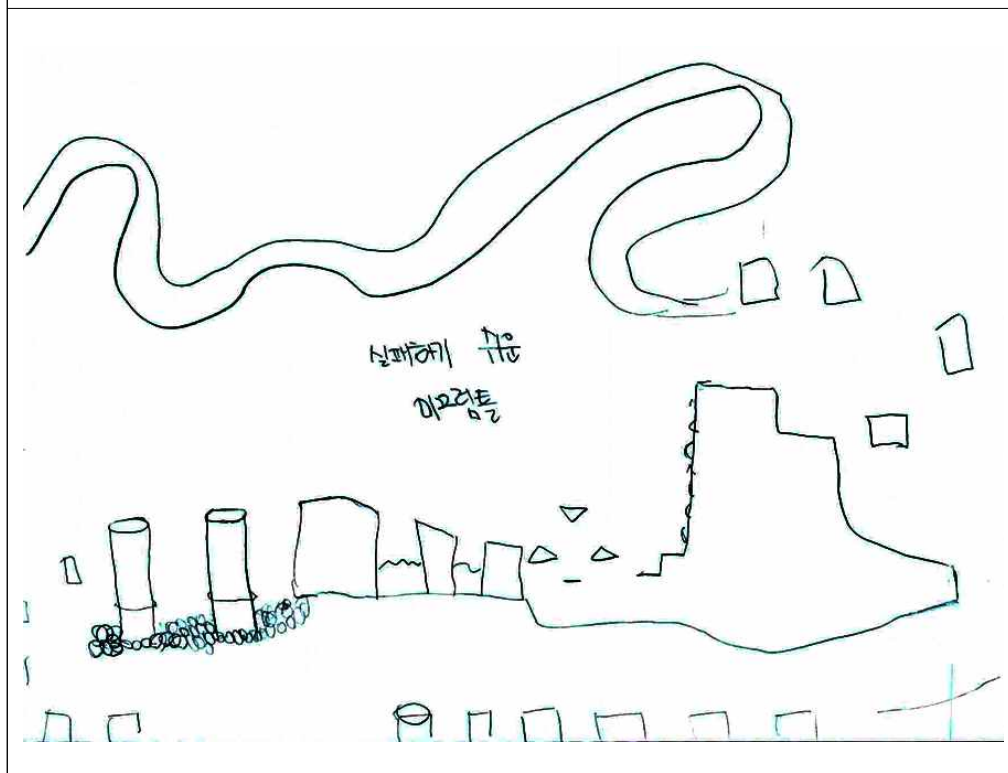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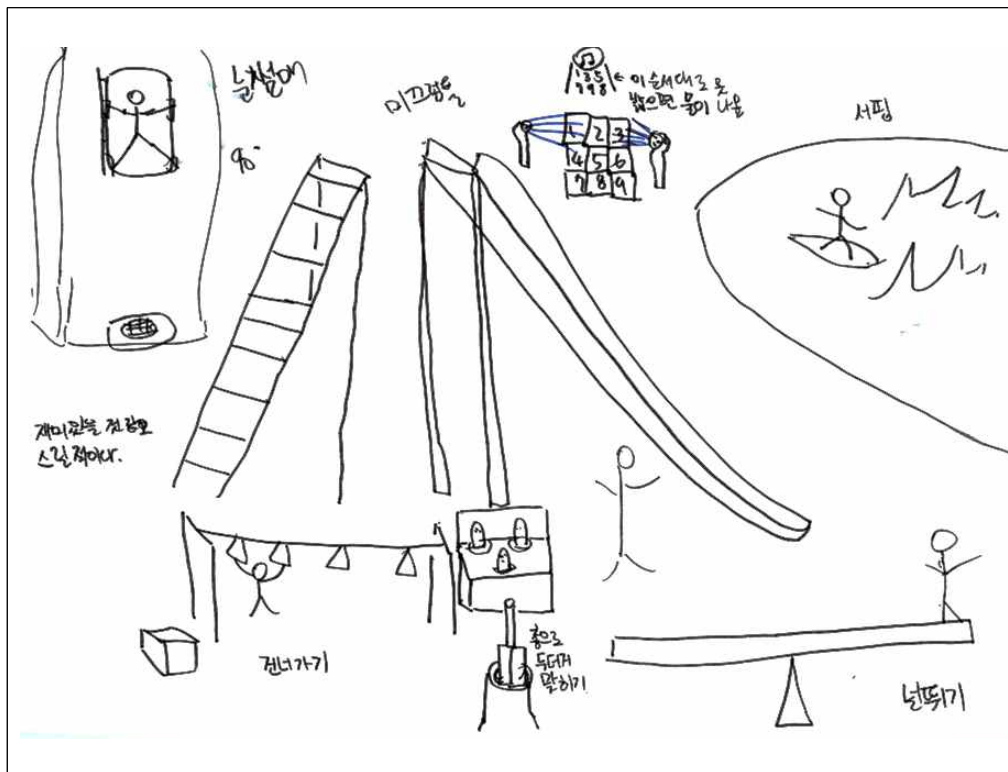
(교수학습지도안의 양식을 따라 작성함)

[illegible]











[부록 5] 어린이 워크숍 활동지 (워크숍 소감)

<p>워크숍을 하면서 우리동네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간식도 주시면서 정말 재미 있었고 맛있었다. 이렇게 선생님고 같이 하면서 우리 동네에 대하여 훨씬 많이 알게 되었다. 정말 재미있고 신났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다.</p> <p>감사해요</p>	<p>소감</p> <p>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동네에서 더 잘 알게 되어 좋았다.</p> <p>길에 나뭇짐을 찍고 가니 이 나뭇 짐이 근처 접으면 한다.</p> <p>정말 재미 있고 유익한 시간 이었다.</p>
<p>우리가 활동은 우리 마인드맵을 그려 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디서 노는지 알 수 있었다. 우리 동네의 지도에서 우리집, 운동장, 여대까지 기다이 외는 지 찾아보는 것이 재미있었다. 우리 마을 할만도 큰와같이 인도인에도 치가 다는 것이 조금 불편해서 치가 못 다하게 한 번 좋겠다.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수업이 더 즐거웠다.</p> 	<p>소감</p> <p>이번에는 각 반의 회장, 부회장이 같이 모여 우리 동네에 대해 같이 토론했을 때였다. 막상 떠오르는 것은 없었지만 생각에 있는 걸 꺼내보니 우리 동네에 이런게 있었다는 것을 세심 하게 되었다. 지도로 보니 우리 동네에 많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새로 알았다.</p> <p>우리 마을에 대해 다시 알게 되었다.</p> <p>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대해 냄새는 꼭 없어야 된다면 좋겠다. 또 서울대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해서 더 좋았던 것 같다.</p> <p>감사합니다.</p>
<p>우리 동네가 어떻게 있고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었고 4군데들은 서로 있으면 더 좋은 동네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재밌었던 수업이 될 것 같다.</p>  <p>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싶다.</p>	<p>우리 동네가 더 재밌어졌다.</p> <p>동네 여러 곳을 알 수 있게 되었다.</p> <p>동네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다.</p> <p>우리 동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p> <p>우리 동네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p> <p>재미있고 노는 대도 잘 알았고 동네로 잘 알 수 있었다.</p> <p>조금 서운하지만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p> <p>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좋은 추억 감사합니다.</p>

Abstract

A Study on Child-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 Composition through Particip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Students in Mia Elementaty School in Gireum-dong, Seongbuk-gu

Advised by Prof. Kyung-jin Zoh

Submitted by Hyo jin Lee

February 2014

M.L.A Thesis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d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ecause of acceleration of urbanization and continuous increase of population in city area, it is estimated that about 60% of children in the world will live in city areas by 2025. From the perspective of life development of human beings, childhood is important period when constant development and growth are made.

To children who develop themselves through multifaceted searches and experiences in neighborhood environments, urban environments are important growth background and elements. In particular,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e explosive development in motor capabilities and social emotional

capabilities as well as establishment of self-concept. Therefore all physical and social growth environments that children contact in this period should be diversely analyzed and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 and improvement efforts of communities are required.

In this context,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ICEF and UNESCO make various efforts to compose ‘Child-friendly cities’ where children can live happy life ultimately.

Accordingly, this study tries to review child-friendly cities which have not been studied sufficiently even though it has been one of important international issues, and tries to make ‘Neighborhood environment’ closely related with life environments of children child-friendly. To do this, we reviewed literature regarding the concept of child-friendly cities and children’s participation and a practical study was performed on students in Mia Elementary School in Kileum-dong, Seongbuk-gu where child-friendly city building is actively performed.

After literature review, we performed a survey on local residents and hosted a workshop for children. To identify perceptions of local residents on child-friendliness of neighborhood environments before establish child-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s, a survey was performed on 42 parents and 170 Grade 5 students in Mia Elementary School. For questionnaires, Assessment Database Tools in related literature were referred to, and major results of the surve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oth of parents and children answered that social participation environments for children were not prepared well. Average score of social participation environments was remarkably lower than score of play, leisure, safety, protection, and school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Second, there were many parents who did not know ordinances to compose child-friendly cities in Seongbuk-gu and children related projects in the dimension of Gu.

Third, there was high percentage of answers that they would actively consider their children’s participation if there were activities, educational

programs or children's participation organizations for the composition of child-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s.

The workshop was performed with 24 Grade 5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Mia Elementary School (12 males and 12 females) under the theme of 'Our Neighborhood.' The purpose of the workshop was to think of playground and roads that children use and to find improvements. In the workshop, mind-map drawing, imaginary painting drawing, mapping to neighborhood map and impression writing activities were made considering the eye level of children.

The followings are the summary of major results of the workshop.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pace where indoor and outdoor activities of children are made at the most was school and then home and playground followed.

Second, children wished that new and fresh rides would be equipped in the neighborhood. Leisure sports elements, natural space elements, extraordinary playground elements, and sports space elements followed as next wishes.

Third, roads that children mainly pass in the neighborhood were commuting roads. Children knew the problems in safety and hygiene in the neighborhood of their school, and had strong will to improve them.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ir attachment to their neighborhood got stronger through the workshop and they expressed the opinion that they would like to participate in the workshop again if given.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following proposals were made to compose child-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s.

Currently, Seongbuk-gu propels practical policy tasks and detailed businesses through public-private governance system with the vision of 'An educational city where children are happy.' Such plans should be performed more systematically at stages rather than formative and ineffective practice.

First of all, we need to survey the perception of local residents to judge the level of child-friendliness of each area in Seongbuk-gu as performed in this study. Therefore, we need to develop more elaborate survey questionnaires for the perception survey. Additionally, we need to provide an

exit so that children can express their opinions more freely who should perform important roles in the creation of urban environments. Thus, children's council should be activated. With this, children in all areas should be provided with opportunity of environmental education which will help them to understand their rights and urban environm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earched for the possibility of child-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s through participation of children by illumin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their major living space such as neighborhood environments and hosting a workshop with children. With social flow of today where resident participation type urbanization plan based on cooperative governance is a trend, the necessity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of children who will grow up to be members of the future society becomes more important. Therefor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be a model case and a manual to be referred to in planning a child-friendly city space through children's participation.

This study has a few limitations.

First, questions asking the level of child-friendliness in the survey questionnaires are somewhat general.

Second, it could not listen to diverse opinions of children in various ages as it limited the participants of the workshop as Grade 5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rd, the participations process of children were carried out in the short term and explorations of local community environments were mainly conducted as indoor activities.

It is hoped that further studies will supplement these limitations to make studies more effective.

-
- Keywords : child-friendly city, neighborhood, child-friendly neighborhood environment, children's participation, participation planning, workshop.
 - Student Number : 2012 - 22078